

南北對話關聯

國內主要新聞記事集 I

(1989. 9~1990. 2)

1990. 2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제6공화국 출범이후 우리정부는 사회각계의 민주화 진전에 따라 고조되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남북관계의 본질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협력시대를 열기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7·7특별선언』을 통하여 이러한 의지가 천명되었으며, 이 선언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1985년 12월 북한측의 일방적 중단선언 이래 2년 8개월 만인 1988년 8월 19일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을 시작으로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과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북한측은 1989년초 또다시 팀스피리트 훈련과 밀입북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이유로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우리정부는 북한측의 이러한 부당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화해와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는 동시에 민족화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1989년 9월 27일 남북적십자 제1차 실무대표접촉의 개최이래 1990년 2월 7일 까지의 기간중 남북적십자실무대표접촉(수석대표개별접촉 포함)8회,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4회, 남북체육회담(실무대표접촉 포함) 13회,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3회 등 4개 분야 총 28회의 남북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활성화에 대비한 업무참고자료의 정리와 역사적 자료의 집적이라는 차원에서 남북대화에 관한 국내 일간지의 주요기사들을 편집하여 『남북대화 관련 기사집』을 발간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제1집은 1989년 9월부터 1990년 2월까지의 기간중 국내 주요일간지의 남북대화 관련 보도기사, 사실, 해설 등을 정리하여 각종 회담별로 편집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남북적십자실무대표접촉 관련기사 54건,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관련기사 19건, 남북체육회담 관련기사 57건,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관련기사 14건, 남북대화전반 관련기사 23건 등 총 167건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편집상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을 것이나, 본 기사집이 남북관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0. 2.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目 次

I.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關聯記事	3
II. 南北高位級會談 豫備會談 關聯記事	41
III. 南北體育會談 關聯記事	57
IV.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關聯記事	97
V. 南北對話全般 關聯記事	107

I.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關聯記事

국민일보 (1989. 9. 6)

南北赤회담 27일再開

3년 8개월만에 北韓, 우리측제의 同意 通보

남북정상회담의 접촉이 孫成弼위원장의 20일 오전 金相浹대변인과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된 가운데,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련 회의회의실에서 갖지고 수 접제의었다.

金相浹은 이 통보에서 「이번 실무대표접촉에서는 회담의 교착국면을 타개 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어 한 다고 밝혔다.

金相浹의 이번 제안은 북 한이 지난날 26일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재개할 것을 지지하고 한 데 대한 수 접제의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접촉이 孫成弼위원장의 20일 오전 金相浹대변인과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된 가운데,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련 회의회의실에서 갖지고 수 접제의었다.

金相浹은 이 통보에서 「이번 실무대표접촉에서는 회담의 교착국면을 타개 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어 한 다고 밝혔다.

金相浹의 이번 제안은 북 한이 지난날 26일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재개할 것을 지지하고 한 데 대한 수 접제의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접촉이 孫成弼위원장의 20일 오전 金相浹대변인과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된 가운데,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련 회의회의실에서 갖지고 수 접제의었다.

金相浹은 이 통보에서 「이번 실무대표접촉에서는 회담의 교착국면을 타개 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어 한 다고 밝혔다.

金相浹의 이번 제안은 북 한이 지난날 26일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재개할 것을 지지하고 한 데 대한 수 접제의이다.

국민일보 (1989. 9. 20)

南北赤회담 再開 전망

金相浹총재 北에 27일 실무접촉제의

남북정상회담이 중단된지 4년만에 재개할 전망이다.

대변인인 孫成弼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련 회의회의실에서 갖지고 수 접제의었다.

金相浹은 이 통보에서 「이번 실무대표접촉에서는 회담의 교착국면을 타개 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어 한 다고 밝혔다.

金相浹의 이번 제안은 북 한이 지난날 26일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재개할 것을 지지하고 한 데 대한 수 접제의이다.

동아일보 (1989. 9. 26)

南北赤 내일 板門店서 접촉

3년 10개월만에 재개

1천만 南北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7년 10개월만에 南北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대표접촉이 27일 오전 10시 板門店 중립국감련 회의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실무접촉에서는 지난 85년 12월 제10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열거되었던 제11차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85년 9월 20일 서울과 平壤에서 동시 개최할 경우 중립국감련 南北이산가족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제기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南北정상회담 접촉은 지난 85년 12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회담에서 제11차 회담을 86년 2월 26일 平壤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뒤 86년 1월 20일 平壤에서 열린 南北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하기 위해 7년 10개월만에 南北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대표접촉이 27일 오전 10시 板門店 중립국감련 회의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실무접촉에서는 지난 85년 12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회담에서 제11차 회담을 86년 2월 26일 平壤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뒤 86년 1월 20일 平壤에서 열린 南北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실현하기 위해 7년 10개월만에 南北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남북정상회담 실무대표접촉이 27일 오전 10시 板門店 중립국감련 회의회의실에서 열린다.

서울신문 (1989. 9. 26)

赤十字접촉 대표단 韓赤 北에 명단 통보

金相浹대변인과의 접촉을 통해 25일 상오 孫成弼위원장의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통해 판문점 중립국감련 회의회의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 실무대표접촉에 참가할 우리측 대표명단을 통보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宋榮大수석대표 52·남북정상회담 韓赤 대표단대표(韓赤)와 李峻熙대표(49·韓赤)와 회담 대표단대표(李柄雄) 48·韓赤 정상회담 대표단 대표(李柄雄) 43명이다.

離散가족再會와 「信者」초청

꿈졌던 南과北의 대화가 다시 이어지고 이어진 대화의 뒤를 이어 교류가 이뤄진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다. 오늘 板門店에서 남북적십자 실무대표회담이 열린다. 얼마만의 남북대화인가를 생각하면 양쪽 적십자회담 실무접촉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아니할수 없다.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에 南北교류협력의 새 轉機가 될지도 모를 北韓천주교 「信者」들의 訪韓초청이 승인되었다. 적십자 실무접촉과 북한신자의 초청등이 모두 까다롭기 짝이 없는 南北韓정치군사관계회담이 아닌 순수민간차원의 대화와 교류추진이라는 점에서도 그 바람직한 전개가 기대되고 있다.

韓赤이 1천만 離散가족찾기운동을 제창하고 南北赤회담을 제의한지 18년이 지났다. 85년 9월에는 마침내 이산가족의 고향방문과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이뤄졌다. 우리 分斷史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이 교환방문은 이산가족의 고통은 우리 시대에 기어어 해소해야한다는 우리의 의지와 이념·체제를 초월한 순수한 人道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北측은 이 교류가 그들의 對南전략과 정치목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자 우리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핑계로 내세워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렸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다.

북한 신자의 초청도 남북대화과 교류의 증진을 위해 아주 훌륭한 계획이고 결단이다. 지금까지 북한을 방문한 우리쪽 신자들이 적지않고 해외교포 교회관계자와 승려 몇분이 이복을 다녀와 그쪽의 「信者」및 종교현황을 소개한일은

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신자들이고 종교관계자들이고 간에 한사람도 이쪽을 다녀간 사람이 없다. 우리는 이단계에서 妙香山 普賢寺와 거기 승려가 어떻게 남아있고 평양시내의 聖堂과 사제가 어떤 형태인지 구태여 따지고자 아니한다. 그쪽의 신자들이 「누구」인지도 개의치않을 것이다. 다만 남북간의 동족과 종교인으로서, 또 순수한 人道주의 차원의 교류와 만남으로서 그들이 이쪽에 올수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이다. 그들은 따듯이 환영받을 것이다.

적십자 실무접촉이나 북한 신자의 韓國방문은, 거듭강조하건대 정치적목적이나 군사적동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같은 땅위의 사람끼리, 또 한핏줄 동족끼리 만나고자함이다. 같은 분단국인 東西獨의 경우 연간 500만~600만의 가족들이 이념이나 체제 개입없이 자유로이 왕래하고 있다. 中國에 사는 교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엇그제는 蘇聯 사할린 동포 39명이 入國하여 친족과 상봉하며 望郷의 50년恨을 풀지않았는가.

요즘 북한쪽의 여러가지 형편상 이산가족들이 당장 재상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 또 신자가 많지않고 여러사침도 있어 한꺼번에 많은 신자들을 보내기 쉽지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산가족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편지를 교환하는 일은 북측의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컨대 서로 믿고 이해하고 결국은 통일하고자 하는 열원에 달린것이다. 再開되는 대화에서 북한측은 그런 진지한 자세를 보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南北對話채널 再稼動의 시형대

文藝春秋社 편집부 사간은 27일 3월말 제2차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27일 문예춘추사 편집부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27일 문예춘추사 편집부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46개월만의 「赤十字접촉」 意味

단 11일 대북방송을 중단한 문예춘추사의 「한민중공체」를 통한 「한민중공체」의 실용성 확보를 위한 첫작품이란 면에서 중요성을 띠고 있다. 사실 남북대화회담이 이산가족회합을 위한 대화 채널로 활용되던 1985년 12월 10차 회담이후 46개월 만에 다시 회담이 열릴 수 있게 된 것은 이례적이다.

문예춘추사 사간은 27일 문예춘추사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27일 문예춘추사 편집부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문예춘추사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27일 문예춘추사 편집부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문예춘추사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27일 문예춘추사 편집부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문예춘추사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27일 문예춘추사 편집부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문예춘추사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27일 문예춘추사 편집부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문예춘추사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27일 문예춘추사 편집부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密入北파문 이후 상호對坐필요성공감

당장 結實보다 眞意탐색전 日될듯

문예춘추사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27일 문예춘추사 편집부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문예춘추사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27일 문예춘추사 편집부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문예춘추사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27일 문예춘추사 편집부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문예춘추사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27일 문예춘추사 편집부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문예춘추사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27일 문예춘추사 편집부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문예춘추사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27일 문예춘추사 편집부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문예춘추사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27일 문예춘추사 편집부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문예춘추사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27일 문예춘추사 편집부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문예춘추사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27일 문예춘추사 편집부 사간은 27일 남북대화회담이후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재稼動 시키거나 재개할 전망이다.

「故郷방문」 논의進展 없어

南北赤실무접촉 "16일 다시對坐"에만 합의

제11차 적실무접촉은 개표 문제와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고향방문제 협의하기 위해 제2차 적실무접촉을 16일 오전 10시 중립지역인 판문점 중립지역사무소의 회의실에서 열렸다.

비공개도 진행된 이날 접촉에서 양측이 분회담 개최 및 고향방문단·예술단·교향악기문제와 구정방문제에 합의했다. 양측의 합의는 평행하지만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제3차 접촉을 16일 오후 10시 중립지역사무소의 회의실에서 갖기로 합의하고 끝났다.

우리측인 이산가족문제와 판문점사무소 개설하기 위해서 양측은 판문점사무소의 설립을 위한 10차 회담까지의 5개항사업의 합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바를 합의하고 양측은 판문점사무소의 개설을 위해서 판문점사무소의 설립을 위한 10차 회담까지의 5개항사업의 합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바를 합의했다.

남측은 북한측인 판문점사무소의 설립을 위한 10차 회담까지의 5개항사업의 합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바를 합의했다. 판문점사무소의 설립을 위한 10차 회담까지의 5개항사업의 합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바를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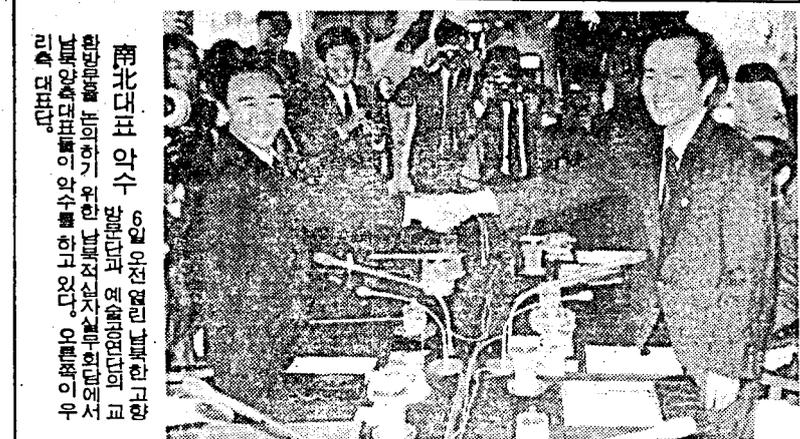
예술단 규모는 異見 못 좁힐려

北도 文목사·林양·文신부 석방 요구

제11차 적실무접촉은 개표 문제와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고향방문제 협의하기 위해 제2차 적실무접촉을 16일 오전 10시 중립지역인 판문점 중립지역사무소의 회의실에서 열렸다.

비공개도 진행된 이날 접촉에서 양측이 분회담 개최 및 고향방문단·예술단·교향악기문제와 구정방문제에 합의했다. 양측의 합의는 평행하지만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제3차 접촉을 16일 오후 10시 중립지역사무소의 회의실에서 갖기로 합의하고 끝났다.

중앙일보 (1989. 10. 6)



남북적실무접촉을 위해 판문점 중립지역사무소에서 열린 제11차 적실무접촉에 참가한 남측 대표단원들이 회담을 하고 있다.

고향방문단 규모 본會談시기 논란

남북적실무접촉은 개표 문제와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고향방문제 협의하기 위해 제2차 적실무접촉을 16일 오전 10시 중립지역인 판문점 중립지역사무소의 회의실에서 열렸다. 양측은 판문점사무소의 설립을 위한 10차 회담까지의 5개항사업의 합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바를 합의했다.

“先 고향訪問” 進展

南北赤 3차접촉 우리측, 北韓 주장 受容

“本會談은 뒤로” 修正제의 規模·구체시기 집중논의

【板門店=李興雨기자】제 11차 조선자본회담개최와 제2차 남북고향방문단 및 예술단교환연인, 실현을 위한 제3차 남북조선자본회담 대표접촉이 16일 오전 판문점 중앙부 관공서 회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우리측 요구의 해빙과 개로 진행될 이 판접촉에서 상대방이 특히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교환연의 교환을 위한 제3차 남북조선자본회담 대표접촉이 16일 오전 판문점 중앙부 관공서 회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우리측 요구의 해빙과 개로 진행될 이 판접촉에서 상대방이 특히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교환연의 교환을 위한 제3차 남북조선자본회담 대표접촉이 16일 오전 판문점 중앙부 관공서 회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실현을 위해 우리측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先조선자본 회담 後고향방문단교환연 실현의 순서에서 양측은 북한측 주장대로 고향방문단교환연을 먼저 실현시키려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향방문단교환연은 판문점 중앙부 관공서 회담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측은 고향방문단 3백명, 예술단 3백명의 방문단 규모를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측은 예술단교환연 규모를 11차 조선자본회담에서는 이산가족왕래를 위해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렇게도 북한측이 고향방문단교환연 주장하고 있는 만큼 방문단교환연의 실현을 위해서도 분회담을 방문단교환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우리측의 총선 입장을 양보했다.

宋榮大 우리측 수석대표는 “고향방문단교환연의 연도

宋수석대표는 “조선자본 회담이 기본정신에 따라

방문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같이 합의하고 실현된다

이날 양측 대표들은 회담이 시작되기 전, 어제는 이

판접촉에서는 가부간원가

故郷방문단 12월8일 교환

赤十字실무접촉 합의 藝術團도... 규모등은 내달 절충

本會談 12월15일 平壤 개최

방문단 규모 양측 300명씩 제의

그동안 중립화단 南北 이산가족의 만남이 온난한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어 오고 있다. 12월 초 실시될 가해성의 16일 오전 10시 板門店에서 열린 남북회담의 일환으로 방문단 교환에 합의했다. 이번 방문단은 12월 15일 평壤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방문단의 규모, 일정, 교환 순서 등에 대해 합의했다.

남북회담은 10차 회담을 끝으로 중단되었던 제11차 회담을 12월 15일 평壤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방문단의 규모, 일정, 교환 순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방문단은 12월 15일 평壤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방문단의 규모, 일정, 교환 순서 등에 대해 합의했다.

고향방문단 교환에 합의했다. 양측은 방문단의 규모, 일정, 교환 순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방문단은 12월 15일 평壤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방문단의 규모, 일정, 교환 순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방문단의 규모, 일정, 교환 순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방문단은 12월 15일 평壤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방문단의 규모, 일정, 교환 순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방문단의 규모, 일정, 교환 순서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방문단은 12월 15일 평壤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방문단의 규모, 일정, 교환 순서 등에 대해 합의했다.

◆南北간 異見부분

	南	北
고향방문 및 예술단 방문기간	5박 6일	3박 4일
규모	고향방문단 : 300명 예술공연단 : 50명 (상호주의에 따라 南北동수)	고향방문단 : 300명 예술공연단 : 50명 北 300명
방문지	고향방문단 : 직접 예술공연단 : 서울-평양	서울-평양
공연내용-횟수-시간	총 2회, 각 2시간씩 정치선배제 등 선례 준용	4회, 각 2-3시간씩 민족가요, 노래, 자살극, TV, 실황중계

南北왕래의 「制度化」

북한과 남한이 남북왕래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왕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남북왕래는 여전히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남북 양측의 정책적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남북 양측은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남한은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남북 양측의 정책적 차이를 극복하고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남북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의 정책적 차이를 극복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한은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남북 양측의 정책적 차이를 극복하고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남북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남북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의 정책적 차이를 극복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한은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남북 양측의 정책적 차이를 극복하고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남북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의 정책적 차이를 극복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한은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남북 양측의 정책적 차이를 극복하고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겨레의 所望만이 大義다

—南北交流와 韓半島의 正道—

남북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의 정책적 차이를 극복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한은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남북 양측의 정책적 차이를 극복하고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남북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의 정책적 차이를 극복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한은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남북 양측의 정책적 차이를 극복하고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南北赤 방문단 본회담 시기 합의 의미

9월 방북한 방한단과 방북단은 17일 서울에서 4시간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990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방북단은 방한단의 방북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을 기대했다. 방한단은 방북단의 방북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을 기대했다.

年內 人的교류실현 "青信號"

9월 방북한 방한단과 방북단은 17일 서울에서 4시간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990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9월 방북한 방한단과 방북단은 17일 서울에서 4시간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990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본문 참조]

訪問團 규모 남이宿題

時期문제 우리측 양보 타결 가장 큰 難題 해결로 기대감

9월 방북한 방한단과 방북단은 17일 서울에서 4시간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990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방북단은 방한단의 방북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을 기대했다. 방한단은 방북단의 방북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을 기대했다.

방북단은 방한단의 방북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을 기대했다. 방한단은 방북단의 방북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을 기대했다. 방북단은 방한단의 방북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을 기대했다.

고향방문단 규모 타결 가능성



8일 오전 板門店 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열린 南北赤실무대표 4차 접
촉에서 양측 대표들이 반갑게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 <崔幸英기자>

우리측 北赤案 대폭 수용

예술단 百명·방문지 서울·平壤으로

南北赤 4차 접촉…절충안될면 다시 접촉

【板門店=김두우기자】남북측이 8일 오전 10시 板門店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려 오
는 제4차 실무대표접촉 회의를 열어 12월 8일 전 양측
대표들이 반갑게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 <崔幸英기자>

2차 고함방문단 및 예술단
접촉의 교섭규모·방문지·
방문기간 등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이
고함방문단 1백명, 방문지
해 군부에서 이천, 평壤
을 예술단 방문지와 방
문기간에 합의했다.

상향의 수송안은 선에서 양
측이 제시했다.
남측은 북측이 예술단
단 방문지로서 다소 후퇴한
선에서 수송안을 내놓았으나
남측은 그보다 후퇴한
선에서 수송안을 내놓았다.
이날 남측은 방문지, 방
문기간, 예술단 규모 등에
합의했다.

지은 것이다. 방문지, 방
문기간, 예술단 규모 등에
합의했다.

남측은 방문지, 방
문기간, 예술단 규모 등에
합의했다.

北「고향방문」지연의도 "노출"

難航의 4차南北赤실무접촉

북측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측에 대한 방문지연의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며, 고위급회담을 12월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급회담을 12월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급회담을 12월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선전 대규모公演 더 집착 韓·蘇관계 급진전도 고려한듯



이날은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남측이 북측에 대한 방문지연의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며, 고위급회담을 12월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급회담을 12월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측에 대한 방문지연의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며, 고위급회담을 12월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급회담을 12월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선전 대규모 공연을 통해 남측에 대한 방문지연의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며, 고위급회담을 12월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급회담을 12월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故郷방문 年内 실행 불투명

南北赤실무접촉 藝術團규모 異見 13일 5차접촉

【서울 9일 연합뉴스】 남북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남측이 북측에 대한 방문지연의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며, 고위급회담을 12월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급회담을 12월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결판 남북赤심투쟁특

고향방문단 成敗 半半

예술탄진모 합의여지 北의意志가 成事열쇠

【서울 9일 특파원 특보】 남북 예술인 교류를 위한 '고향방문단'이 13일 결판될 전망이다. 남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지만, 북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지만, 북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지만, 북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지만, 북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지만, 북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지만, 북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 예술인 교류를 위한 '고향방문단'이 13일 결판될 예정이다. 남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지만, 북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지만, 북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지만, 북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지만, 북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지만, 북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1989. 11. 10, 사설)

故郷이 너무 그리운 一世代들

한 TV연속극이 내보내고 있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울적한 끝에 임진각으로 나가 통곡하며 하는 뉘우리가 있었다. 하도 실감이나서 시청자를 함께 울렸다. "...나 혼자 살겠다고越南해서 잘 먹고 잘살고 있는게 아무들이 미안하다. 오마니 모시고 고생만 했을 너희들한테 언젠가 통일이 되면 나눠주려고 구두쇠소리 들어가며 돈을 공짜처럼만 인제 살아서 만날수가 있겠나..."

죽기전에 꼭 한번만이라도 두고는 고향산천이 보고싶어 밤마다 머리를 그쪽으로 두고 잠드는 失郷 1세대들이 우리에게도 아직도 상당히 있었다. 故郷 謝國恩을 議題로 南北會談이 열린다는 소식만 알리자면 對話事務局으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직접 찾는 사람들로 줄을 선다. 이번에도 역시 그랬다. 오는 12월 8일에 고향방문단, 예술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고향방문단을 지망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대화사무국이 북받았다. 그러나 8일 상오 板門店 總립국 감독위원회실에서 열렸던 제 4차 실무접촉에서는 아무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訪問團 交流의 件內實情이 불투명하다는 豫感만 짙게 해주고 말았다.

방문지를 平壤·서울로 국한하지는 북쪽의 주장도 남북이 동조했고 예술단 규모를 50명에서 1백명으로 늘려도 좋다고 수정제도의 했지만 저쪽은 예술단 규모를 2백50명까지하고 TV에 공연실황을 생중계하지는 주장만을 고집해서 뉘우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故郷은 이대 山川뿐이어서 이웃도 친척도 삼의 터전도 흩어져버린 그곳이라, 平壤에만 국한시켜 다녀가게 하려는 心算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고,

남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지만, 북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지만, 북측은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냐는 질문에 "11월 13일 결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차 접촉도 成果없이 끝났다

南北赤우리측, 예술단규모·中繼等양보

【板門店=林東明기자】제11차 남북정상회담개최를 위한 제5차 남북접촉이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끝났다. 양측은 이날 제6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 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23일째나 단명단 최종포함자로 제시했던 18일 이후인 28일이나 다지 접촉하자 등 구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북측은 자진들이 방문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접

【板門店=林東明기자】제11차 남북정상회담개최를 위한 제5차 남북접촉이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끝났다. 양측은 이날 제6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 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23일째나 단명단 최종포함자로 제시했던 18일 이후인 28일이나 다지 접촉하자 등 구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북측은 자진들이 방문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접

【板門店=林東明기자】제11차 남북정상회담개최를 위한 제5차 남북접촉이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끝났다. 양측은 이날 제6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 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23일째나 단명단 최종포함자로 제시했던 18일 이후인 28일이나 다지 접촉하자 등 구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북측은 자진들이 방문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접

藝術團공연TV중계수용

우리측 規模 1백명으로 修正제의

【板門店=李興雨기자】제5차 남북정상회담개최를 위한 제5차 남북접촉이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끝났다. 양측은 이날 제6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 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23일째나 단명단 최종포함자로 제시했던 18일 이후인 28일이나 다지 접촉하자 등 구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북측은 자진들이 방문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접

【板門店=李興雨기자】제5차 남북정상회담개최를 위한 제5차 남북접촉이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끝났다. 양측은 이날 제6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 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23일째나 단명단 최종포함자로 제시했던 18일 이후인 28일이나 다지 접촉하자 등 구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북측은 자진들이 방문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접

【板門店=李興雨기자】제5차 남북정상회담개최를 위한 제5차 남북접촉이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끝났다. 양측은 이날 제6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 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23일째나 단명단 최종포함자로 제시했던 18일 이후인 28일이나 다지 접촉하자 등 구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북측은 자진들이 방문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접

서울과 平壤으로 오가는길

東獨이 국경을 개방하던날 벌어진 東西베를린시민들의 감격적인 포용은 하나의 역사적인 광경이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민족이 離散가족의 만남같은 인도적이며 민족 내부적인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하니 착잡하기 그지없다. 어제 板門店에서 南北적십자 예비접촉으로 마주앉은 양쪽 실무자들의 가슴엔 무엇이 오갔을 것인가를 추측해 보는 마음 또한 편안하지 못하다.

마음먹기에 따라 당장이라도 실현될수 있는 고향방문단및 예술단교환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물론 韓半島의 南北관계는 가장 쉬운 것 같은 민족문제이면서 가장 까다로운 체제와 이념의 문제가 얽혀 해결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그 긴 40년분단의 역사와 6·25동족전쟁의 기록이나 17년에 걸친 대화와 갈등의 과정이 그 어려움을 말해준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해내야 한다. 당장 통일에 이르는 못해도 남북이산가족의 고통만은 우리 시대에 기어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東歐사회주의 국가들에 연쇄적으로 일고 있는 일련의 변화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示唆해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같은 분단국인 東西獨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것은 北韓을 연상해 그 상황을 韓半島에 代入해 보고 싶어서이다. 그것은 결코 하루이튿에 이뤄진 突發事가 아니다. 東西獨은 지금까지 1년에 5백만 명씩이나 각각 가족과 친지를 상호 방문해왔다. 양쪽을 합해 1천만명이 해마다 오가고 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지금 겨우 몇백명의 고향방문단및 예술단교환방문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있다. 고향을 찾아 省嶽하는 것도 아니다.

적십자정신 그대로 이념과 체제를 떠나 순수한 목적만 갖는다면 서울에 오는 길 平壤에 가는 길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고향방문단은 그렇더라도 예술단의 규모를 턱없이 늘려잡은 北韓측 처사는 아무래도 억지일 수밖에 없다. 예술단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문화교류에 속한다. 따라서 예술단은 국제사회가 공통인식을 갖는 본연의 예술인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런데 北韓은 이 예술단에 그들의 이른바 主體思想을 무장시켰을 것이다. 서울한복관에서 그들 대규모예술단이 「主體사상」을 선양하는게 목적이려면 인도주의의 적십자정신은 크게 훼손되고말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양보했다. 이번에 어떻게하든 일을 成事시켜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베를린장벽은 28년만에 뚫렸다. 그런데 우리들의 1백55마일 休戰線과 그 북관의 板門店은 36년이 지나도 열릴 줄 모른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다. 東西獨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식 통일을 꿈꾸는 北韓당국자들의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다.

南北韓이 대화하고 和解하는데는 지름길이 따로 없다. 서로 믿고 이해하는 가운데 순쉬운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順理이다. 교류의 상호성과 순수한 인도주의에 입각한다면 안될 이유가 없다.

北韓도 한번쯤 세계를 둘러볼 줄 알아야 한다. 정작 개방과 교류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쪽보다는 저쪽이다. 대규모예술단을 고집하는 그쪽의 속셈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양보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는 갖고 있다. 北韓도 그래야 한다.

합意在 힘겨운 南北회담

—「公演하자」는 건가, 「故郷가자」는 건가

이곳에서 지구를 반바퀴 돌아가는 저쪽방 독일은 과연 먼 나라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분단국가이면서 분단의 철벽을 무너뜨린 지난주말의 충격과 감격을 우리는 다만 지구 저쪽의 기적으로 받아들여야하기 때문이다.

겨우 이틀에다 만나질동안 허둥허둥진 장벽을 넘어 서쪽방을 밟은 동독사람이 자그마치 3백만에 이르고, 동독인구의 30%가 서독으로 가는 비자를 받았다고 보도됐다. 이런 판에 동쪽방 한반도에서는 수백명규모의 고향방문단과 예술단교환에도 힘겨운 입씨름을 거듭해야되는. 서글픈 현실을 벗지 못하고 있다.

13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적십자사이의 5차접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면 남북의 입장의차이를 역력히 알수있다. 고향방문이란 글자그대로 심할민들이 고향방을 찾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북측은 방문단이 가는 곳은 각각 평양과서울에 국한하자고 고집했다. 지난 8일 4차접촉때 우리측은 북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데 동의했다.

우리측이 「고향방문」에 최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측은 공연단교환에 보다 큰 뜻을 두고있다. 북측은 애초에 3백명규모의 공연단을 교환하고, 그것도 전국에 텔레비전중계를 하자고 했다.

지난 4차접촉에서 우리측은 애초에 주장했던 50명규모에서 1백명규모로, 북측은 3백명에서 2백50명으로 각각 50명씩 양보했었다.

북측이 「고향방문」보다 예술단에

을 두는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않다. 「예술단교류」의 이름아래 정치적 선전의 효과를 거두려는 생각일 것이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정치선전」을 배제한다는 전제에 텔레비전중계에도 동의했다.

남들처럼 몇백만이 폐물지어 원래 하지는 못할망정 불과 몇백명의 고향방문도 입씨름을 주고받아야 되는 현실에 우리는 부끄러움과 서글픔을 금할 길이없다. 지금 이時點에서 북측의 의도가 과연 어떤것인지 짐작하기는 쉽지않다.

우리측은 방문단의 규모와 방문지를 양보하고 공연단의 텔레비전중계까지 양보했다. 따라서 남은 문제는 공연단 규모밖에 없는데도 2차 고향방문단교환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어찌잔 말인가.

공연단의 규모는 바로 그 공연내용과 직결된다. 북측이 대규모를 고집하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이미 텔레비전중계에 「정치색배제」라는 구체적인 문제가 제기된것으로 보더라도 규모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 입씨름거리가 될 공산이 크다.

남북은 이미 12월 8일로 고향방문단교환의 날짜를 합의했다. 이래놓고 공연단문제로 고향방문단교환이 깨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측이 이미 대부분의 문제에서 양보한만큼 북측에서도 성의를 보여야한다.

북측이 정말 화해와 신뢰성회복을 위한 교류를 원한다면 공연단규모에 집착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오는 21일의 6차접촉을 세계가 주시하고있음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北韓, 유연하게 나오라

社說

북한은 1989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하는 것이다.

북한은 1989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하는 것이다.

북한은 1989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하는 것이다.

북한은 1989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하는 것이다.

의심스런 北의 對話意誌

북한은 1989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하는 것이다.

북한은 1989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하는 것이다.

북한은 1989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유연하게 나오라 하는 것이다.

年内 실현 불투명한 南北군정회담

정부는 남북군정회담이 올해 말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태도가 양호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北韓, 정세변화로 지연 속셈

북한은 정세변화로 남북군정회담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회담 분위기가 냉랭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군정회담이 올해 말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태도가 양호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남북군정회담이 올해 말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태도가 양호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군정회담이 올해 말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태도가 양호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남북군정회담이 올해 말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태도가 양호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군정회담이 올해 말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태도가 양호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남북군정회담이 올해 말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태도가 양호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연단 규모 핑계 내세워

잇단 양보에도 내년 移越 계산인듯

東歐開放 불뚱엿길까 고심

북한은 동유럽 개방을 둘러싸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동유럽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동유럽에 대한 개방 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동유럽 개방을 둘러싸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동유럽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동유럽에 대한 개방 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동유럽 개방을 둘러싸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동유럽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동유럽에 대한 개방 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군정회담이 올해 말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태도가 양호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남북군정회담이 올해 말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태도가 양호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南北韓 고향방문 합의

내달 8일 公演團과 함께

南北赤 6차접촉

5백71명 규모로 北 주장 수용

단원수는 충주모에서 편의대로 3泊4日 두차례 공연

반회담=12월15일 平壤 1월18일 서울서



南北적십자 실무회담대표들이 21일 오전 板門店에서 회담을 갖고 고향방문 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에 합의, 활짝 웃으며 안수를 나누고 있다.

〈板門店=黃鍾建기자〉

【본지 특파원 21일 평壤 21일 오전 板門店에서 회담을 갖고 고향방문 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에 합의, 활짝 웃으며 안수를 나누고 있다. <이회동 기자>】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 대표들이 21일 오전 板門店에서 회담을 갖고 고향방문 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에 합의, 활짝 웃으며 안수를 나누고 있다. <이회동 기자>】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 대표들이 21일 오전 板門店에서 회담을 갖고 고향방문 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에 합의, 활짝 웃으며 안수를 나누고 있다. <이회동 기자>】

【본지 특파원 21일 평壤 21일 오전 板門店에서 회담을 갖고 고향방문 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에 합의, 활짝 웃으며 안수를 나누고 있다. <이회동 기자>】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 대표들이 21일 오전 板門店에서 회담을 갖고 고향방문 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에 합의, 활짝 웃으며 안수를 나누고 있다. <이회동 기자>】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측이 제안한 고향방문 단 규모를 5백71명으로 수용했다. 단원수는 충주모에서 편의대로 3박4일 두차례 공연한다. 반회담은 12월15일 평壤에서, 1월18일 서울에서 열린다.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 대표들이 21일 오전 板門店에서 회담을 갖고 고향방문 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에 합의, 활짝 웃으며 안수를 나누고 있다. <이회동 기자>】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 대표들이 21일 오전 板門店에서 회담을 갖고 고향방문 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에 합의, 활짝 웃으며 안수를 나누고 있다. <이회동 기자>】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 대표들이 21일 오전 板門店에서 회담을 갖고 고향방문 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에 합의, 활짝 웃으며 안수를 나누고 있다. <이회동 기자>】

우리측 北案대 폭수용 불구 細部異見

故郷방문단 合意실패

北 혁명가극극포함 公演들리자 가족상봉도 密閉장소 非公開 주장

「來8일 5백기 푸구포, 원 혁명의
南北赤, 27일 다시 접촉 갖기로

【평양 21일 27일 푸구포 특파원 리정호 기자】북조선 혁명가극극포함의 공연을 둘러싸고 남북 양측이 27일 다시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27일 오후 2시에 푸구포에서 2시간 동안 접촉을 가졌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27일 오후 3시에 다시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27일 오후 3시에 다시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27일 오후 3시에 다시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27일 오후 3시에 다시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27일 오후 3시에 다시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27일 오후 3시에 다시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27일 오후 3시에 다시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27일 오후 3시에 다시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27일 오후 3시에 다시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27일 오후 3시에 다시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27일 오후 3시에 다시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27일 오후 3시에 다시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27일 오후 3시에 다시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평양 21일 27일 푸구포 특파원 리정호 기자】

이 합의는 양측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27일 오후 3시에 다시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27일 오후 3시에 다시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社說

南北故鄉방문인 꿈인가

북한이 10월 10일과 11일, 그리고 12일 3차례 방한을 단행했다. 방한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초에는 1년에 1~2차례 정도 방한이 있었으나, 1985년 이후에는 1년에 3~4차례 방한이 있었으며, 1988년에는 1년에 5차례 방한이 있었다.

이러한 방한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한이 단순한 교류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이 방한을 단행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한이 단순한 교류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이 방한을 단행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한이 단순한 교류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이 방한을 단행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한이 단순한 교류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이 방한을 단행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한이 단순한 교류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이 방한을 단행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한이 단순한 교류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이 방한을 단행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한이 단순한 교류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이 방한을 단행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한이 단순한 교류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이 방한을 단행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한이 단순한 교류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이 방한을 단행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한이 단순한 교류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北은率直하지 못하다

북한이 방한을 단행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한이 단순한 교류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이 방한을 단행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한이 단순한 교류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이 방한을 단행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한이 단순한 교류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이 방한을 단행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한이 단순한 교류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이 방한을 단행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한이 단순한 교류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이 방한을 단행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한이 단순한 교류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이 방한을 단행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한이 단순한 교류의 차이를 넘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합의실폐한 6차 남북직접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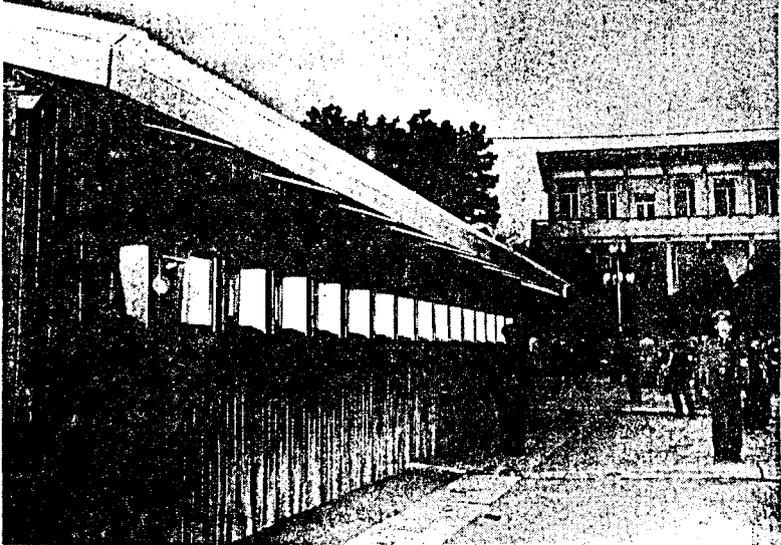
남북이 합의실폐한 6차 남북직접총을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1989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1989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北, 백번양보에도 人道主義외면

가족상봉보다 政治선전속셈 방문단 교환 뜻없음 명백해져

北공연고집 「꽃파는 처녀」는 金日成우상화 내용

【서울 22일 특파원 특보】 6차 남북직접총이 합의실폐된 후, 북한은 백번 양보에도 人道主義(인도주의)를 외면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총회를 1989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1989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분개된 회담장 제2차 교환방문단인 여승용연단의 교환을 위해 열린 21일의 남북직접총에서 열린 회담장 모습이다. 회담장은 서울에서 개최된다.

남북이 합의실폐한 6차 남북직접총을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1989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1989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남북이 합의실폐한 6차 남북직접총을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1989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1989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南北赤 「고향訪問團교환」 줄다리기

「북측은 고향 방문단 교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북측은 고향 방문단 교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북측은 고향 방문단 교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離散가족 再會기대 또 무너지는가

우리側 대폭 양보에 北側 되레 주춤 공개相逢 제안하자 「密室만남」 고집

남측은 고향 방문단 교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남측은 고향 방문단 교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남측은 고향 방문단 교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남측은 고향 방문단 교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떻게 되나」문의전화 빙발 21일오전 남측은 고향 방문단 교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북측 방문단〉

정부는 최근 들어...
정부는 최근 들어...
정부는 최근 들어...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정부는...
정부는...
정부는...

世情春秋

題字：雨林 金 鎮 群



鄭 鍾 旭
<서울대 국제정치학>

離散재회길망이 꽃피는 처녀

정부는...
정부는...
정부는...
정부는...

정부는...
정부는...
정부는...
정부는...

정부는...
정부는...
정부는...
정부는...

「故郷방문」 질충 難航

南北赤 板門店 접촉 年内 실현 불가능 확실

예술단公演物사고異見

北측 非公開상봉등 高집

【북측 보도】북측은 남측이 남측의 예술단 공연물 사고에 대해 남측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북측은 남측의 이러한 태도를 "남측의 비공개 상봉 등 고집"이라고 비난했다.

남측은 북측의 이러한 비난에 대해 "북측의 예술단 공연물 사고는 남측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측은 북측의 비난에 대해 "북측의 비공개 상봉 등 고집"이라고 비난했다.

남측은 북측의 이러한 비난에 대해 "북측의 예술단 공연물 사고는 남측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측은 북측의 비난에 대해 "북측의 비공개 상봉 등 고집"이라고 비난했다.

남측은 북측의 이러한 비난에 대해 "북측의 예술단 공연물 사고는 남측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측은 북측의 비난에 대해 "북측의 비공개 상봉 등 고집"이라고 비난했다.

故郷방문단 年内교환 霧散

南北赤, 절충 失敗 北, 「혁명歌劇」공연 끝내 고집

다음會談 날짜도 못정해

상호입장變化 있을때 電話연락키로



北, 故郷방문단 27일 안산 10시 板門店 會談 開始. 南, 故郷방문단 27일 안산 10시 板門店 會談 開始. 南, 故郷방문단 27일 안산 10시 板門店 會談 開始.

【板門店=李健次기자】南北 故郷방문단 會談이 27일 안산 10시 板門店 會談 開始. 南, 故郷방문단 27일 안산 10시 板門店 會談 開始. 南, 故郷방문단 27일 안산 10시 板門店 會談 開始.

가 있을 경우 추후 2차 회담을 위한 會談이 27일 안산 10시 板門店 會談 開始. 南, 故郷방문단 27일 안산 10시 板門店 會談 開始. 南, 故郷방문단 27일 안산 10시 板門店 會談 開始.

北, 故郷방문단 27일 안산 10시 板門店 會談 開始. 南, 故郷방문단 27일 안산 10시 板門店 會談 開始. 南, 故郷방문단 27일 안산 10시 板門店 會談 開始.

北, 故郷방문단 27일 안산 10시 板門店 會談 開始. 南, 故郷방문단 27일 안산 10시 板門店 會談 開始. 南, 故郷방문단 27일 안산 10시 板門店 會談 開始.

허망하게 깨진 故郷방문의 꿈

한가닥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던 남북적십자 7차 실무접촉마저 성과없이 끝남에 따라 남북고향방문단의 연내교환은 허망한 꿈이 되고말았다. 혹여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까 학수고대하던 1천만 이산가족의 실망은 말할것도 없고 민족의 自決力량이 고조 이정도인가 하는데 이르러서는 그저 한심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국경을 개방한 東西獨은 주말마다 수십만명이 왕래를 하면서 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관인대 같은 처지의 우리는 겨우 몇백명의 교향방문조차 성사시키기가 어렵단 말인가.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게 된것은 전적으로 북한측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수가 없다.

27일의 실무접촉에서도 북한측은 종래의 무리한 주장을 되풀이 함으로써 민족의 열화같은 나들이 열원을 의면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와 「피바다」의 공연을 여전히 고집하는가 하면 이산가족의 密室상봉을 내세운 북한측의 태도는 한마디로 고향방문이건 예술단공연이건 남북교류를 하고싶지 않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급혁명투쟁을 고취하고 金日成을 우상화하는 내용의 공연물을 서울무대에 올릴수 없다는 점은 북한측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한술더 떠 이들 혁명가극이 적십자정신에 부합될뿐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필요하다는 억지를 늘어놓았다. 고향방문사업을 성사시키기보다는 어떻게해서든지 깨버릴 구실을 찾기에 급급하고 있음이 역력하게 드러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달 15일에 예정된 적십자 본회담까지 방문단교환의 先行을 내세워 무산 시킴으로써 당분간 남북접촉을 하지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북한측의 이같은 태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동유럽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개혁의 바람이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사회에 미치지 않을까 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金日成 일당독재를 고스란히 金正日에게 세습시키려 고심하고 있는 북한정권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개혁의 물결이다. 소련과 동유럽에서 일고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북한사회에 스며든다면 총력을 기울이다시퍼하면서 추진중인 金日成·金正日 부자세습계획은 수포로 돌아갈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믿은 東獨과 체코 불가리아등에서마저 급속한 개혁이 이뤄지고 수십년씩 권력을 장악했던 독재자들이 속속 쓰러지는 사태를 목격하면서 金日成정권이 당황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최근들어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체사상투쟁을 강화한 것도 외부의 바람이 스며들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때 남북간의 대화는 당분간 더욱 경색될 우려도 없지않다. 平壤에 꽃이 활짝 피는 내년 4월쯤이나 고향방문을 성사시키자는 게 북한측의 속셈이지만 공산권의 개혁분위기가 북한에 유리하게 반전되지 않는한 그러한 계획도 기대도 그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측이 이처럼 교류를 회피한다해서 우리마저 손을 털고 돌아앉을수는 없는 일이다. 민족의 진정한 열원이 무엇인가를 명심해서 양측이 순수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도록 인내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앞서 민족의 同質性과 一體感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다잡아가야 할 것이다.

離散가족의 꿈과 政治劇

南北赤十字의 또 다시 會談은 北의 離散가족의 夢을 夢에서 깨뜨리고 있다. 東·西獨의 高位는 北의 離散가족의 夢을 夢에서 깨뜨리고 있다. 北의 離散가족의 夢은 北의 離散가족의 夢을 夢에서 깨뜨리고 있다. 北의 離散가족의 夢은 北의 離散가족의 夢을 夢에서 깨뜨리고 있다.

北의 離散가족의 夢은 北의 離散가족의 夢을 夢에서 깨뜨리고 있다. 北의 離散가족의 夢은 北의 離散가족의 夢을 夢에서 깨뜨리고 있다. 北의 離散가족의 夢은 北의 離散가족의 夢을 夢에서 깨뜨리고 있다.

北의 離散가족의 夢은 北의 離散가족의 夢을 夢에서 깨뜨리고 있다. 北의 離散가족의 夢은 北의 離散가족의 夢을 夢에서 깨뜨리고 있다. 北의 離散가족의 夢은 北의 離散가족의 夢을 夢에서 깨뜨리고 있다.

北의 離散가족의 夢은 北의 離散가족의 夢을 夢에서 깨뜨리고 있다. 北의 離散가족의 夢은 北의 離散가족의 夢을 夢에서 깨뜨리고 있다. 北의 離散가족의 夢은 北의 離散가족의 夢을 夢에서 깨뜨리고 있다.

北韓이 보는 '南北회담'

血肉을 만나보려는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이 또다시 해빙기에 쉼을 한스럽게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시대 가장 불행스러운 겨레의 아픔을 새삼 되짚지 않을수 없다. 지난 9월 27일부터 남북적 실무대표들의 접촉을 통하여 협의가 시작된 고향방문단및 예술단의 상호교환은 때마침 동구의 자유화분위기와 겹쳐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는듯했으나 북측이 혁명가국의 공연고집을 꺾지않음으로써 이산가족들의 연내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것이다.

회담의 무산은보면서 우리가 느끼는것은 베를린장벽의 붕괴등 동구의 자유화가 오히려 북측에 체제수호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 고향방문단교환등 일련의 개방조치를 심히 두려워하게 된것이 아닌가하는점이다.

타결일보전에 고향방문단의 상호교환을 무산시킨 북측의 자세는 고위당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등 일련의 남북접촉및 대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남북적 접촉과 함께 비교적 순항하던 남북단일팀 구성협상도 단가, 단기, 호칭에 합의하고서도 전혀 이견의 대상이 될수 없는 선수선발전의 공개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어 벽에 부딪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상봉이야말로 여러형태의 남북대화중 가장 먼저 타결되어야 할 부분이고 무한히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다. 굳이 東西獨의 예를 들지않더라도 교류가 갖는 의미는 입만 열면 풍요를 부르짖는 북한스트가 잘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간 남북대화의 간헐적 중

단과 재개를 수없이 경험해 오면서 그때마다 배경이 될만한 북한의 동기를 짐작하고 있는 바다. 이번에 무산된 고향방문단교환회담도 문익환·서경원의원의 밀입북등으로 비롯된 거센 공안정국의 소용돌이 끝에 회담이 성사됐던 일을 기억하고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안타깝게 생각하는것은 이런 북한의 의도가 그들이 뜻한대로 역할하지 못함이 분명한데도 여전히 북한이 그런 전략에 얽매어 있는듯이 보이는 점이다. 회담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제시해 온 조건들이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은 하루속히 이런 迷妄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혁명사상을 남한에 전파해보거나 남한내부의 교란의 동기로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릴때도됐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커다란 변화속에서 한반도가 낙오자가 되지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지금의 긴장상태를 해소해야하고, 그러기위해서도 남북대화는 진솔히 이끌어 가야한다.

1천만이산가족의 한이 맺힌 고향방문단의 교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막힘이나 골림이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하겠기에 비록 연내실현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측은 협상의 계속에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고 북측으로 하여금 협상계속을 용하도록 노력해야만 할것이다.

혁명가국의 공연이 걸림돌로 작용한것과 관련하여 고향방문단의 교환협상과 예술단의 교환협상을 분리하는것도 재고해 볼만하다.

고향길 가로막은 「꽃파는 처녀」

北韓은 오늘의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변화와 개방을 시도해야 한다. 그런데 역시 그들에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南北이산가족 고향방문단및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은 결국 北韓쪽의 완강한 고집과 억지로 무산되고 말았다.

北韓은 板門店에서 南北赤 실무접촉이 진행되는 바로 그시간에 그들 로동신문을 통해 남북간의 각종 대화의 공전하는 책임을 남쪽에 떠넘겼다. 역시 예상된 일이었다. 그들이 아예 처음부터 연내에 이일을 성사시킬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인 것이다.

국가건 사회나 개인이건 어려운 문제들은 많다. 그것을 한꺼번에 뜻대로 풀어 나갈 수는 없다. 쉬운것부터 차례로 해나가게 順理이다. 南北문제 또한 그러하다. 이산가족 고향방문 사업을 추진하게 한 赤十字 인도주의란 무엇인가. 인간 본연의 평화적 속성과 비폭력에 입각해서 체제와 이념을 넘어서고 인간본래의 歸屬감정과 人權에 접근해 보자는 숭고한 이념이다. 北韓은 그것을 무참하게 외면했다.

이제 꽃파는 봄에나 이뤄질까하며 실망에 젖은 이산가족들의 아쉬운 눈초리가 몸에 닿는 듯하다. 내년 봄쯤 北韓당국은 남북고향길 가로막은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다시 들고 나올지 모른다. 그들은 그때 가서도 막무가내 이런 억지와 고집을 부릴지 모른다. 즉 「가극 내용중 약국주인이 꽃파는 처녀에게 약을 지어주는 것은 적십자 구제사업이다」 「가극을 보면 누구나 눈물을 흘릴 것이므로 적십자 인도주의정신에 맞는다」는 그야말로 우스개같은 주장들 말

이다. 그들이 歪曲하고 오해한 人道主義와 이른바 「꽃파는 처녀」나 「피바다」같은 「혁명예술」에 허망할마져 느끼게 된다.

적십자 인도주의란 약을 지어주거나 눈물을 짜내게하는 表皮의인 감정이 아니다.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고 자비와 평화속에 인권이 보장되는 영역에서 더불어 함께 살자는 至高의 理想이 적십자 정신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 교유의 체제와 이념을 고수하거나 논쟁이 개재될 수 있는 다른 여러 대화채널에 우선해서 기필코 성사시키려고 온갖 양보와 인내를 다해온 것이다.

올해의 남북대화도 결국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게 됐다. 이제 곧 90년대이다. 구태여 구분하자면 우리의 남북대화도 70년대의 제 1기와 80년대의 제 2기, 그리고 90년대의 제 3기로 접어든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의 대화는 70년대의 그것에 비해 비교적 유연했고 부분적인 성과도 없지 않았다. 우리는 90년대의 남북 대화와 교류가 전례에 비추어 보다 발전적이고 성과적이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이번 대화의 성과와는 별도로 우리는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성사시키려는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平壤측이 언젠가는 오늘의 세계적인 개방과 개혁의 바람을 받아들여 폐쇄의 벽을 열고 나서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들이 자랑하는 集體예술인 혁명의 「꽃파는 처녀」가 다시는 이산가족의 고향찾는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되리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두고자 한다.



27일 板門店 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열린 南北적십자 제 7차 실무대표접촉이 끝난뒤 우리측 宋榮大수석대표가 회담결과배경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板門店=金明換기자>

27일 板門店 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열린 南北적십자 제 7차 실무대표접촉이 끝나고 남측 대표가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예상된 판개기

南北대화여포면거름

정경애기 사수이다.

「북측의 불기화판개기」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남측의 불기화판개기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남측의 불기화판개기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또 이 말 접속에서는 북측이 고... 또 이 말 접속에서는 북측이 고... 또 이 말 접속에서는 북측이 고...

故郷방문단交換 실패의 저변

北측 「革命歌劇」 공연 생떼... 결렬책임 떠넘겨 開放化압력 물리칠 妙案 못 찾자 "끝기작전"

남측의 답답은 正常가동 未知數

인민평화회담을 미화시킴으로써 판개기... 인민평화회담을 미화시킴으로써 판개기... 인민평화회담을 미화시킴으로써 판개기...

분간 可視의 성과가 나타나기... 분간 可視의 성과가 나타나기... 분간 可視의 성과가 나타나기...

東亞時論



한국의 정치개혁은 시급하다. 정치 개혁은 경제개혁을 뒷받침하는 토대이다. 정치개혁이 없으면 경제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정호준



한국의 정치개혁은 시급하다. 정치 개혁은 경제개혁을 뒷받침하는 토대이다. 정치개혁이 없으면 경제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한국의 정치개혁은 시급하다. 정치 개혁은 경제개혁을 뒷받침하는 토대이다. 정치개혁이 없으면 경제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한국의 정치개혁은 시급하다. 정치 개혁은 경제개혁을 뒷받침하는 토대이다. 정치개혁이 없으면 경제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한국의 정치개혁은 시급하다. 정치 개혁은 경제개혁을 뒷받침하는 토대이다. 정치개혁이 없으면 경제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한국의 정치개혁은 시급하다. 정치 개혁은 경제개혁을 뒷받침하는 토대이다. 정치개혁이 없으면 경제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한국의 정치개혁은 시급하다. 정치 개혁은 경제개혁을 뒷받침하는 토대이다. 정치개혁이 없으면 경제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한국의 정치개혁은 시급하다. 정치 개혁은 경제개혁을 뒷받침하는 토대이다. 정치개혁이 없으면 경제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정호준의 가을잡담

정호준의 가을잡담.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가을은 희망의 계절이다.

정호준의 가을잡담.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가을은 희망의 계절이다.

정호준의 가을잡담.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가을은 희망의 계절이다.

정호준의 가을잡담.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가을은 희망의 계절이다.

정호준의 가을잡담.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가을은 희망의 계절이다.

정호준의 가을잡담.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가을은 희망의 계절이다.

太平路



金 德 亨

김형근의 딸과 딸의 딸

평소 김형근은 딸과 딸의 딸을 '김형근의 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나타내곤 했다. 딸 김형숙은 김형근의 딸이므로 '김형근의 딸'이 되고, 김형숙의 딸 김형진도 김형근의 딸이므로 '김형근의 딸'이 된다.

김형근은 딸과 딸의 딸을 '김형근의 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나타내곤 했다. 딸 김형숙은 김형근의 딸이므로 '김형근의 딸'이 되고, 김형숙의 딸 김형진도 김형근의 딸이므로 '김형근의 딸'이 된다.

김형근은 딸과 딸의 딸을 '김형근의 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나타내곤 했다. 딸 김형숙은 김형근의 딸이므로 '김형근의 딸'이 되고, 김형숙의 딸 김형진도 김형근의 딸이므로 '김형근의 딸'이 된다.

김형근은 딸과 딸의 딸을 '김형근의 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나타내곤 했다. 딸 김형숙은 김형근의 딸이므로 '김형근의 딸'이 되고, 김형숙의 딸 김형진도 김형근의 딸이므로 '김형근의 딸'이 된다.

김형근은 딸과 딸의 딸을 '김형근의 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나타내곤 했다. 딸 김형숙은 김형근의 딸이므로 '김형근의 딸'이 되고, 김형숙의 딸 김형진도 김형근의 딸이므로 '김형근의 딸'이 된다.

김형근은 딸과 딸의 딸을 '김형근의 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나타내곤 했다. 딸 김형숙은 김형근의 딸이므로 '김형근의 딸'이 되고, 김형숙의 딸 김형진도 김형근의 딸이므로 '김형근의 딸'이 된다.

김형근은 딸과 딸의 딸을 '김형근의 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나타내곤 했다. 딸 김형숙은 김형근의 딸이므로 '김형근의 딸'이 되고, 김형숙의 딸 김형진도 김형근의 딸이므로 '김형근의 딸'이 된다.

김형근은 딸과 딸의 딸을 '김형근의 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나타내곤 했다. 딸 김형숙은 김형근의 딸이므로 '김형근의 딸'이 되고, 김형숙의 딸 김형진도 김형근의 딸이므로 '김형근의 딸'이 된다.

「꽃파는 처녀」의 연지

연지바탕의 한 장면은 장영남.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장영남의 연기력은 「꽃파는 처녀」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주인공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꽃파는 처녀」의 성공은 장영남의 연기력에 기인한다. 그녀의 연기는 영화의 분위기를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

장영남은 「꽃파는 처녀」를 통해 연기계의 신예로 떠올랐다. 그녀의 연기는 당시 영화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꽃파는 처녀」의 성공은 장영남의 연기력에 기인한다. 그녀의 연기는 영화의 분위기를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

장영남은 「꽃파는 처녀」를 통해 연기계의 신예로 떠올랐다. 그녀의 연기는 당시 영화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개방기계 망의 수도. 이는 당시 기술 발전의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개방기계 망의 수도. 이는 당시 기술 발전의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조선일보 (1989. 12. 3)

南北赤 내일 실무 접촉

北측 어제 돌연 電話로 제의

南北赤접촉자 실무대표 접촉
北측대표단장 박영수(北측) 2일
우리측 宋榮大수석대표에게
전화통사투음보내고 상합단
장 개별접촉을 4일 오전 10
시에 개시하자고 제의했다.

北측대표단장 박영수가 이
전화통사투음보내고 상합단
제1차 직선전화회담의 실현
되지 못한 채인 이 韓國측에 있

다그 주창하면서 고함발탄단
교향파 11차 직선전화회담
재개문제를 협의하라는 상
합단장 박영수에게 4일 비
공적으로 개시할 것을 제안한 것
으로 주창박영수의 이 제의
였다.

한편 12월 8일과 12월 15일
로 예정되었던 제1차 직선전화
회담은 12월 15일 12시 30분
부터 13시 30분까지 1시간
제1차 직선전화회담 개최를
내부선언과

제도 지난달 27일 열린 제7
차 실무대표접촉에서 北측
이 「피파다」를 제안한 뒤 「
내부선언과

조선일보 (1989. 12. 8)

南北 고향방문단 결렬

蘇서 실망감 표명

【서울 11일 전 蘇聯은 6일
남북한의 제1차 고향방문
단 및 고향방문단의 결렬을
내내론(北측)이 열거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
시하고 이의 결렬이 서로의
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강조
했다. 이 날 모스크바 방송은

韓半島문제 전문가인 이그르
레비체프의 논평을 통해 남
북한은 1천만 인산이 공
관들의 사투와 북의 접촉
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공
적인 불신과 기대해왔다
세월이 흘러도 문제해결에서
남의 의지를 전전할 이룩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이 수를
을 표시했다.

남북赤 본회담
15일 개최 촉구
北측에 전화통사
宋榮大 남북직접사 실무대
표 접촉 우리측 수석대표인 7
일 남측 수석대표 박영수
에게 전화통사투음보내고 제
2차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
을 실현하지 못한 데 대해 유
한 뜻을 밝힌 이 수의 당초
합의안대로 제1차 남북직접
자문회담을 오는 12월의 개
하지고 북측의 촉구했다.

宋수석대표는 이 전화통사의
서 제1차 남북직접사회담
과 제2차 남북직접사회담
제시키고자한 시의 맞장
을 올렸다고 밝힌 한편 이 수
화과도 이 수나 드르 귀속은

표 접촉 우리측 수석대표인 7
일 남측 수석대표 박영수
에게 전화통사투음보내고 제
2차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
을 실현하지 못한 데 대해 유
한 뜻을 밝힌 이 수의 당초
합의안대로 제1차 남북직접
자문회담을 오는 12월의 개
하지고 북측의 촉구했다.

제1차 남북직접사회담의 초
점축으로서 응원의 화인했다
해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그런 북측은 이 고함발탄단
교향파 「피파다」를 제1차
회담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고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수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수
다 고 말했다.

경향신문 (1989. 12. 4)

故鄉방문원칙만 재확인

南北赤 접촉 계속키로 합의

南北赤접촉자 실무대표 접촉
北측대표단장 박영수(北측) 2일
우리측 宋榮大수석대표에게
전화통사투음보내고 상합단
장 개별접촉을 4일 오전 10
시에 개시하자고 제의했다.

北측대표단장 박영수가 이
전화통사투음보내고 상합단
제1차 직선전화회담의 실현
되지 못한 채인 이 韓國측에 있

우린 북측의 宋榮大수석대표
가 이 전화통사투음보내고
의 영수에게 4일 비공적으로
개시할 것을 제안한 것
으로 주창박영수의 이 제의
였다.

한편 12월 8일과 12월 15일
로 예정되었던 제1차 직선전화
회담은 12월 15일 12시 30분
부터 13시 30분까지 1시간
제1차 직선전화회담 개최를
내부선언과

우리는 이 전화통사투음보내고
의 영수에게 4일 비공적으로
개시할 것을 제안한 것
으로 주창박영수의 이 제의
였다.

한편 12월 8일과 12월 15일
로 예정되었던 제1차 직선전화
회담은 12월 15일 12시 30분
부터 13시 30분까지 1시간
제1차 직선전화회담 개최를
내부선언과

우리는 이 전화통사투음보내고
의 영수에게 4일 비공적으로
개시할 것을 제안한 것
으로 주창박영수의 이 제의
였다.

한편 12월 8일과 12월 15일
로 예정되었던 제1차 직선전화
회담은 12월 15일 12시 30분
부터 13시 30분까지 1시간
제1차 직선전화회담 개최를
내부선언과

II. 南北高位級會談 豫備會談 關聯記事



「南北통행·통신협정」제의 「統一협상회의」수락 촉구

韓國

北韓



12일 오전 板門店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南北고위당국자 회담을 위한 제 3차 예비회담에 앞서 양측대표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이 韓國측대표)

本會談 명칭·의제엔 異見

南北 고위당국자 예비회담

【板門店=송우기기자】南北 고위당국자 예비회담은 12일 오전 10시 板門店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양측 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회담을 시작했다. 양측은 회담의 명칭과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측은 '南北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안했고, 북한측은 '南北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안했다. 양측은 회담의 명칭과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측은 '南北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안했고, 북한측은 '南北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안했다.

양측은 회담의 명칭과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측은 '南北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안했고, 북한측은 '南北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안했다. 양측은 회담의 명칭과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측은 '南北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안했고, 북한측은 '南北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안했다.

양측은 회담의 명칭과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측은 '南北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안했고, 북한측은 '南北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안했다. 양측은 회담의 명칭과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측은 '南北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안했고, 북한측은 '南北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안했다.

양측은 회담의 명칭과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측은 '南北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안했고, 북한측은 '南北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안했다. 양측은 회담의 명칭과 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측은 '南北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안했고, 북한측은 '南北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안했다.

방북인사 구속싸고 논란

'총리회담' 예비회담 통행협정·통일회의 각각 제시

내달 15일 다시 열기로

【판문점=정동채 기자】 남북 '총리회담'을 위한 제3차 예비회담이 지난 3월 중단된 뒤 7개월만인 12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한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렸으나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씨 등의 구속문제를 놓고 양측이 논란을 벌여 실질토의는 하지도 못한 채 끝났다.

양측은 제4차 예비회담을 11월 15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남한측 송한호 수석대표는 기초연설을 통해 "남북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인적 왕래가 있었지만 아직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서 '남북통행·통신'에 관한 일반합의서를 조속히 마련하자고 제의했다.

송 대표는 1, 2차 회담에서 남북간 견해차를 보여 온 본회담의 명칭·의제·개최장소·대표단 구성 등에 대한 종전의 남한측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한측의 문 목사·임씨 석방요구에 대해 "우리의 국내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해 석



송한호 남한측 수석대표(오른쪽)와 백남준 북한측 대표단장이 12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임희순 기자>

방을 요구하는 것은 내정간섭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북한측 백남준 대표단장은 문 목사와 임수경씨 구속에 언급, "이 문제는 전반적인 남북대화 앞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는 불미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처형은 현시점에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대결을 격화시키며 쌍방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들의 석방 및 보안법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백 단장은 또 본회담의 명칭·의제·대표단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울러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안을 수락토록 요구했다.

국민일보 (1989. 10. 13, 사설)

南北對話, 서로 마음을 열어야

남북對話가 10월로 접어들면서 부쩍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것 같다. 언제까지 걸들기만 할 것인가. 지난 12일 열린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제3차 예비회담 역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내달 15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날 회담은 예상했던대로 북측이 팀스피리트훈련중지, 文益煥목사와 林秀卿양 석방, 국가보안법폐지 등을 들고나와 논란을 벌이는 바람에 실질토의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지난달 27일 3년10개월만에 열려 이미 두번째 접촉을 가진 赤十字실무회담이 그랬듯이 이번 회담도 쌍방이 자기주장만을 늘어놓는 바람에 하찮은 교투리를 잡고 말씨름만 거듭하다가 겨우 다음회의 날짜를 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같은 저간의 대화분위기로 보아 오는 16일의 赤十字 3차예비접촉, 20일의 체육회담, 25일의 국회회담등도 실속없이 걸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만나기만하면 뭔가가 될듯될듯 하다가 터지곤하여 허송해은 세월이 정말 안타깝다. 그동안 그같은 대화와 제의를 통해 결실을 본 것이 고작 85년의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환」 정도라면 이는 統一과 대화에 접근하는 兩側의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북측은 대화를 하자면서도 마음을 열기는 커녕 초보적인 「信義·誠實」조차 지키지 않는 무례를 다반사로 범하고 있다. 첫째로 북측은 요즘도 대화때마다 팀스피리트등 트집거리를 먼저 들고나오는 점이 마음에 크게 걸린다. 더군다나 赤十字 1차예비접촉 이틀날인 지난달 28일에는 엉뚱하게도 「민족통일협상회의」를 변칙 제의하는등 판전을 피우지 않았는가. 둘째로는 북측이 그간 「密入北」공작은 즐겨

하고 이보다 더 쉬운 민간차원의 交流를 외면하는 속셈을 우리는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최근 서울서 열린 세계聖體대회에 가톨릭측이 북한신자들이 초청했으나 북측은 이렇다할 이유없이 외면한 사실을 우리는 예사롭게 넘길 수가 없는 것이다.

14일부터 열리는 평화기원 漢江연등제행사에도 북한승려들이 초청돼 있지만 이들이 참가할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지난 7일 북측이 평양방송을 통해 우리측 초청에는 언급않은채 「불교도대표회담을 빠른시일안에 板門店에서 갖자」고 한 것도 정부당국과 조계종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의미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對話·交流의 길이 쉽게 트일 것 같지 않다. 하지만 美·蘇간의 화해무드나 최근의 東歐圈 대변혁등으로 미뤄 남북대화의 여건은 어느때보다 성숙돼 있다고 보며 여기에 우리는 적잖이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실제로 최근의 세계조류는 共產主義가 붕괴돼가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어서 北韓만이 계속 「폐쇄의 빙장」을 걸고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대화와 교류의 好機는 지금이다. 정념 북측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측만이라도 종래의 姑息의타성에서 벗어나 마음을 터놓고 대화에 임했다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이다. 이제야말로 南北韓이 「보다 진실되게」 統一을 생각하는 쪽으로 變身해야 한다. 더이상 「남북대화」가 겨레에게 실망을 안겨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헛가리가 공산주의를 저버리는 변신을 하듯, 우리도 國力を 배경으로 마음을 한번 터보자. 이것이 北으로 하여금 바깥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會談명칭의 제異見

南北남북자 예민질책 내달 20일 5차회담

【板門店=林東明기자】南北 고위급회담은 15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이 회담은 총괄외교회의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이 회담은 총괄외교회의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제5차 회담은 20일 5차회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회담은 총괄외교회의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이 회담은 총괄외교회의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제5차 회담은 20일 5차회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회담은 총괄외교회의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이 회담은 총괄외교회의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제5차 회담은 20일 5차회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회담은 총괄외교회의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이 회담은 총괄외교회의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명칭·議題 등 合意 못 봐

南北남북자회담 4차전북 우리側 北側案 대쪽수용

【板門店=鄭光植기자】南北 고위급회담은 15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이 회담은 총괄외교회의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제5차 회담은 20일 5차회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회담은 총괄외교회의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이 회담은 총괄외교회의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제5차 회담은 20일 5차회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회담은 총괄외교회의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이 회담은 총괄외교회의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중앙일보 (1989. 12. 20)

南北高位級 회담 합의

北 수점제의 우리측서 제의한 議題도 수용

판문점 예비회담 5차 진흥

【板門店=聯合기자】南北의 기묘한정황을 재확인한 판문점 예비회담은 20일 오전 10시 워싱턴에서 회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담은 4차 회담에서 합의된 5차 회담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회담은 4차 회담에서 합의된 5차 회담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회담은 4차 회담에서 합의된 5차 회담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회담은 4차 회담에서 합의된 5차 회담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회담은 4차 회담에서 합의된 5차 회담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회담은 4차 회담에서 합의된 5차 회담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선일보 (1989. 12. 21)

남북高位級 회담 합의

5차 예비회담 總理·軍참모총장등 代表 7명

「다각교류와 政治-軍事대결 해소」 議題 접근

【板門店=聯合기자】南北을 각자 주장 중점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토의에서 北側이 北南고위급회담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南側은 수점제의 이점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담은 4차 회담에서 합의된 5차 회담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회담은 4차 회담에서 합의된 5차 회담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장차 판문점 회담도 포함 1명 포함한 軍대표 1~2명 등 모두 7명 정도하기로 합의했다. 대표단들 지휘할 수 있는 33명 정도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北側은 의제문제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南側은 수점제의 이점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담은 4차 회담에서 합의된 5차 회담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20일 오전 판문점 우리측서 회담의정에서 南北고위급 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열리고 있는 동안, 평양에서 蘇聯대사관 직원을 평화회담을 위한 우리측 대표자와 담담하고 있다. <사진=閔庚植기자>

20일 열린 제5차 남북회담준비위원회(남북 회담준비위)가 21일 서울에서 회담준비위 구성을 위한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는 남측의 김기현 회담준비위 부위원장, 북측의 김기현 회담준비위 부위원장, 남측의 김기현 회담준비위 부위원장, 북측의 김기현 회담준비위 부위원장이 참가했다.

伏線 깔린 「北側 양보」

南北회담자 예비회담 양보



20일 열린 제5차 남북회담준비위원회(남북 회담준비위)가 21일 서울에서 회담준비위 구성을 위한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는 남측의 김기현 회담준비위 부위원장, 북측의 김기현 회담준비위 부위원장, 남측의 김기현 회담준비위 부위원장, 북측의 김기현 회담준비위 부위원장이 참가했다.

남북회담의 예비회담이 21일 서울에서 열렸다. 남측의 김기현 회담준비위 부위원장과 북측의 김기현 회담준비위 부위원장이 참가했다. 회담은 남북회담준비위 구성을 위한 예비회담으로, 양측은 회담에서 남북회담준비위 구성에 합의했다.

남북회담의 예비회담이 21일 서울에서 열렸다. 남측의 김기현 회담준비위 부위원장과 북측의 김기현 회담준비위 부위원장이 참가했다. 회담은 남북회담준비위 구성을 위한 예비회담으로, 양측은 회담에서 남북회담준비위 구성에 합의했다.

팀스피리트 沮止포석

蘇등 개방요구 따른 變化가능성도

북한은 남북회담을 중단하며 회담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회담의 예비회담이 21일 서울에서 열렸다. 남측의 김기현 회담준비위 부위원장과 북측의 김기현 회담준비위 부위원장이 참가했다. 회담은 남북회담준비위 구성을 위한 예비회담으로, 양측은 회담에서 남북회담준비위 구성에 합의했다.

社說

南北韓 通行길부터 트자

1990년은 南北 대화와 관련하여 기대와 경계를 함께 갖게하는 해이다. 오늘날 유럽 社會主義圈을 휩쓸고있는 民主化의 물결속에서 北韓이 국제적 고립을 모면하기 위해 開放化로 내딛는다면 南北 대화는 희망적인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외부의 개방화압력으로부터 그들 體制를 지키려고 閉鎖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면 南北관계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東유럽 사태로 충격을 받은 北韓은 급한대로 내부적인 思想통제를 강화하고 있다지만, 歷史의 도도한 흐름에 마냥 버티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政府는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속에서 南北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한다. 즉 南北 주민들이 板門店을 통해 서로 상대지역을 방문, 체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南北通行에 관한 협정」을 내년초 北韓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72년 東西獨간엔 체결됐던 통행협정을 모델로 한 이 구상은 무엇보다도 南北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와 협조의 기초를 마련하여, 서로의 不信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東西獨의 경우 그들 최초의 교류는 通行협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후 基本조약을 거쳐 73년 유엔에 동시가입하는 순서를 밟았다.

南北韓간에 진행중인 고위당국자회담 예비접촉은 지난 20일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會談명칭은 「南北고위급회담」으로 하고, 대표단은 總理를 단장으로 하여 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議題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南北의 인식에는 차이가 었보였다. 결국 쌍방은 다같이 南北간의 다각적 교류-협력과 정치

-군사문제를 아울러 논의하자는데까지 접근은 했으나, 우리측이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토의하자고 한데 반해 北韓은 끝내 정치-군사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우리의 의도는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루면서 서로의 불신과 오해가 해소돼야 정치-군사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北韓은 정치-군사적 대결이 계속되는 한 交流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들 주장은 駐韓美軍철수를 여타 문제 해결에 앞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交流-協力을 통해 긴장을 풀고 서로가 不可侵을 선언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상대방에 일방적으로 軍縮을 요구하는 것은 대화의 참된 자세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分斷국가의 재통일을 위해 쌍방간의 人的교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東西獨의 경우에서 배워야 한다. 72년 東西基本條約을 체결함에 있어서 西獨측은 「하나의 獨逸안의 두 國家」라는 구도 아래 비록 獨逸안에 당분간 두개의 국가가 존재하게 됐지만 언젠가는 民族的재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句節을 條約前文에 포함시키자고 했다. 그러나 蘇聯의 압력을 받은 東獨은 그와같은 前文의 삽입을 끝내 반대하고 東西獨은 영원히 두개의 국가로 갈려야한다고 고집하였다. 그 후 東西獨간에 주민들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마침내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兩獨주민들이 서로 한데 어울리게 되자 이제 再統一은 獨逸민족의 불가피한 과제로 그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된 것이다.

北韓은 東獨의 변화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것은 歷史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떠한 鐵拳으로도 막을 수는 없다.

정부, 남북고위급회담 적극추진 배경

90년에 들어서면서 남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게 부풀고 정부의 각 부처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남북한 당국이 머리를 맞댈 현안은 그리 많지가 않다.

이들때면 정부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각 부문별로 획기적인 대북제의를 쏟아내다해도 북한이 선택할 회담과 의제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정부는 남북한이 교류·협력과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로 대략적인 의제를 정한 남북 고위급회담(남북 총리회담)을 성사시키고 이 회담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것만이 가장 구체적인 남북한 관계개선 방안이라 꼽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대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 시급히 추진하라는 지난해 12월5일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책수립에 분주했으나 뾰족한 묘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소 남북한 관계개선에는 비밀접촉이든 공개접촉이든 대화와 회담을 꾸준히 이어가는 방법 이외에는 백약이 무효라고 주장해온 통일원 당국은 국내외 학자·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위 군비통제문제를 포함한 남북한 관계개선책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남북한 군비통제 방안에 관해서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국제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등에서 초안

운 이슈로 등장할 것이므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선제방안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즉 남북한 현상에서 남쪽이 먼저 변화함으로써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는 '동반변화 개념'을 도입



남북 총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의 북쪽 대표들이 지난 12월 20일 남·북을 가르는 가장 낮은 '판문점 장벽'을 넘어 회담장인 남쪽 평화의 집으로 오고 있다. (임희순 기자)

통령과 김일성 주석을 만남으로써 내·외에 남북한간 긴장상태의 완화라는 이미지 제고효과 등으로 대별된다.

노태우 대통령은 88년 2월 취임 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지름길은 김일성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라는 정부정책의 계속성에 따라 기회있을 때마다 정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기대

당국간 대화 채널 유지가 일차 목표 북한주장 부분 수용...기선제압 노력

을 마련, 이를 토대로 청와대 통일원 국방부 외무부 안기부 등에서 연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또 통행·통상·통신 협정 체결 등 교류·협력에 관한 일반적인 협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 스스로도 조만간에 성사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다. 북한이 교류·협력에 관한 일반 협정 문제들을 거들떠보지 않으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군사정치문제와 교류·협력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남북한 관계개선의 지름길로 삼아 우선 남북한 당국간 대화채널을 유지시킨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통일원과 외무부의 고위관계자들은 남북 고위급회담은 이차피 정치군사회담 성격으로 자리잡힐 것이라는 데 대해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관계자들은 북한이 정치군사부문에서 성과를 올린 만큼만 인적·물적교류의 길을 틀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만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이차피 정치군사문제가 뜨거

한 것이다. 따라서 선진적인 요소가 강한 일방적인 각종 대북제·제안은 80년대로 마감하는 한편 앞으로는 북한을 곤란하게 만드는 제의는 지양하기로 한 것이다.

이홍구 통일원장관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북한에 대해 경제원조·지원을 해준다거나 공개적으로 개혁·개방을 유도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3월중에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남북 고위급회담은 정치군사문제와 함께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금강산개발, 농수산물·광물의 물물교환 등이 먼저 거론되고 정작 통행·통상협정 등은 남쪽이 북한의 의중을 떠보는 차원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노리는 효과는 정치군사문제 및 교류·협력문제를 논의하는 회담 본질문제와 함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불가침선언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의 시발 △남북한 총리가 각 서울과 평양에서 노태우 대

상회담을 제의해 왔으나 북한에 의해 번번이 기절당해 왔으며 따라서 올 3월 남북 총리회담이 개최되면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불가침선언문제를 군사정치문제 논의의 서두에서 제기하려는 의도는 남북한이 70년대 이후 공히 불가침 공동선언을 제의해 온 바 있다는 역사성에 비추어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의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물론 총리급회담에서 불가침공동선언이 타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해도 군사 대치 상황의 질적 전환을 위해서는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군사고위당국자간 직통전화 개설 등 신뢰구축 방안 등과 함께 적극 거론해 나갈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남북 고위급회담이 남북한관계 개선의 출발이 된다고 생각, 의제토의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한편 북한의 주장도 상당부분 수용해 나갈다는 전략으로 준비에 임하고 있다. (정동채 기자)

南北고위급회담 개최 불투명

팀스피리트 논란... 재첩총합의 못해

어제 예비접촉

【板門店=樵業默기자】南北고위급회담을 위한 제6차 예비회담이 31일 板門店 북측지역 「봉일각」에서 열렸으나 북측이 회담관련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90년 팀스피리트 후연중지문제를 긴담의 재로 채택할 것을 주장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3월 7일 板門店 우리측 지역 「平和의 집」에서 제7차 회담을 갖기로 했으나 북측은 회담후 가진 기자회견

에서 90년 팀스피리트 후연중지문제를 대해 우리측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줄 것을 전제로 7차 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다음번 회담

에서 90년 팀스피리트 후연중지문제를 대해 우리측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줄 것을 전제로 7차 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다음번 회담

**本會談의제 南·北案 수용 등
우리側 20개 합의서案제의**

남북고위급 6차 예비회담

【板門店=樵業默기자】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제6차 예비회담이 31일 板門店 북측지역 「봉일각」에서 열렸으나 북측이 회담관련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90년 팀스피리트 후연중지문제를 긴담의 재로 채택할 것을 주장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3월 7일 板門店 우리측 지역 「平和의 집」에서 제7차 회담을 갖기로 했으나 북측은 회담후 가진 기자회견

이 합의서案의 회담장표 지 및 시설에 대해 회담장에서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았으며 초청측은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의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삼연방 회담을 위해 삼대국을 방문하는 인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등 20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2.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3.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4.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5.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6.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7.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8.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9.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10.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11.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12.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13.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14.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15.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16.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17.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18.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19.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20. 양측은 회담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서도 故意지연술

북서도 故意지연술
북한이 1步前 "주춤"

북한이 1步前 "주춤" 하는 것은...
북한이 1步前 "주춤" 하는 것은...
북한이 1步前 "주춤" 하는 것은...

「북한이 1步前」하며

북한이 1步前 "주춤" 하는 것은...
북한이 1步前 "주춤" 하는 것은...
북한이 1步前 "주춤" 하는 것은...

「장벽」등 議題外 시비로 회담 방해
상반기중 對話진전기대 어려울듯

북한이 1步前 "주춤" 하는 것은...
북한이 1步前 "주춤" 하는 것은...
북한이 1步前 "주춤" 하는 것은...

<북한이 1步前>

Ⅲ. 南北體育會談 關聯記事

“南北 체육회담 내달 20일 열자”

張대표 對北제의 했다.

張代表團長은 12일 북한측 張代表團長과 平壤에서 南北體育會談을 10월 20일 平壤에서 開演할 計劃을 示했다. 張代表團長은 平壤에서 南北體育會談을 10월 20일 平壤에서 開演할 計劃을 示했다. 張代表團長은 平壤에서 南北體育會談을 10월 20일 平壤에서 開演할 計劃을 示했다.

“북청 등 청예대립...정방물투명

來20일 3차 남북체육회담 재개

북한이 지난 9월 板門店 90평방미터의 사인어인 단을 10월 20일 3차 남북체육회담을 開演할 計劃을 示했다. 張代表團長은 平壤에서 南北體育會談을 10월 20일 平壤에서 開演할 計劃을 示했다.

20일 南北체육회담

우리側제의 北측서 동의 亞洲경기 單一팀으로 北의

제3차 남북체육회담이 오는 20일 오후 10시 판문점 유리측 지점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남북체육회담 북측 대표단의 張代表團長은 16일 상하이에서 열린 남북회담 재개회담 우리측 張代表團長과 北의 代表團長은 16일 상하이에서 열린 남북회담 재개회담 우리측 張代表團長과 北의 代表團長은 16일 상하이에서 열린 남북회담 재개회담

남·북 단일팀, 北「고려선수단 異見」땀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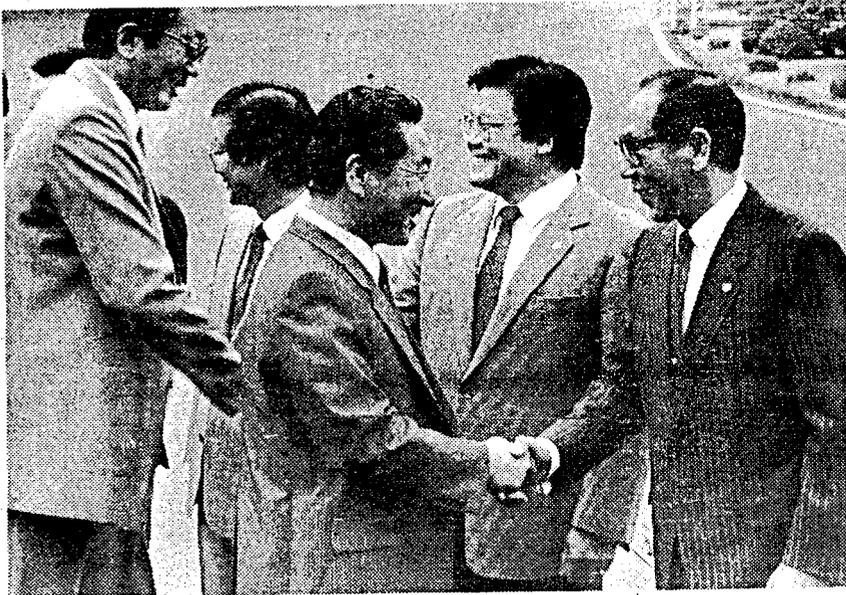
선수團旗·團歌 등은 쉽게 합의

고향방문進展등 北의 태도 변화에 기대

남북체육회담이 20일 판문점 유리측 지점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남북체육회담이 20일 판문점 유리측 지점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남북체육회담이 20일 판문점 유리측 지점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南北 단일팀 호칭 ‘한나라’로”

體育會談 우리측 修正제의 北側 ‘코리아’로 주장



대표단 악수 회담에 앞서 양측대표들이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이 우리측 대표단. (板門店=金城南기자)

團旗「하늘색 한반도지도」受容

“선발선수 강화훈련 南北번갈아”

【板門店=柳明錫기자】90년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둘러싸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3차 회담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단일팀의 호칭과 선발 선수의 강화 훈련, 그리고 단일팀의 구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측은 단일팀의 호칭을 ‘한나라’로 하고 선발 선수의 강화 훈련을 번갈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측은 단일팀의 호칭을 ‘코리아’로 하고 선발 선수의 강화 훈련을 번갈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합선수(남북)가 결정하더라도 이원수(제1회 아시안 게임)와 조지(제2회 아시안 게임)를 제외하고는 단일팀 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 양측은 단일팀의 구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측은 단일팀의 호칭을 ‘한나라’로 하고 선발 선수의 강화 훈련을 번갈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측은 단일팀의 호칭을 ‘코리아’로 하고 선발 선수의 강화 훈련을 번갈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합선수(남북)가 결정하더라도 이원수(제1회 아시안 게임)와 조지(제2회 아시안 게임)를 제외하고는 단일팀 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 양측은 단일팀의 구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측은 단일팀의 호칭을 ‘한나라’로 하고 선발 선수의 강화 훈련을 번갈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측은 단일팀의 호칭을 ‘코리아’로 하고 선발 선수의 강화 훈련을 번갈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同窓生기분으로 한팀만들자”

남씨 건강등 가벼운 화제로 10여분회담

南北체육회담 스케치
○20일 열린 제3차 남북체육회담에서 양측대표들은 오전 10시 10분 회담을 시작하고 10시 20분 회담을 종료했다. 양측은 단일팀의 호칭과 선발 선수의 강화 훈련, 그리고 단일팀의 구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측은 단일팀의 호칭을 ‘한나라’로 하고 선발 선수의 강화 훈련을 번갈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측은 단일팀의 호칭을 ‘코리아’로 하고 선발 선수의 강화 훈련을 번갈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南北 단일팀 團旗 합의

體育회담 「흰바탕 하늘색地圖」 北側案 수용

選手團 인정 南인, 한나라, 북인, 코리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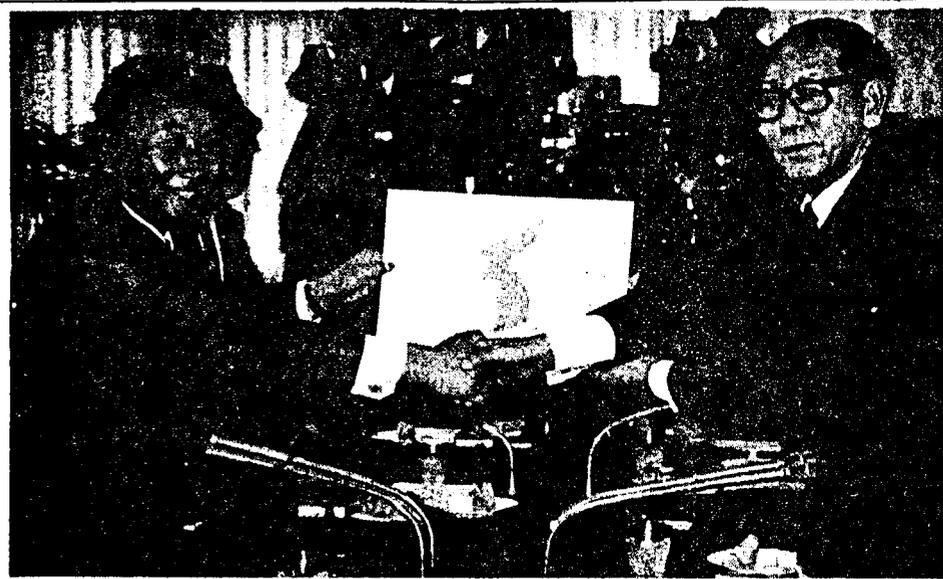
【판문점=鄭東吉기자 90】 4차회담 해차를 보았다. 4차회담은 11월16일 오전10시부터 20일까지 서울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북측유화회담의 7개월만의 재개였으나 양측이 단기 무제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에 따라 양측은 8개월을 넘겨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북측이 2차회담 때 제안한 흰색바탕의 하늘색 지도안을 4차회담 도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2면> 양측이 또 선수단 통합을 합의했다. 그러나 북측의 김현정 대변인은 "북측은 '코리아'로 단일팀을 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측은 '한나라'로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코리아'로 단일팀을 구성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남측은 '한나라'로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코리아'로 단일팀을 구성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남측은 '한나라'로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코리아'로 단일팀을 구성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세계일보 (1989. 10. 21)



南北이 맞든 '分斷없는 韓半島', 남북회담서 團旗에 합의한 후 우리측 張忠植 수석대표 (오른쪽)와 북측 김형진 단 (관문점=兪光善기자)

장이 단기모형을 맞들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남북회담은 8개월을 넘겨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북측의 김현정 대변인은 "북측은 '코리아'로 단일팀을 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측은 '한나라'로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코리아'로 단일팀을 구성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남측은 '한나라'로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코리아'로 단일팀을 구성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남측은 '한나라'로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코리아'로 단일팀을 구성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可能性보인「單」팀

—北京가방팀의「하」로 명명

社說

文藝체육사단발표회... 秀潤인「平壤」한자로... 兩側代表가 단결되고 북측의 양보로... 「KOREA」로 한자로 표기... 「하」로 명명... 「하」가 단결의 이념을 나타내며... 「하」가 단결의 이념을 나타내며... 「하」가 단결의 이념을 나타내며...

이런 점에서 북측이 KOREA로 단결된 양측의 兩側代表가 단결되고 북측의 양보로 「KOREA」로 한자로 표기... 「하」로 명명... 「하」가 단결의 이념을 나타내며... 「하」가 단결의 이념을 나타내며... 「하」가 단결의 이념을 나타내며...

한국의 열려 오고 있는... 「하」로 명명... 「하」가 단결의 이념을 나타내며... 「하」가 단결의 이념을 나타내며... 「하」가 단결의 이념을 나타내며...

南北韓단일팀, 가능성이 보인다

중단7개월만에 남북체육회담이 재개됐다. 앞으로의 회담전망 또한 비교적 밝아보인다. 20일의 北京아시안게임 南北韓단일팀구성을 위한 3차회담에서 兩側代表들이 보인 마음가짐부터가 여느때와는 다르다. 우리측 張忠植대표는 회담冒頭에 「...서로 양보할것은 양보해 회담을 꼭 성사되도록 하자」고 인사말을 했고, 北측의 김형진단장도 기초발언을 통해 「남북對決의 관념에서 벗어나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말한 점이 그러하다. 남북체육회담은 지난 3월9일과 28일의 1, 2차 회담을 통해 벌써 團歌(아리랑)와 단일팀명칭 英文표기('KOREA')에 합의한바 있으며 이번회담에서도 團旗는 흰색바탕에 하늘색半島 지도를 그려넣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단일팀명칭의 우리말표기도 우리측이 「한나라」로 할것을 내세운데 대해 北측은 「코리아」로 수정제의하여 어렵지않게 풀릴듯하다. 하지만 회담의 앞날이 그렇게 쉬운것만은 아니다. 선수선발과 선수훈련 그리고 선수단구성 문제등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요컨대 회담에 임하는 양측대표들의 자세가 문제인 것이다. 종래와같이 걸다르고 속다른 대결일변도로 임해서는 결코 될수가 없다. 단일팀구성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분단獨逸에서 선례를 찾을수 있다. 東·西獨의 경우 5년 동안 무려 2백56회의 접촉을 갖고서야 간신히 56년멜버른올림픽에 단일팀을 출전시킬수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후 64년도 교올림픽까지 단일팀을 내보내다가 까다로운 절차와 體制差에서 오는 갈등이 겹쳐져 결국 갈라서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는 東·西獨이 단일팀구성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東·西獨관계

가 크게 개선된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南北韓단일팀 시도 또한 남북赤十字 회담 못지않게 겨레의 여망이 담긴 과제여서 모든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成事가 됐으면하는 마음 간절하다. 양측이 꼭 해보자고 든다면 아 못할것도 없는 일이 아닌가. 단일팀 구성목적은 정략적인 홍보추진이나 단순한 스포츠 차원이 아니고, 갈라져 대결하고 있는 한핏줄이 한 깃발아래 출전함으로써 기대할수 있는 남북화합과 평화공존 무드 자체에 둔다면 웬만한 난제는 쉽게 극복될수 있을 것이다. 지난날 국제대회때마다 거칠게 굴던 北韓이 16일밤 싱가포르에서 열린 월드컵예선 南北韓대결에서 보여준 페어플레이 또한 원가를 시사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유추하고 싶다. 차제에 北韓은 모든 남북접촉을 책략에 이용하던 종래의 타성을 깨끗이 버릴것을 촉구한다. 81년이래의 우리측 단일팀구성제의를 줄곧 외면해오다가 84년 LA올림픽신청마감을 2개월 앞두고 단일팀 구성을 제의하는 것과 같은 상식밖의 처사는 이제 되풀이 말아야 한다. 63년이래 南北間에는 모두 스무번 가까이 체육회담이 열렸으나 한번도 이렇다할 성과를 못 거둔 사실이 안타깝다. 작년12월 北측 제의로 시작된후 이른바 「密入北」공작으로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된 체육회담도 예외의 책략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바란다. 美國과 中國간의 70년대 冷戰이 평풍외교로 화해됐듯이 우리도 단일팀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南北韓간의 막힌 숨통을 한번 뚫어보자. 문제는 남북간에 단일팀구성의 意志가 확립돼 있느냐 하는 점이 아니겠는가. 서로 마음을 비우면 못할것도 없을 것이다.

單一팀, 南北스포츠 交流부터

90년 제11회 북경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남북단일팀이 실현될 수 있을까.

일련의 밀입북사건으로 인해 3차례나 연기를 거듭하다가 중단 7개월 만에 판문점서 재개된 제3차 남북체육회담서는 흰바탕에 푸른색 한반도 지도를 넣은 단일팀의 단기도안을 합의하였다고 한다.

단기도안의 합의는 남북단일팀구성 노력의 일보전진일뿐 아니라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의 상호교환합의와 아울러 밀입북사태 이후 남북간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아시아 경기, 올림픽대회 등 국제스포츠무대에 참가하여 한민족의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체육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로 향하는 징검다리 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체육인뿐만 아니라 온 겨레가 오래전부터 열망하여 왔던 바다.

이러한 민족적 열망에 따라 남북간의 대치상태가 삼엄하기만 했던 1963년부터 남북체육회담이 그때그때 열려와 북경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열린 이번 남북체육회담이 여섯번째이지만 이제까지의 다섯차례 남북체육회담은 성과없이 결렬되어 회담초의 부풀었던 기대를 깨뜨렸었다.

단기·단가·호칭·선수선발등 단일팀 구성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이번 남북회담서는

중전의 남북체육회담과는 다르게 보다 본질문제에 접근하려는 진지함을 엿볼 수 있었다. 북한측의 삼루어인 문익환·임수경의 언급이 없었던 것도 좋은 보기의 하나다.

그러나 아직은 단일팀구성으로 향한 첫걸음에 지나지 않으므로 속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기와 단가는 합의했다고 하나 호칭, 선발기준, 선발대회 개최, 합동훈련, 임원진선임등 단일팀구성에 이르기까지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산적하여 있으며, 단일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의 분위기와도 맞물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회담시작 9개월에 단기와 단가에만 합의한 페이스로는 대회개막까지 앞으로 남은 11개월 동안 단일팀구성까지의 수많은 고비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따라서 모처럼의 진전을 보인 이번 남북체육회담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90년 제11회 북경아시아대회에만 얽매이지 말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남북스포츠의 교류와 협력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단일팀구성도 남북체육교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단일팀구성에 완전합의한 후 교류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먼저 남북체육교류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류를 통해 형성된 유대감과 분위기로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베이징 하늘에 '아리랑'이 울리게

남북이 양보하여 단일팀 꼭 만들라

남북적십자회담이 고향방문단의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교류의 숨통이 어렵게 트인 가운데 20일 열린 90년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3차 회담은 최대쟁점인 단일팀의 호칭문제는 타결하지 못했지만 '흰 바탕에 하늘빛 한반도 지도를 그린 깃발'을 단기로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회담에서 남북한은 단가는 1920년대의 '아리랑'으로 하고 선수단 구성에서는 종목별로 감독·코치를 남북 동수로 선임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한 뒤 선발전을 통해 대표를 뽑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단기에 대해 양보한 남한측이 호칭에 관해서는 한글표기 '한나라', 영문표기 'KOREA'를 제안한 데 반하여 북한측이 한글표기 '코리아', 영문표기 'KOREA'를 주장하고 나와 타결을 보지 못한 채 오는 11월 16일 제4차 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남북체육회담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63년에 처음 시작되어 '단일팀' '유일팀'이라는 명칭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관심과 기대를 모았지만 '냉전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좌절되었다. 72년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공동성명이 무산된 이래 79년 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 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88년 서울올림픽을 위

한 남북체육회담은 모두 '예정된 결렬'의 길을 달려갔다.

이번 회담에서도 양측은 남북 단일팀 구성의 당위성에 관해서는 모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남한측이 선수단 구성과 관련하여 벌어진 남북한의 교류문제를 중시하는 반면에 북한은 단일팀 구성의 상징적 의미에 역점을 두고 있다. 남한측이 남북 단일팀 구성문제를 남북 실무교류의 기회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면 '두개의 조선'에 극력 반대하는 북한측은 남북한 '유일팀'의 상징성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대회 참가신청 마감일이 8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회담의 성공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우리는 남북 당국자들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권고한다. 남북문제에 전술적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멀리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는 '큰 구상'의 차원에서 다가가라는 것이다.

냉전논리나 '힘겨루기'에 집착하지 말고 양보할 것은 서로 양보해서 남북 단일팀이 베이징주경기장에 반드시 서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6천만 민족이 중국에 사는 동포들과 '아리랑'을 합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7개월간 동맹
군 20만여 명을 3차 남북체
회담은 양측의 긴박한 국
제 정황을 감안하여 양측
이 양해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南北체육회담 전망

‘山은 많아도 일단은 靑信號

북한은 7개월간 동맹
군 20만여 명을 3차 남북체
회담은 양측의 긴박한 국
제 정황을 감안하여 양측
이 양해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제 양측은 3차 남북체
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긴
박한 국정을 감안하여 양
측이 양해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제 양측은 3차 남북체
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긴
박한 국정을 감안하여 양
측이 양해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北의 '코리아제'는 成事희망입증
실무절차서 南北완전개방전제돼 난관예상

이제 양측은 3차 남북체
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긴
박한 국정을 감안하여 양
측이 양해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南北체육회담 전망

북한은 7개월간 동맹
군 20만여 명을 3차 남북체
회담은 양측의 긴박한 국
제 정황을 감안하여 양측
이 양해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北京行 동반 일단 청신호

兩側 모두 協商에 성의

「호칭」 해결되면 쉽게 타결될 듯

이제 양측은 3차 남북체
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긴
박한 국정을 감안하여 양
측이 양해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제 양측은 3차 남북체
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긴
박한 국정을 감안하여 양
측이 양해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제 양측은 3차 남북체
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긴
박한 국정을 감안하여 양
측이 양해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제 양측은 3차 남북체
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긴
박한 국정을 감안하여 양
측이 양해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單一팀명칭「코리아」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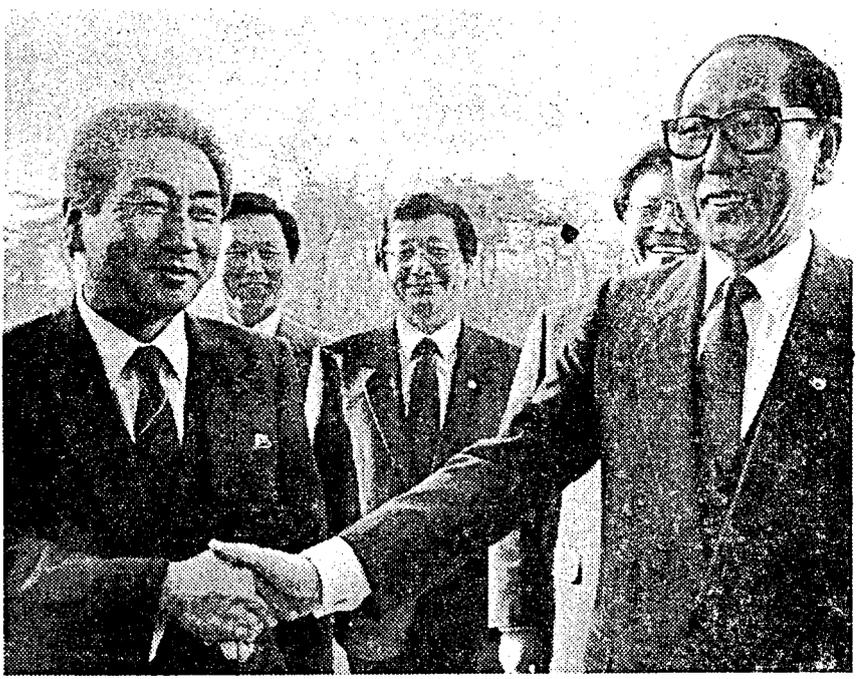
南北體育회담 團旗·團歌 등 정치적事案 모두 妥結

선발選手 많은측서監督 맡기로

【板門店=柳明錫기자】90년 북경에서 개막된 남북 단일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이 16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그 동안 남북 양측의 합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우리측 張植수 수석대표가 남측 대표인 김철환 수석대표와 회담을 갖고 합의 사항을 협의했다.

남북 양측은 단일팀 명칭을 「코리아」로 하고, 단일팀의 감독을 양측에서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또한 단일팀의 구성은 양측에서 각각 10명씩을 선발하기로 합의했다. 단일팀의 구성은 양측에서 각각 10명씩을 선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양측은 단일팀 명칭을 「코리아」로 하고, 단일팀의 감독을 양측에서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또한 단일팀의 구성은 양측에서 각각 10명씩을 선발하기로 합의했다.



16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4차 남북체육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측 대표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이 張植수 우리측 수석대표. <板門店=金城南기자>

이렇게 요구되는 점을 감안, 선발전에서 승리한 팀을 중의 평가 기록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측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단일팀의 평가 기준을 양측이 합의하는 지역에서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남북 양측은 단일팀 명칭을 「코리아」로 하고, 단일팀의 감독을 양측에서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또한 단일팀의 구성은 양측에서 각각 10명씩을 선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양측은 단일팀 명칭을 「코리아」로 하고, 단일팀의 감독을 양측에서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또한 단일팀의 구성은 양측에서 각각 10명씩을 선발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張植수 수석대표는 단일팀의 구성을 양측에서 각각 10명씩을 선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단일팀의 구성은 양측에서 각각 10명씩을 선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양측은 단일팀 명칭을 「코리아」로 하고, 단일팀의 감독을 양측에서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또한 단일팀의 구성은 양측에서 각각 10명씩을 선발하기로 합의했다.

南北단일팀 구성의 밝은전망

베를린 장벽이 28년만에 풀리던날 東西독일 인들은 서로 겨안고 환영하며 환호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선망과 통환으로 지켜보면서 우리는 관문점에서 지난 13일의 南北赤접촉에 이어 15일과 16일 고위당국자예비회담과 체육회담을 잇달아가졌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南北접촉이 그러했듯이 이들 회담도 낙관도 비관도 할수없는 상태의 계속이었다. 그런가운데서도 남북체육인들의 접촉만은 90년 9월의 北京아시안게임 단일팀 출진 가능성에 한걸음 더 접근해 우리들의 관심을 끌었다.

단일팀 구성을 위한 이날의 4차 회담에서 우리측이 선수단 호칭을 北측의 주장대로 우리말로는 「코리아」, 영어표기는 「KOREA」로 하며 중국어로는 영어발음대로 표기하자고 제의, 북한이 이에 동의했다. 이로써 단기와 단가·선수단호칭등 정치적 색채가 짙은 사안이 모두 해결된 셈이다.

뿐만아니라 실질적인 선수단 구성 논의에 들어가 코칭스태프구성 문제와 관련, 선수가 많은 쪽은 감독(북쪽은 책임지도원)을, 그리고 적은 쪽이 코치를 맡기로 했다.

지난 64년의 東京올림픽을 앞두고 열렸던 63년의 남북체육회담에 비하면 큰 진전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당시 회담에서는 단가는 「아리랑」으로 하고 선수선발은 東西獨단일팀구성 개념에 따른다는 원칙등에 겨우 합의했었다.

이날회담에서 南北대표는 의견접근이 어려웠던 단일팀 단장과 임원선임을 비롯 선수선발방식등 세부문제는 24일의 5차회담에서 다루기로 하고 헤어졌다. 따지고보면 나머지 문제들에 엄청난 견해차이나 무리가 가로놓여 있는 것도 아니다.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쉽게 타결될

사안들이다.

우리가 남북단일팀 구성에 거는 기대는 선수 선발과정 자체가 일시적이거나 남북의 장벽을 여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데 있다. 선수선발을 위해서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교환경기를 해야하고 합동훈련도 필요하다. 이와같은 스포츠를 통한 협력관계가 민족의식을 크게 고취할 것임에 틀림없다.

東西獨은 56년의 멜버른 올림픽부터 연속 3회 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출전하면서 협력관계가 성숙, 72년에는 기본조약을 맺었고 지금의 양국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남북단일팀 구성의 전망이 꼭 밝기만 한것은 아니다. 東西獨이 단일팀을 구성하는데 5년간 2백여회의 회담과 접촉을 갖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음을 상기할때 단일팀이 구성되기까지 적잖은 걸림돌을 예상해야 한다. 이와같은 사실을 생각하면 아시안게임을 불과 10개월 앞둔 우리로서는 결코 낙관만 할수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우리는 63년의 첫 체육회담 결렬후에도 79년 평양탁구선수권대회와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서울올림픽등을 앞두고 여러차례 단일팀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을 열었으나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남북간의 교류는 이처럼 어렵고 언제나 예측할수 없는 변수가 작용한다. 그러나 남북이 모처럼 맞은 화해무드속에 서로 양보하는 진지한 노력만 있다면 단일팀구성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남북이 신뢰와 성의를 바탕으로 단일팀을 구성해 北京대회에서 만은 겨레의 결집력과 잠재력을 과시할수 있게되기를 우리모두는 소망하고 있다.

선수단 구성의 벽도 성큼 넘으라

단일팀 호칭에 합의한 남북체육회담

이런저런 남북 대화가 질척거리면서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일삼아 7천만 겨레가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체육회담이 큰 진전을 이룸으로써 그나마 위안을 주었다. 지난 16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4차 회담에서 남북의 대표들은 90년의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에 나갈 단일팀의 호칭을 한글로는 '코리아', 영문으로는 'KOREA'로하기로 합의했다. 그 앞의 회담에서 단가를 '아리랑'으로, 단기는 '흰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서, 베이징 하늘에 '아리랑'이 울려 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0일에 동서독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자유로운 왕래의 길이 활짝 트이는 것을 보면서 한반도의 살벌한 동족 대립과 갈등을 다시 한번 부끄럽게 생각했을 온 겨레는 이제 내년의 베이징대회를 계기로 한반도에 화해와 재결합의 시대가 열리기를 '타는 목마름으로'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스포츠는 정치나 경제나 군사와는 달리 대중을 통합하는 기능이 강하다. 우리는 스포츠의 마당에서 남과 북의 동포가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여러번 볼 수 있었다. 지난 3월21일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 아

이스하기 선수권대회에서 남북의 응원단과 선수들이 승패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데 어울려 '아리랑'을 합창한 일이라든지 얼마전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월드컵축구 최종예선에서 동포들이 남북을 가리지 않고 뜨거운 성원을 보낸 것이 그렇다.

지금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는 체육회담이 완전히 타결된다면 내년의 베이징대회는 민족 통일운동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이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구성된 축구팀이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한 마음으로 경기를 펼치고, 가슴에 '흰 바탕에 한반도 지도'를 새긴 마라톤선수가 주경기장에 풀인할 때 울려 퍼질 합성을 상상만 해도 흥겹지 않은가?

앞으로 남과 북은 선수 선발의 방법, 단장과 임원 선임, 공동추진기구의 구성과 설치장소를 놓고 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한 '자기쪽'의 선수와 임원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독선이나 아집으로 흐르면 회담이 막바지에서 암초에 부딪칠지도 모른다. 남북의 체육회담 대표들은 '자기쪽'보다는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자세로 이 회담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기 바란다.

남북회담 구성 [한발] 안이로

南北회담회담 成果와 전망

9일 9월 16일 북평에서 열린 아시아의 평화와 남북회담을 위한 1차 회담에서 KOREA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은 1차 회담에서 4차 회담까지의 회담을 위한 1차 회담을 성사시켰다. 회담은 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17일 오후 12시까지 열렸다. 회담은 1차 회담에서 4차 회담까지의 회담을 위한 1차 회담을 성사시켰다. 회담은 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17일 오후 12시까지 열렸다.

남북회담은 KOREA 1차 회담(한)과 KOREA 2차 회담(북)을 성사시켰고, 북측은 회담을 위한 1차 회담(한)과 회담을 위한 1차 회담(북)을 성사시켰다. 회담은 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17일 오후 12시까지 열렸다.

호칭 團歌문제 쉽게 풀려 선수 선발방법이 큰 課題

REAO(차회)로 수정 제의하여 의견을 절충시켜 갔다. 단기를 제외하고 원바탕에 녹색한반도 지도를 그리고 KOREA 표기(아)인(한)을 하도록 합의했다.

남북회담은 1차 회담에서 4차 회담까지의 회담을 위한 1차 회담을 성사시켰다. 회담은 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17일 오후 12시까지 열렸다.

남북회담은 1차 회담에서 4차 회담까지의 회담을 위한 1차 회담을 성사시켰다. 회담은 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17일 오후 12시까지 열렸다.

南北韓 합의 내용

합 의 내 용	비 고
호칭 KOREA 코리아(漢字표기 추후토의)	4차회담 합의
團旗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	3차회담 합의
團歌 아리랑	1차회담 합의

南北韓 미합의 사항

南 韓	北 韓
선수 선발 문화담에서 선발전 최을 결정, 최고우수선수 선발	공동상설기구 설치 우수선수 선발, 가급적 남북동수
선수 선발 쌍방향으로 가급적 빨리	90년 7월까지 최종선발 완료
선수 선발 선수 수가 많은 쪽에서 1명	남북공동단장
상설기구 공동위원회 설치운영	공동위원회 및 그 집행기구로 판문점에 공동사무국 설치
단독 쌍방의 해당전문가 자문에 의	공동사무국에서 결정
경비 공동부담원칙	공동부담원칙
신변장 안전보장각서 교환	안전보장각서 교환

실무 기구의 공동위원회가 기본적인 정정부터 마찰을 빚고 있다. 3대수제를 해결한 체육회담이 내외적 효과만큼 남김치 실천효과 과(인)회담 구성을 얻지 못 할것이라는 판단이다. <尹得憲기자>

합동훈련 뒤 선수 선발 점검

南北체육회담 우리側, "單一팀共同기구 2월중 설치하자"

호칭 中國語표기「可里亞·可禮亞」제시

【板門店=柳明錫기자】90년北京아시아계인파전남북한합동훈련구축을 위한 합의가 24일 오전 판문점회담에서 이루어졌다. 이 합의는 우리측 張植植수석대표가 10개항을 제시하고, 남측이 이를 수용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는 10개항을 제시한 우리측 수석대표가 10개항을 제시하고, 남측이 이를 수용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는 10개항을 제시한 우리측 수석대표가 10개항을 제시하고, 남측이 이를 수용하는 데 합의했다.

【板門店=柳明錫기자】90년北京아시아계인파전남북한합동훈련구축을 위한 합의가 24일 오전 판문점회담에서 이루어졌다. 이 합의는 우리측 張植植수석대표가 10개항을 제시하고, 남측이 이를 수용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는 10개항을 제시한 우리측 수석대표가 10개항을 제시하고, 남측이 이를 수용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신문(1989. 11. 25)

새달 1일 3인실무점검회

南北체육회담 합의 선수 선발 방법 논의

다미회담이 12월 22일 열기로

【板門店=高斗炫기자】北北회담이 12월 22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우리측 張植植수석대표가 10개항을 제시하고, 남측이 이를 수용하는 데 합의했다. 합의는 10개항을 제시한 우리측 수석대표가 10개항을 제시하고, 남측이 이를 수용하는 데 합의했다.

張植植수석대표는 또 선수단 명칭의 중국어 표기와 관련해 「可里亞」 또는 「可禮亞」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에 북측은 「可禮亞」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에 북측은 「可禮亞」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板門店=柳明錫기자】90년北京아시아계인파전남북한합동훈련구축을 위한 합의가 24일 오전 판문점회담에서 이루어졌다. 이 합의는 우리측 張植植수석대표가 10개항을 제시하고, 남측이 이를 수용하는 데 합의했다.

남북체육회담 1돌...남은 쟁점

1년전 88년 11월21일 북한쪽이 90년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만들어 출전하자고 제의, 해를 넘겨 시작된 남북체육회담이 24일로 5차를 맞게 됐다.

베이징 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한 체육회담은 1·2·3·4차를 통해 단가(1920년대 아리랑), 단기(흰 바탕에 하늘색 한 반도 지도), 명칭(한글 코리아, 영문 KOREA)에 합의함으로써 선수단 구성, 선수 선발문제만 남겨 놓고 있다.

따라서 이번 5차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며 특히 참가선수가 많은 쪽이 단장을 맡아야 한다는 남한쪽의 단일단장제와 북한의 공동단장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한바탕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차회담에서 북한쪽은 본회담에서는 단일팀공동위원회

동안이나 논란이 지속돼 온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이념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불신과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북과 남이 다같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공동단장제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선수단 구성은 남북한의 자존심 문제까지 겹쳐 미묘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선수 선발문제에 대해 남북한은 일단 경기를 통해 선발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선수단장제와 맞물려 있는 선발 방법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남한쪽은 합동훈련을 거쳐 선발전에서 우수선수 위주로 뽑자는 반면, 북한쪽은 선발전에 합동훈련경기를 포함시켜 연습과정에서 기량이 있다고 판단된 선수를 뽑아 남북한 선수가 균

완하지는 계산이다.

이밖에 단일팀공동위원회나 공동사무국 설치·구성에서 사무국을 판문점에 둘 것이냐(북쪽안) 서울·평양에 둘 것이냐(남한쪽)를 놓고 견해차가 있으나, 단일팀공동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는 대원칙에는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대세에는 영향이 없으며 훈련비용, 신변안전도 합의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한 대표들이 자리를 마주할 때마다 인사말처럼 주고받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여는 데는 45년 동안 허리가 잘린 채 살아 오면서 쌓인 한만큼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체육회담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문제인 것이다. 지난 올림픽에서도 드러났듯이 '1민족 2국가'(남한)와 '1민족 2체제'(북한)라는 정치적 입장에서 단일팀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

“베이징 함께 가자” 맥비지 진통

‘단일’ ‘공동’ 단장제 팽팽히 맞서 선수선발 방식 싸곤 ‘실력’ ‘균형’

구성 등 큰 틀만 마련하고 선수 선발의 구체적인 형식, 방법, 경기횟수, 경기규칙, 훈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다루자고 한 반면, 남한쪽은 선수단 구성, 선수선발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회의에서 기본적인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고 맞서 이 문제를 5차회담으로 미루었다.

이날 남한쪽 장충식 수석대표는 “본회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견해가 엇갈려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형편인데 공동단장을 두게 될 경우 단장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일상불란한 팀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단일단장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쪽은 단일단장제는 균형과 안정성이 파괴되어 어느 일방이 우위를 차지하고 다른 일방을 지도하는 인상을 준다고 반대했다.

북한쪽 김형진 단장은 45년

형있게 팀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남한쪽이 4차회담에서 제시한 선수선발 수정안은 △육상·경영(수영)·역도·양궁·사격·골프 등 기록종목은 합동훈련 때 평가기록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체조·다이빙·유수 등 채점종목과 복싱·유도·레슬링·펜싱·카바디 등 투기종목 및 사이클·조정·커누·요트 등 팀워크를 요구하는 종목은 주로 선발전을 통해 선발하며 △축구·농구·배구·수구·핸드볼·소프트볼·하키·세팍타크로·야구 등 구기종목은 선발전에서 3전2선승을 거둔 팀이 출전한다는 것이다.

즉 남한쪽은 북한에 비해 경기력이 앞선다는 판단 아래 선발전에서 선수를 뽑을 경우 많은 선수가 팀에 합류하게 되고 따라서 단장도 선수가 많은 남한에서 맡게 될 것이라는 포석이다. 북한은 경기력 열세의 취약점을 ‘균형있는 팀’ 안으로 보

이다.

체육계의 한 원로는 “동·서독이 56년 뉘른베르크, 60년 로마, 64년 도쿄올림픽에 단일팀으로 출전했으며 68년 멕시코올림픽을 앞두고 단일팀 구성에 실패한 것은 선수 선발의 과잉경쟁 때문이었다”고 전제하고 “베이징대회에서 금메달을 몇 개 따내고 몇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일팀 구성이 남북교류와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들은 더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 지역에서 긴장완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남북 체육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에게 정략과 체제우월성 홍보 차원의 이해관계를 떠난 민족적 화합심과 동포애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왕길남 기자〉

마. 제 1차 실무대표접촉 (1989. 12. 1)

국민일보 (1989. 12. 1)

선발전 공개여부 논의

南北체육회담 실무접촉

【板門店=연합】99년北京아시안게임 선발전이 1일 오전 10시 판문점 회담장에서 남북회담위원회 실무대표들이 1차 실무접촉을 가졌다.

이날 실무접촉의 주요 의제는 99년 아시안게임 선발전의 개최지 선정, 선수 선발, 경기 일정, 판공비 부담 등이다. 실무접촉은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다.

남측 대표로 김기남(국무부)이, 북측 대표로 김기남(국무부)이 참석했다. 양측 대표들은 회담 후 1시간 30분 정도 회담을 가졌다.

이날 실무접촉은 11월 2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회담위원회 실무대표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양측 대표들은 회담 후 1시간 30분 정도 회담을 가졌다.

한국일보 (1989. 12. 2)

선발전·승훈交流실시키로

경비 공동부담·선변안전보장도 합의

團長선임·사무국 설치장소등은 이견

【板門店=연합】99년 아시안게임 선발전이 1일 오전 10시 판문점 회담장에서 남북회담위원회 실무대표들이 1차 실무접촉을 가졌다.

이날 실무접촉은 11월 2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회담위원회 실무대표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양측 대표들은 회담 후 1시간 30분 정도 회담을 가졌다.

이날 실무접촉의 주요 의제는 99년 아시안게임 선발전의 개최지 선정, 선수 선발, 경기 일정, 판공비 부담 등이다. 실무접촉은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다.

이날 실무접촉은 11월 2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회담위원회 실무대표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양측 대표들은 회담 후 1시간 30분 정도 회담을 가졌다.

선수단 구성 異見 못 좁혀

南北 체육회담 15일 3차접촉기로

【단독취재】 남북체육회담 실무대표접촉이 6일 서울에서 3차 접촉을 가졌다. 남북 양측은 선수단 구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15일 3차 접촉을 마지막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남북 양측은 6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울에서 3차 접촉을 가졌다. 양측은 선수단 구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15일 3차 접촉을 마지막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남측은 선수단 구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15일 3차 접촉을 마지막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북측은 선수단 구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15일 3차 접촉을 마지막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선수훈련방법등민행이

「團長선임」등 異見 여전... 15일 3차접촉

남북체육회담 2차 실무접촉

【종합】 남북체육회담 실무대표접촉이 6일 서울에서 2차 실무접촉을 가졌다. 양측은 선수단 구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15일 3차 접촉을 마지막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남측은 선수단 구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15일 3차 접촉을 마지막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북측은 선수단 구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15일 3차 접촉을 마지막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선수단 구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15일 3차 접촉을 마지막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남측은 선수단 구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15일 3차 접촉을 마지막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북측은 선수단 구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15일 3차 접촉을 마지막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주壤에 공동사무국 설치

南北체육회담 적정인원 상주토록

【板橋店=서울취재단】28일 북경에서 열린 남북체육회담은 두 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29일 서울에서 공동사무국을 설치할 것을 합의했다. 회담은 29일 오전 10시에 무의미하게 끝났지만 회담 결과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이날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그동안의 회담을 회고하며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담은 29일 오전 10시에 무의미하게 끝났지만 회담 결과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이날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그동안의 회담을 회고하며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담은 29일 오전 10시에 무의미하게 끝났지만 회담 결과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공동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남북 양측은 회담에서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담은 29일 오전 10시에 무의미하게 끝났지만 회담 결과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이날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그동안의 회담을 회고하며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담은 29일 오전 10시에 무의미하게 끝났지만 회담 결과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南北체육회담 10개項 타결

團長선임·공동事務局·단일팀명칭등

【板橋店=南來攝기신北京】28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체육회담은 두 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29일 서울에서 공동사무국을 설치할 것을 합의했다. 회담은 29일 오전 10시에 무의미하게 끝났지만 회담 결과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이날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그동안의 회담을 회고하며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담은 29일 오전 10시에 무의미하게 끝났지만 회담 결과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이날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그동안의 회담을 회고하며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담은 29일 오전 10시에 무의미하게 끝났지만 회담 결과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서울·平壤에 「공동事務局」 설치

南北양측서 적정인원 常駐

體育회담 合意 선수 많은側 團長 맡기로

【北平店=吳炳基기자】90년 말의 22일 상오 10시 평壤(平壤)에서 열린 남북체육회담은 사상 최초로 남북 양측이 합의한 공동사무국설치를 위한 제6차 남북체육회담의 주요 의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담은 1989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평壤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기사 2면)

한국일보 (1989. 12. 24, 사설)

南北단일팀 構成되려나

남북단일팀의 구성은 분단극복의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 될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체육회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수 없다.

금년 마지막으로 22일 열린 남북체육회담서 남북한대표들이 10개항의 기본원칙중 단장선임, 호칭, 한문표기, 공동사무국설치장소등 이견을 보여온 4개항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단일팀 구성전망은 한층 밝아졌다.

그러나 남북스포츠회담의 이같은급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대다수(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74.25%)가 단일팀구성이 안될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며 체육전문가들조차도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있는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일까. 한마디로 그간의 여러 남북회담의 결과를 모두가 너무 집약하고 있기때문일 것이다.

제2차 고함방문단의 상호교환의 유산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은 남북관계의 원칙을 다루는 측면에는 쉽게 합의하고서도 구체안을 다루는 각본에서 으레 이견을 보이든가, 도저히 수락이 어려운 조건들을 달아 회담의 성사를 막았던 예가 너무도 많았다.

따라서 이점은 남북회담에 임하는 북측의 대표들이 깊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더구나 東歐의 혁명적인 개방, 자유화가 전해지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이런 변화를 배우지 못 하고있는 북한을 매우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있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번회담만 하더라도 북측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지금까지의 진전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것으로 매

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단일팀 구성의 실무를 처리 할 남북실무 공동위원회와 공동 사무국이 아직도 윤곽조차 드러내지 못했 을뿐만 아니라 27개종목 308개세부종 목 5백명안팎으로 예상되는 대표선수 를 뽑기위한 선발대의 개최장소, 개최시기, 운영세칙등이 하나도 다투 어지지 않은채로 있다.

따라서 단일팀구성의성패는 이제부 터가 고비라고 할수있는데 국가별참 가신청서마감일인 1990년 6월22일까 지는 까다로운 실무절차를 거쳐 남북 대표를 결정짓고 조직위에 등보하여 야만 한다.

모든회담이 거의 교착상태에서 유 독체육회담만이 진전을보이는것은 한 국스포츠의 대북우세, 北京하남의 태 극기등의 객관적인 여건에 영향을 받 은탓인지 한국측의 제의를 북한측이 대부분 수용하는듯한인상이다. 그러나 동기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중요 시하는 것은 남북이 전쟁이나 반목이 아닌 단합된모습을 세계에 한번 보여 주고 화해의 분위기의 실마리도 마련 해 보자는데 있다.

북한도 이점을 잘 알아야 할것이 다. 만에 하나 남한내의 동조분위기를 부추겨보려는 케케묵은 의도가 여기에도 깔려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임을 미리 지적해 두는 바이다.

단일팀구성의 여건이 이번만큼 성 속한때가 없었으므로 우리도 현재 체육회담서 보이고 있는 북한의 태도가 어느날 갑자기 변질되지 않도록 최대 한의 노력을 기울이며 단일팀구성을 성사시켜 분단극복의 값진 계기를 마련 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에서 부단장 맡기로
입원 구성을 실무적으로 추진할 공동사무국을 서울과 평壤의 각각 설치하고 양측

에서 적정인원을 파견, 상주 할수있도록
단일팀 구성을 실무적으로 추진할 공동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구상 마련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보강대책과 합의사항의 이행 이문서 지난 3월 시한을 넘겨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남북체육회담의 주요 의제인 공동사무국설치를 위한 제6차 남북체육회담의 주요 의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 남북체육회담개시, 9개월여만에 10개항에 대해 타협을 본張勳善(우리측대표)과김정일(북측대표)이 회담장 밖을 나서며 김대표(왼쪽)와 수를 나누고 있다. (板門店=柳光善기자)

南北체육회담 10개항의견일치의 배경

90년 北京에서 열린 참가 남북체육회담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10개항의견일치로 남북회담대표단의 출현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한 양측은 이날 회담서 그동안 논의되어온 10개항의견일치를 파북경의사안제안 남북회담출현전망의 침신을 밝혔다.

양측은 이번 합의는 사회의 대해 심신의 이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합의의 문표와 포용적인 기구의 운영방안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고도의 최종 합의의 조성에 이르기 위해서 조신한 작업의 계속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이 북경에서 열린 회담서 남북회담을 구실할 것을 먼저 제안해

文益煥(북경)과 林秀卿(평양)의 회담이 성과로 이어졌을 때 중대위기에 직면한 남북체육회담

특히 이번 6차회담은 그동안 3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토대로 단장선 임명면접국어표기 등에

이에 따라 우리 체육계 일각에서는 남북회담의 연구성이 큰 다결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심박한

우리측은 북한측이 이번 6차회담서 예상외로 양보를 한 사실을 중시, 앞으로 있을 남북체육회담서 단일팀구성에 따른 여러 안전장치설치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는 제3국을 통해 양측을 감시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단일팀 출전 가능성 보인다

사후 安全보장 장치가 큰 걸림돌로

합의서 작성까지 넘어야 할 산 많아

이러한 남북체육회담은 그동안 6차례의 본회담과 3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합의의 이점을 좁혀나가고 있다.

은 지난 11월의 제4차 회담을 고비로 양측의 이견을 크게 좁혔다.

북한측은 이번 회담의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며 참가문제 등 기존의 여러

사항이 쉽게 합의점을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체육회담은 넘어야 할 산의 양이 많다. 양측은 이번 회담서 합의한 합의서의

은 이제 양측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원칙들을 넘어서 실질토의에까지 큰 의견차를 봐 그동안 철저하게 차단된 남북 스포츠교류에 승용이 트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추방遠 스포츠칼럼

<편집위원>



격동의 80년대가 저물어간다. 우리에게 지난 10년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갈등과 혼란·좌절과 시련·도전과 극복이 굴절된 격동의 시기였다.

그러나 스포츠만은 제5공화국의 스포츠 드라이브정책의 지원속에 전례없는 好況을 구가한 황금기였다.

『프로스포츠의 활성화』와 『서울올림픽의 성공』으로 집

약되는 『스포츠 80년대』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외교등 수많은 분야에까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온 한국스포츠의 位相을 정립한 시기라고 볼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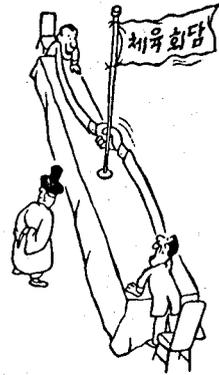
스포츠입국정책의 일환으로 태동한 프로야구·축구·씨름등 프로 스포츠가 폭발적인 붐을 이루면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까지 바꿀만큼 국민생활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는가하면 서울올림픽은 한국의 국제화에 일대전기를 마련한 국민적인 축제였다.

특히 사상 가장 장엄하고 화려한 인류화합의 제전으로 차려진 서울올림픽은 12년만에 東西가 함께 자리한 한마당이 됨으로써 새로운 東西데탕트시대를 연 계기가 되었다.

타임誌가 『80년대의 인물』로 선정한 소련공산당서기장 고르바초프의 배후지원이 있었다지만 베를린장벽의 제거와 루마니아독재자 차우세스쿠의 처형으로 상징되는 東歐공산권의 민주화개방물결도 따지고 보면 서울올림픽이 轉機가 되었다는 것을 동구인들 스스로도 인정한다.

이처럼 세계사의 변모까지 물고온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갈등과 대립을 접어두고 합심협력한 국민들의 총체적 노력으로 대회前에 국내외에 팽배했던 위기의식을 극복한

南北체육회담 北側속셈



결실이라는 데서 민족의 저력을 한껏 뽐낼수 있었다.

그럼에도 국민모두가 기뻐할수만 없었던것은 끝내 서울행을 거부한 북한의불참이 모두의 가슴속에 앙금이되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의 분단을 영구화시킨

다』는 구실로 서울올림픽을 끝까지 보이콧했던 북한이 90년 북경아시안게임엔 남북한 단일팀을 출전시키자고 서둘고 있어서 그들의 표변한 모습이 많은 것을 생각해한다.

특히 9개월간 질질 끌어온 10개기본사항의 일괄타결에 합의한 지난 22일의 제6차 남북체육회담이 북한측의 전례없는 대폭양보로 큰진전을 이룩한 점이 희망과 의욕을 함께 불러일으킨다.

지난 63년 이래 26년간 결렬과 재개를 거듭한 남북체육회담이었지만 이번에 북한측이 처음으로 보인 양보자세로 회담성공의 밝은 가능성을 기대할 수있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팀구성을 위한 합의문서부터 작성하고 보자는식의 성급한 자세엔 진실성과 성실성이 모자라 보였다.

어쩌면 북한측은 북경하늘에 올라갈태극기를 막기위한

플귀신작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짙은 의혹까지 낳았던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자세는 남북한 단일팀 구성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시켰다. 사실 우리가 중국대륙에 휘몰아칠 코리아선풍과 북경하늘의 태극기를 회생하면서까지 남북한 단일팀 구성에 동의하는것은 민족화합과 민족의 동질성회복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부푼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상호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이 뒤따르지않을땐 한낱 꿈으로 그치게 마련이다.

새해의 7차남북체육회담에서는 합의서 작성을 서둘기전에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점검하면서 민족화합의 분위기를 다지고 이를 적십자회담과 고위당국자회담등에도 파급시킴으로써 북한의 민주화·개방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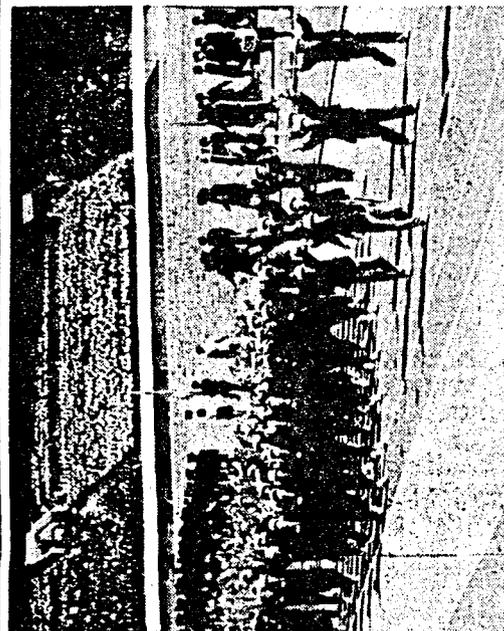
조선의 1989년 1월 7일... (Introductory text in Hangeul)

북한이 1989년 1월 7일

조선의 1989년 1월 7일... (Text in Hangeul)

북한이 1989년 1월 7일

조선의 1989년 1월 7일... (Text in Hangeul)



조선의 1989년 1월 7일... (Caption text in Hangeul)

北京아시안 金메달 22개 전망 韓國목표 65개에 월썬 못미쳐

연도-체조-레슬링強勢...獨自출진 대비 強靱도 (Main article text in Hangeul)

조선의 1989년 1월 7일... (Text in Hangeul)

조선의 1989년 1월 7일... (Text in Hangeul)

남-北체육회담 주춤

어제 실무접촉 "제자리 걸음"

합의사항 이행방안 제시 없어 교환경기 제의도 북측서 거부

5차 실무회의의 15일 갖기로

【파리 10일路透통신】 98년 제1차 남북체육회담 실무접촉이 어제 10일 판문점 중립지역에서 열린데 이어 북측이 6차 실무회의를 15일 판문점에서 갖기로 결정했다고 10일路透통신이 전했다.

南 "시행세척에 큰異見"

北 "친선경기는 의제밖"

북측은 5차 실무회의에서 합의사항 이행방안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15일 실무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10일路透통신이 전했다. 북측은 합의사항 이행방안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15일 실무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10일路透통신이 전했다.

남측은 5차 실무회의에서 합의사항 이행방안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15일 실무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10일路透통신이 전했다. 남측은 합의사항 이행방안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15일 실무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10일路透통신이 전했다.

남측은 5차 실무회의에서 합의사항 이행방안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15일 실무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10일路透통신이 전했다. 남측은 합의사항 이행방안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15일 실무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10일路透통신이 전했다.

남측은 5차 실무회의에서 합의사항 이행방안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15일 실무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10일路透통신이 전했다. 남측은 합의사항 이행방안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15일 실무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10일路透통신이 전했다.

남측은 5차 실무회의에서 합의사항 이행방안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15일 실무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10일路透통신이 전했다. 남측은 합의사항 이행방안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15일 실무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10일路透통신이 전했다.

차. 제5차 실무대표접촉 (1990. 1. 15)

경향신문 (1990. 1. 15)



남북체육회담 실무접촉을 가진 15일 남북 양측대표들이 회의시작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있다. 【板門店=연합】

합의사항 보장 異見
 【板門店=연합취재단】 9일 北京에서 열린 남북한 4차 실무접촉 제5차 실무접촉이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5일 오후 1시 30분까지 4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4차 실무접촉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5차 실무접촉의 합의사항을 협의했다.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990. 1. 16)

「北京」단일팀구성 「먼저」

남북체육회담 부하, 「합의 이행 부칙」 철회요구... 결렬

어제 5차 실무접촉... 「10개항서명」 어렵다

【板門店=연합취재단】 15일 板門店에서 열린 남북한 4차 실무접촉 제5차 실무접촉이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5일 오후 1시 30분까지 4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4차 실무접촉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5차 실무접촉의 합의사항을 협의했다.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5일 板門店에서 열린 남북한 4차 실무접촉 제5차 실무접촉이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5일 오후 1시 30분까지 4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4차 실무접촉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5차 실무접촉의 합의사항을 협의했다.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4차 실무접촉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5차 실무접촉의 합의사항을 협의했다.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4차 실무접촉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5차 실무접촉의 합의사항을 협의했다.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4차 실무접촉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5차 실무접촉의 합의사항을 협의했다.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4차 실무접촉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5차 실무접촉의 합의사항을 협의했다.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사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南北체육회담-「결렬 코스」로 가는가

5차實務접촉서 「먹구름」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5차 실무접촉이 1989년 12월 28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5차 실무접촉이 1989년 12월 28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5차 실무접촉이 1989년 12월 28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5차 실무접촉이 1989년 12월 28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5차 실무접촉이 1989년 12월 28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5차 실무접촉이 1989년 12월 28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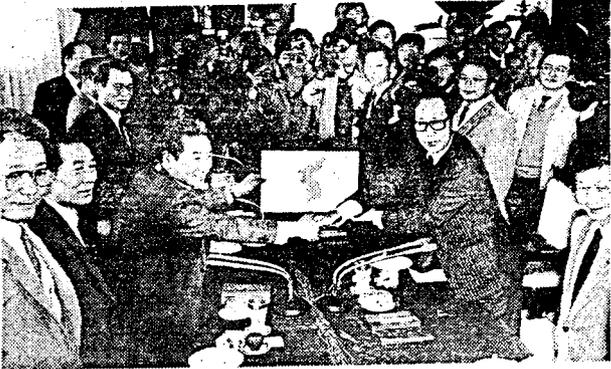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5차 실무접촉이 1989년 12월 28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5차 실무접촉이 1989년 12월 28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合意書 교환단계서 또不信 노출 “우리측”의 포용력 아쉽다 지적도

東西獨 2百여회접촉 單一팀구성 本받아야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5차 실무접촉이 1989년 12월 28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5차 실무접촉이 1989년 12월 28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5차 실무접촉이 1989년 12월 28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5차 실무접촉이 1989년 12월 28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5차 실무접촉이 1989년 12월 28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5차 실무접촉이 1989년 12월 28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5차 실무접촉이 1989년 12월 28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5차 실무접촉이 1989년 12월 28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5차 실무접촉이 1989년 12월 28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은 양측이 합의한 5차 실무접촉이 1989년 12월 28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결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 단일팀 구성 벼랑에

6차 실무회의 부칙조항 타결못해 또 제자리

【판문점 = 남북체육회담 공동취재반】 90년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구성을 위한 제6차 남북체육회담 실무대표자회의가 22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부칙조항을 놓고 토의했으나, 남북한 양쪽의 의견이 엇갈려 아무 진전 없이 끝났다.

이날 남한쪽은 지난 18일 7차 본회담에서 베이징대회 조직위원회(BAGOC) 서한 통보를 비롯, 용어해석 등을 골자로 한 합의 이행 보장을 위한 부칙 7개항을 북한쪽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쪽은 부칙조항의 전면철폐를 거듭 주장, 회담은 아무 합의없이 2시간 만에 끝났

다. 남쪽은 부칙조항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또 한차례의 실무대표자회의를 오는 25일 다시 갖자고 제의했으나 북쪽이 거부, 예정대로 오는 29일 8차 본회담만이 바로 열리게 됐다.

이로써 8차 본회담에서 남북한 양쪽의 극적인 양보가 없는 한 남북체육회담은 결렬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남쪽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 79년 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앞서 열렸던 남북체육회담에서 남쪽이 개별팀으로 출전치 못하도록 북한쪽이 저지한 선례를 들어, 단일팀 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개별팀으로 출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베이징대회 조직위에 통보하는

등의 합의사항 이행보장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일팀구성 절망적”

6차 실무접촉도 진전없어

남북 체육회담
 판문점=남북체육회담공동취재반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구성을 위한 제6차 남북체육회담 실무대표자회의가 22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나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고 끝났다.

남한측은 베이징대회 조직위원회(BAGOC) 서한 통보를 비롯, 용어해석 등을 골자로 한 합의 이행 보장을 위한 부칙 7개항을 북한쪽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쪽은 부칙조항의 전면철폐를 거듭 주장, 회담은 아무 합의없이 2시간 만에 끝났다.

남쪽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 79년 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앞서 열렸던 남북체육회담에서 남쪽이 개별팀으로 출전치 못하도록 북한쪽이 저지한 선례를 들어, 단일팀 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개별팀으로 출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베이징대회 조직위에 통보하는

남북 체육회담
 판문점=남북체육회담공동취재반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구성을 위한 제6차 남북체육회담 실무대표자회의가 22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나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고 끝났다.

남한측은 베이징대회 조직위원회(BAGOC) 서한 통보를 비롯, 용어해석 등을 골자로 한 합의 이행 보장을 위한 부칙 7개항을 북한쪽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쪽은 부칙조항의 전면철폐를 거듭 주장, 회담은 아무 합의없이 2시간 만에 끝났다.

남북 체육회담
 판문점=남북체육회담공동취재반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구성을 위한 제6차 남북체육회담 실무대표자회의가 22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나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고 끝났다.

남한측은 베이징대회 조직위원회(BAGOC) 서한 통보를 비롯, 용어해석 등을 골자로 한 합의 이행 보장을 위한 부칙 7개항을 북한쪽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쪽은 부칙조항의 전면철폐를 거듭 주장, 회담은 아무 합의없이 2시간 만에 끝났다.

남북 체육회담
 판문점=남북체육회담공동취재반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구성을 위한 제6차 남북체육회담 실무대표자회의가 22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나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고 끝났다.

남한측은 베이징대회 조직위원회(BAGOC) 서한 통보를 비롯, 용어해석 등을 골자로 한 합의 이행 보장을 위한 부칙 7개항을 북한쪽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쪽은 부칙조항의 전면철폐를 거듭 주장, 회담은 아무 합의없이 2시간 만에 끝났다.

남북 체육회담
 판문점=남북체육회담공동취재반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구성을 위한 제6차 남북체육회담 실무대표자회의가 22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나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고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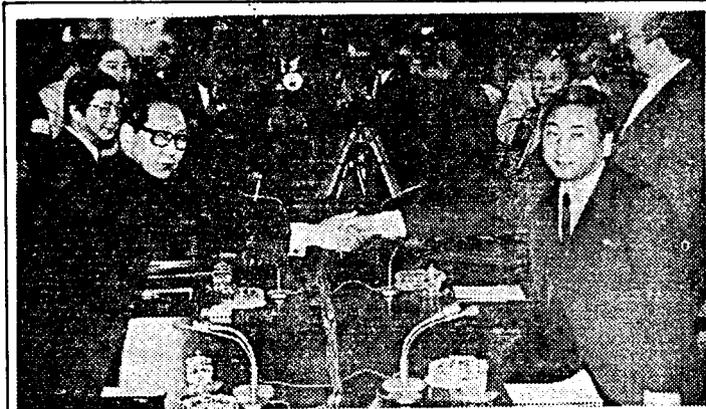
남한측은 베이징대회 조직위원회(BAGOC) 서한 통보를 비롯, 용어해석 등을 골자로 한 합의 이행 보장을 위한 부칙 7개항을 북한쪽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쪽은 부칙조항의 전면철폐를 거듭 주장, 회담은 아무 합의없이 2시간 만에 끝났다.

남북 체육회담
 판문점=남북체육회담공동취재반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구성을 위한 제6차 남북체육회담 실무대표자회의가 22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나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고 끝났다.

남한측은 베이징대회 조직위원회(BAGOC) 서한 통보를 비롯, 용어해석 등을 골자로 한 합의 이행 보장을 위한 부칙 7개항을 북한쪽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쪽은 부칙조항의 전면철폐를 거듭 주장, 회담은 아무 합의없이 2시간 만에 끝났다.

남북 체육회담
 판문점=남북체육회담공동취재반
 베이징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구성을 위한 제6차 남북체육회담 실무대표자회의가 22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나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하고 끝났다.

남한측은 베이징대회 조직위원회(BAGOC) 서한 통보를 비롯, 용어해석 등을 골자로 한 합의 이행 보장을 위한 부칙 7개항을 북한쪽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쪽은 부칙조항의 전면철폐를 거듭 주장, 회담은 아무 합의없이 2시간 만에 끝났다.



29일상오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체육 회담 제8차 본회담에서 우리측 張忠植대표(右)와 북측 김형진단장이 악수를 나누고있다.

【板門店=朴珍植기자】北京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8차 본회담이 29일 오후 2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우리측 張忠植 대표와 북측 김형진 단장이 각각 10개 기구를 들고 회담장에 나와 악수를 하며 친선 분위기를 조성했다. 회담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양측은 회담 후 2시간 가량 회담장을 나와 기념 촬영을 하고는 판문점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板門店=朴珍植기자】北京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8차 본회담이 29일 오후 2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우리측 張忠植 대표와 북측 김형진 단장이 각각 10개 기구를 들고 회담장에 나와 악수를 하며 친선 분위기를 조성했다. 회담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양측은 회담 후 2시간 가량 회담장을 나와 기념 촬영을 하고는 판문점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板門店=朴珍植기자】北京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8차 본회담이 29일 오후 2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우리측 張忠植 대표와 북측 김형진 단장이 각각 10개 기구를 들고 회담장에 나와 악수를 하며 친선 분위기를 조성했다. 회담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양측은 회담 후 2시간 가량 회담장을 나와 기념 촬영을 하고는 판문점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板門店=朴珍植기자】北京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8차 본회담이 29일 오후 2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우리측 張忠植 대표와 북측 김형진 단장이 각각 10개 기구를 들고 회담장에 나와 악수를 하며 친선 분위기를 조성했다. 회담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양측은 회담 후 2시간 가량 회담장을 나와 기념 촬영을 하고는 판문점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板門店=朴珍植기자】北京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8차 본회담이 29일 오후 2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우리측 張忠植 대표와 북측 김형진 단장이 각각 10개 기구를 들고 회담장에 나와 악수를 하며 친선 분위기를 조성했다. 회담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양측은 회담 후 2시간 가량 회담장을 나와 기념 촬영을 하고는 판문점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南北체육회담 결렬危機

승선발표일 2월 1일 앞두고 부칙 7개항 異見여전

체육회담 또 공전

어제 8차 본회담 부칙조항 異見 못 좁혀

【판문점=송진희기자】90북 회담이 공전을 거듭, 결렬 위기에 몰려가고 있다. 29일 오전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체육회담에서 양측은 회담 후 2시간 가량 회담장을 나와 기념 촬영을 하고는 판문점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지양아무런 전전없이 2시간 20분만의 회담을 보였다. 우리측은 이날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남북 합이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칙조항 7개항(인조지우용회(BAGOC)에 대한 서한발송 ▲10개항한 의내용의 대한 동의해석 ▲단일팀구성에 관한 합의사항)를 요구한 반면 북측은 이를 포함한 부칙 7개항의 전면 협의를 거듭 주장했다. 양측은 오후 2월 7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대표 인명환의진에서 제9차 회담을 열기로 했(데, 양측 합의는 태도변화가 없던 한포다시 공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육회담 成事시켜라

—北인單一팀 구성에 誠意 보이길

南北體育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특히 북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단일팀 구성은 남북 체육 교류의 중요한 계기이며, 양측이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이지 않으면, 단일팀 구성은 불가능하다. 양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가 평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단일팀 구성은 남북 체육 교류의 중요한 계기이며, 양측이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이지 않으면, 단일팀 구성은 불가능하다. 양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남북 양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단일팀 구성은 남북 체육 교류의 중요한 계기이며, 양측이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이지 않으면, 단일팀 구성은 불가능하다. 양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남북 양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단일팀 구성은 남북 체육 교류의 중요한 계기이며, 양측이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이지 않으면, 단일팀 구성은 불가능하다. 양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남북 양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단일팀 구성은 남북 체육 교류의 중요한 계기이며, 양측이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이지 않으면, 단일팀 구성은 불가능하다. 양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남북 양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단일팀 구성은 남북 체육 교류의 중요한 계기이며, 양측이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이지 않으면, 단일팀 구성은 불가능하다. 양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남북 양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단일팀 구성은 남북 체육 교류의 중요한 계기이며, 양측이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이지 않으면, 단일팀 구성은 불가능하다. 양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誠意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하. 제9차 회담 (1990. 2. 7)

동아일보 (1990. 2. 7)

南北체육회담 사실상 결렬

9차 본회담 견해차 못 좁혀

【板門店=宋大根기자】제9차 남북체육회담이 6일(음력 1월 29일) 판문점 회담장에서 1박 2일째인 6일(음력 1월 29일)에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장에서는 8시간 동안 9차 본회담을 위한 1차 회담이 열렸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해 회담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회담장에서는 8시간 동안 9차 본회담을 위한 1차 회담이 열렸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해 회담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회담장에서는 8시간 동안 9차 본회담을 위한 1차 회담이 열렸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해 회담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회담장에서는 8시간 동안 9차 본회담을 위한 1차 회담이 열렸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해 회담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1990. 2. 8)



◇画面도 두개 제9차 남북체육회담이 우리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데 동안 내외신기자 1백여명은 옆방 기자실에 마련된 폐쇄 회로를 통해 양측 수석대표의 대화내용을 취재했다. <사진=閔廣遠기자>

南北체육회담 결렬

9차 본회담 견해차 못 좁혀

【板門店=金福福기자】9차 남북체육회담이 6일(음력 1월 29일) 판문점 회담장에서 1박 2일째인 6일(음력 1월 29일)에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장에서는 8시간 동안 9차 본회담을 위한 1차 회담이 열렸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해 회담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회담장에서는 8시간 동안 9차 본회담을 위한 1차 회담이 열렸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해 회담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회담장에서는 8시간 동안 9차 본회담을 위한 1차 회담이 열렸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해 회담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회담장에서는 8시간 동안 9차 본회담을 위한 1차 회담이 열렸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해 회담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남북體育회담 결렬

남북의 뚝은 여전히 높기만 한 것인가. 남북赤十字회담이 작년에 파국을 맞는데 이어 체육회담도 11개월만에 사실상 결렬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世界史의 흐름이 온통 解氷 氷해로 치닫는 관에 어찌서 우리는 비정치적인 남북회담 하나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가 싶어서이다.

결론부터 말해 그간의 체육회담은 北韓측이 내용이야 어떻든 단일팀구성원칙에 먼저 「合意」를 도출하여 이를 대내외에 선포케 하고, 개별팀으로는 北京아시안게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우리측의 발을 묶으려다 벽에 부딪친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우리는 작년 11월 적십자회담이 北韓측의 엉뚱한 「피바다」공연 트집으로 무산됐을때 체육회담도 쉽지는 않았구나 하는 짐작은 했었다. 하지만 이번의 체육회담은 작년 3월 北韓측이 먼저 제의해 시작된 것이고 또 南北韓이 각각 따로 참가할 경우 여러모로 北韓측에 「勢不利」가 있을것이 예견돼 우리로서는 「덜져도 좋다」하고 적극 자세로 임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단일팀을 구성하게 되면 남북이 체육교류를 하게되고 이것이 계기가 돼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일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측의 순박한 기대는 결과적으로 빗나갔다. 北韓측은 우리측이 기본합의서를 만들기에 앞서 그 이행보장장치로 「부칙」 적용을 요구하자, 개별팀 참가만은 한사코 저지하려는 그들의 本色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北韓측이 남북체육회담을 政略的으로 이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우리측은 지난 79년 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때 단일팀구성을

위해 北韓측과 회담을 벌이다가 단일팀은 커녕 개별참가도 못하게된 경험을 갖고 있다. 심지어는 84년 LA올림픽을 불과 몇개월 앞두고 단일팀참가를 위한 체육회담을 제의했다가 소련의 불참결정에 동조하여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한 사례도 있다.

더욱이 새해들어서는 3갈래로 진행되던 남북간의 대화가 연초 金日成이 신년사를 통해 「자유왕래, 전면개방」을 들고 나오면서 이의 전제조건으로 있지도않은 「콘크리트 장벽제거」를 주장한 이후 갑작스레 냉각된 점을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물론 이번의 체육회담도 이같은 남북관계의 큰 틀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限界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모르느바 아니다. 도리어 최근에 와서는 남북대화가 심사될 경우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전반적인 남북교류분위기 자체를 北韓 스스로가 두려워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작금의 北韓 주변 상황이 이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對話하는 노력을 중단할수도 없는 것이 긴장완화를 꾸준히 추구해야할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따라서 비록 可望은 적더라도 앞서 南北상방간에 합의한대로 단일팀구성 「共同추진기구」발족 예정일인 오는 15일까지는 北韓의 태도변화를 한번더 촉구하는 그런 인내와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北韓측에도 당부할 말이 있다. 잊지도않은 南韓의 「콘크리트장벽제거」운운하며 모든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종래의 태성은 버려야한다는 점이다. 스스로 「孤立」을 푸는 것이 살길임을 우리는 충고해둔다. 北韓이 무슨수로 세계사를 逆流하려는가.

南北韓 체육회담 결렬

남북 체육회담이 결렬된 것은 남북관계의 큰 틀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모르느바 아니다. 도리어 최근에 와서는 남북대화가 심사될 경우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전반적인 남북교류분위기 자체를 북한 스스로가 두려워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작금의 북한 주변 상황이 이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대화하는 노력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 긴장완화를 꾸준히 추구해야 할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따라서 비록可望은 적더라도 앞서 남북상방간에 합의한대로 단일팀구성 「共同추진기구」발족 예정일인 오는 15일까지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한번더 촉구하는 그런 인내와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북한측에도 당부할 말이 있다. 잊지도않은 한국의 「콘크리트장벽제거」운운하며 모든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종래의 태성은 버려야한다는 점이다. 스스로 「孤立」을 푸는 것이 살길임을 우리는 충고해둔다. 북한이 무슨수로 세계사를 逆流하려는가.

남북 체육회담이 결렬된 것은 남북관계의 큰 틀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모르느바 아니다. 도리어 최근에 와서는 남북대화가 심사될 경우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전반적인 남북교류분위기 자체를 북한 스스로가 두려워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작금의 북한 주변 상황이 이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대화하는 노력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 긴장완화를 꾸준히 추구해야 할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따라서 비록可望은 적더라도 앞서 남북상방간에 합의한대로 단일팀구성 「共同추진기구」발족 예정일인 오는 15일까지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한번더 촉구하는 그런 인내와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북한측에도 당부할 말이 있다. 잊지도않은 한국의 「콘크리트장벽제거」운운하며 모든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종래의 태성은 버려야한다는 점이다. 스스로 「孤立」을 푸는 것이 살길임을 우리는 충고해둔다. 북한이 무슨수로 세계사를 逆流하려는가.

남북 체육회담이 결렬된 것은 남북관계의 큰 틀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모르느바 아니다. 도리어 최근에 와서는 남북대화가 심사될 경우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전반적인 남북교류분위기 자체를 북한 스스로가 두려워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작금의 북한 주변 상황이 이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대화하는 노력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 긴장완화를 꾸준히 추구해야 할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따라서 비록可望은 적더라도 앞서 남북상방간에 합의한대로 단일팀구성 「共同추진기구」발족 예정일인 오는 15일까지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한번더 촉구하는 그런 인내와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북한측에도 당부할 말이 있다. 잊지도않은 한국의 「콘크리트장벽제거」운운하며 모든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종래의 태성은 버려야한다는 점이다. 스스로 「孤立」을 푸는 것이 살길임을 우리는 충고해둔다. 북한이 무슨수로 세계사를 逆流하려는가.

남북 체육회담이 결렬된 것은 남북관계의 큰 틀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모르느바 아니다. 도리어 최근에 와서는 남북대화가 심사될 경우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전반적인 남북교류분위기 자체를 북한 스스로가 두려워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작금의 북한 주변 상황이 이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대화하는 노력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 긴장완화를 꾸준히 추구해야 할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따라서 비록可望은 적더라도 앞서 남북상방간에 합의한대로 단일팀구성 「共同추진기구」발족 예정일인 오는 15일까지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한번더 촉구하는 그런 인내와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북한측에도 당부할 말이 있다. 잊지도않은 한국의 「콘크리트장벽제거」운운하며 모든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종래의 태성은 버려야한다는 점이다. 스스로 「孤立」을 푸는 것이 살길임을 우리는 충고해둔다. 북한이 무슨수로 세계사를 逆流하려는가.

“15일까지 北응답없으면 '개별참가준비 단일팀구성 최종마감일까지 포기안해”

金체육회장, 체육회담결렬관련 성명

金鍾烈대한체육회장은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의 결렬과 관련, 8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끝내 회담이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북경아시안게임에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치 못하게 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金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측이 단일팀 구성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합의사항 이행을 보장하는 데는 부정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는 한국의 개별참가를 막아보자는데 그 진의가 있으며 북경아시안게임 공동으로 보이콧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金회장은 「오는 15일까지 북한측의 응답이 없을 경우 개별참가 준비를 시작하되 최종엔트리마감일인 8월22일까지도 단일팀출전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겠다」며 「결렬사실에 관해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북경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金회장은 9차례의 본회담과 6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측이 콘크리트장벽 제거를 전제조건으로 한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실현」등 체육의적인 문제를 주장한데 대해 「체육회담의 결렬책임은 체육교류를 회피하고 체육회담을 정치선전차원에서 이용하려 한 북한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통박한 후 「북한측은 불순한 의도를 버리고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체육교류에 성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아침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체육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金鍾烈회장의 주재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가진 바 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김종렬위원장이 8일 프레스센터에서 남북체육회담 결렬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尹汝弘기자>

변하지 않는 南北회담

분단45년만에 남북의젊은이들이 함께 제11회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다는 희망은 산산이 깨지고 말았다. 89년 3월 9일 첫대화한이래 11개월에걸쳐 본회담 9차례, 실무대표접촉 6차례등 모두 15차례의 회동끝이다.

남북회담이란 으레 그런저런니 하는 눈으로 보아온 사람은 많다. 그것은 회담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몇해를 두고 계속해오는 회담에서 변하지 못하는 북한측의 태도를 안타깝도록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化石처럼 굳어진 기대감도 이번에는 달랐다. 東유럽은 고사하고 그들의 중주국 소련에서조차 세계와의 화해에 커다란 매듭을 지었으며, 우리의같이 분단됐던 두獨逸은 이제 화해의 단계물지나 통일을 운위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의 결렬에는 그런 의미에서 남다른 충격이 있고 회한이 있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란 아직은 허망한 것일뿐이란 차디찬 교훈만을 느끼게 할 뿐이다.

사안이 체육문제가 아니고 대회개최지가 중국 北京이란 점등으로 한때 성사에 기대를 갖게했던 체육회담은 90년에 들어서면서 난기류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순항하던 체육회담을 난항으로 몰아넣은 난기류는 이미 합의된 10개원칙의 구체적인 이행보장문제였지만 북한이 회담을 결렬시키면서 들고 나온 이른바 3대원칙, 즉▲어떠한 경우에도 남북이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에 개별참가 않기로 선언하고▲金滌체육부장관, 金鍾烈KOC위원장의 개별참가 가능성 발언을 취소하며▲남측이 제안한 합의사항 이행보장장치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회담성사에 뜻이 없음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분단고착이란 이유로 서울올림픽을 끝까지 반대하고 불참한 북측이 서울올림픽피막 2개월뒤인 88년12월 90년 북경아시아대회의 남북단일팀출전을 제외하고 나올때부터 그들의 속셈은 어찌면 뻔한 것이긴 했다.

북경하늘에 휘날릴 태극기를 염두에두었을 그들의 속셈에도 분단극복이란 큰 뜻밑에서 남측은 협상에 성의를 다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스런 허상으로 또다시 드러났고 고위당국자, 국회, 경제등 여타의 남북대화에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초청, 방문, 교류등 남북관계개선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제외와 계획이 백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 이러한 묘안들이 어느정도 실현성이 있으며 효과를 거둘것인지 의심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어떤 경우에든지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것은 분단된 우리모두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실망을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회담이건 교류건간에 우리의 접근자세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간의 회담을 보면 「북한과의 회담의 계속」이라는 문제에 너무 집착했음인지 우리측마저 修辭에 매달려 진전없는 회담에 임해온 듯한 인상이 짙다. 남북간에도 이제는 말만외장치가 아니라 비록 적은것이라 할지라도 40여년의 관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보고싶은 것이 모두의 바람이라는 것을 회담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한다.

중화 인민공화국 북경시 南北體育交流

남북체육교류는 7일 북경의 경림선언으로 11개월 만에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남북체육교류는 7일 북경의 경림선언으로 11개월 만에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限界 드러낸 南北「스포츠交流」



남북체육교류팀은 7일 북경의 경림선언으로 11개월 만에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 北京 아시안게임 남북체육회담 일시

구분	개최일자	내용
1차회담	89. 3. 9	단기(이범남) 합의
2 "	3. 28	연두(이범남) 합의
3 "	10. 20	단기(이범남) 합의
4 "	11. 16	한림호텔(포리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개최
5 "	11. 24	신발선공개(여부토론, 실무접촉)
1차실무접촉	12. 1	신발선공개, 단정제, 사무국 설치
2 "	12. 6	"
3 "	12. 15	"
6차회담	12. 22	북경(이범남) 합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개최
4차실무접촉	90. 1. 10	합의(이범남) 합의
5 "	1. 15	"
7차회담	1. 18	"
6차실무접촉	1. 22	"
8차회담	1. 29	"
9 "	2. 7	"

남북체육교류는 7일 북경의 경림선언으로 11개월 만에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남북체육교류는 7일 북경의 경림선언으로 11개월 만에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不信」과 「偽善」으로 異見 극복못해

會談 진전보다 참가 저지 의회 북측
“개별팀 참가, 발언등 허점 노출 남측

남북체육교류는 7일 북경의 경림선언으로 11개월 만에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남북체육교류는 7일 북경의 경림선언으로 11개월 만에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本報北京8日電>

路(平)太



朴甲哲

북한 박인수선

북한측의 대표 선출... 박인수선... 1989년 12월 27일... 박인수선... 1989년 12월 27일... 박인수선...

북한측의 대표 선출... 박인수선... 1989년 12월 27일... 박인수선... 1989년 12월 27일... 박인수선...

북한측의 대표 선출... 박인수선... 1989년 12월 27일... 박인수선... 1989년 12월 27일... 박인수선...

북한측의 대표 선출... 박인수선... 1989년 12월 27일... 박인수선... 1989년 12월 27일... 박인수선...

북한측의 대표 선출... 박인수선... 1989년 12월 27일... 박인수선... 1989년 12월 27일... 박인수선...

북한측의 대표 선출... 박인수선... 1989년 12월 27일... 박인수선... 1989년 12월 27일... 박인수선...

북한측의 대표 선출... 박인수선... 1989년 12월 27일... 박인수선... 1989년 12월 27일... 박인수선...

南北체육회담의 감

東西의 남북

체육회담의 중요성... 남북교류... 1989년 12월 27일... 남북교류... 1989년 12월 27일... 남북교류...

체육회담의 중요성... 남북교류... 1989년 12월 27일... 남북교류... 1989년 12월 27일... 남북교류...

체육회담의 중요성... 남북교류... 1989년 12월 27일... 남북교류... 1989년 12월 27일... 남북교류...

체육회담의 중요성... 남북교류... 1989년 12월 27일... 남북교류... 1989년 12월 27일... 남북교류...

체육회담의 중요성... 남북교류... 1989년 12월 27일... 남북교류... 1989년 12월 27일... 남북교류...

체육회담의 중요성... 남북교류... 1989년 12월 27일... 남북교류... 1989년 12월 27일... 남북교류...

99년 北京이시안정기 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南北체제 확립을 위한 제1차 담판이다.

북측은 99년 1월 27일(수요일)부터 2월 10일(수요일)까지 14일간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북측은 1990년 1월 27일(수요일)부터 2월 10일(수요일)까지 14일간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남측은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남측은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남측은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남측은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자기를 양한 불이 되고 앉는다.

이런 현상(현상)은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이 현상(현상)은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추 수 錫 <체 육부장>

지정(지정)은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지정(지정)은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이제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이제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남측은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남측은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不信佛 佛頂의 佛育희망

수리(수리)는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수리(수리)는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남측은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남측은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남측은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남측은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남측은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남측은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이제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이제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남측은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남측은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남측은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남측은 北京이시안(北京이시안)에서 南北韓 단음원구상(南北韓 단음원구상)을 위한 제1차 담판이 열린다.

북은 '개방정책'을 경계내 바깥



남북체육회담 실무추진위원회 임태순 씨

기 위해 재네주(주) 북한대사관이 지남아가 기대했으니 비자를 발급 해주지 않아 대외접기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81년엔 5월22일 채코 프라하에서 소련의 주도로 사회주의국가들 의 올림픽보이코프도 선언에 서인애 의 해놓고 그 다음날 체육회담에 나와 단합구성을 하자고 한 사람이 들어 바로 그들입니다.

북측 개별참가 절대 반대

때문에 이번엔 북한측의 확실한 합의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측의 입장이었습니다.

—한 시점에서 북한의 북측체육 회담 참가는 성명.

▲북한이 마지막 9차 분회담에서 우리측에 대해 절대로 개별참가를 양보했다는 방침을 밝힌 것만으로도 뒤집어 생각하면 북한도 개별참가는 양보했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정제국이 나 다음에는 주체국 중의 입장을 양각할때 불참하기도 어려운 입장을 양각합니다.

—그리고 참가하지 않자면 전역은 열 세를 간혹기 어렵고 북한참가인수 등을 통해 파멸한 한국체육의 영 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 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고민에 빠져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결과는 좋지 않지만 이번 회담 의 성과를 좇는다면!



◆북경이시인계인 단임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에 우리측 실무수석대표로 참석하면서 남북관계선이 이상과 기쁘고 이후 어질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았다 고 말하는 임태순 (대안활동위원 회회(KOC)위원).

있는가를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채 정선진용 발전용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공개회담 때는 비 고적 추진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의를 빨리 파악, 빠른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 당에 이번 회담은 중점과 달리 상 당히 심도있는 내용을 토의할 수 있 습니다.

비공개회담 저들도 솔직

예를 들면 신발진이 벌어질 경우 양측 참관단으로 TV생중계여부, 보도진용대문제 등입니다. 증언은 상부적인 정치문제만 다루다 끝을 맺고 있었지요. 결국 회담이 시작 될 심도있는 문제까지 다루게 되자 북한측이 한계를 느끼고 회담을 포 기한 것 같습니다.

—회담이 결렬되기 전 우리측이 준비했던 마지막 카드가 있었는데 요.

▲이행보장장치로 마지막에 세 시한 세가지(단임팀 구성 인멸배 개별참가포함, 합의서 용어해석, 신 발진용 추진일정준수)기후에 개별

습니다. 나탈모르는 단임팀구성을 통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일체 제를 실현하고 또 북경회담에서 우 리의 진리와 경제현이 절충하면서 오는 상층적 동맹을 갖추기 위해 서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담 이 채우본정인 문제는 돌아오지 따라 최소한의 남북체육회담가 불 가피하다는 판단이 서자 결국 이로 인해 북한내에 파급효과를 포기했다 고 결론을 의식해 회담을 포기했다고 봅니다.

—1984년 동경올림픽, 1979년 평 양세계탁구대회, 1984년 LA올림픽과

▲1938년생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졸업
▲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 (80년 ~현재)
임태순
▲1984년 LA올림픽 단임팀 참가 를 위한 남북체육회담 실무추진 위원회 실무위원
~1987년 서울올림픽 공동개회 포 걸대인
▲중앙원 남북회담 전문위원

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 시점에서 북한이 남북체육 교류를 해볼만한 입장이나 능력이 강하지 않지 않은 체제적 사실 때문 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 회담 을 추진했던 주요이유는 단임팀구 성이 선수합동훈련과 선발과정용 을 만드는 거처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의 남북체육교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측 이 서울로 체육회담을 결렬시킨 것 은 양측이 이미 합의한 기문내용에 따라 공동사무국 설치시한이 2월 15일로 포악에 도착했기 때문입니

다. 이번 회담의 우리측 실무수석대 표로 참석해온 임태순 대한올림픽 위원회(KOC)위원은 회담이 결렬 된 후 "다시 한번 이것이 남북의 협 속이나 하던 기대감 풀발 살이구나 하는 비애감을 느꼈다"며 "회담을 잠시시키지 못해 국민 여 러분에게 죄송할 뿐"이라며 안타까 워했다.

지난 81년부터 남북체육회담의 실무대표로 활동해온 그를 회담결 열 다음날인 8월 남북대외사무국 에서 만나 회담진행의 소상한 과정 을 물어보았다.

—1년 가까이 노심조사하며 끝 어는 남북체육회담이 끝내 결렬된 데 대한 느낌은...
▲결국 그달수 밖에 없었다는 외 정감을 느낍니다. 이번 회담을 우 리가 너무 성민적으로 생각하지 않 는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체 육교류뿐 아니라 민제가 가까워 남 북교류가 두절된 상황에서 체육회담 정도도 생각해서 단임팀을 구성 하겠다고 한 것이 남북이 처한 현 실을 볼때 과도한 욕심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북한측이 회담을 결렬시킨 이

단일팀 공동사무국 설치 시한 닥쳐자 판관 짓이 그 증거 현실의 '두터운 벽' 절감... 앞으로 상호 교류 기틀 뒀으면

장치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되려는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상부적 정치공세 퍼기도 79년엔 북한측이 개최했던 단일 팀구성을 하려고 했었고 회담을 미루는 바람에 우리측이 단임팀구성을 실시한데 후긴 끝에 북한비자를 받

장치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되려는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상부적 정치공세 퍼기도 79년엔 북한측이 개최했던 단일 팀구성을 하려고 했었고 회담을 미루는 바람에 우리측이 단임팀구성을 실시한데 후긴 끝에 북한비자를 받

장치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되려는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상부적 정치공세 퍼기도 79년엔 북한측이 개최했던 단일 팀구성을 하려고 했었고 회담을 미루는 바람에 우리측이 단임팀구성을 실시한데 후긴 끝에 북한비자를 받

장치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되려는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상부적 정치공세 퍼기도 79년엔 북한측이 개최했던 단일 팀구성을 하려고 했었고 회담을 미루는 바람에 우리측이 단임팀구성을 실시한데 후긴 끝에 북한비자를 받

장치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되려는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상부적 정치공세 퍼기도 79년엔 북한측이 개최했던 단일 팀구성을 하려고 했었고 회담을 미루는 바람에 우리측이 단임팀구성을 실시한데 후긴 끝에 북한비자를 받

장치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되려는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상부적 정치공세 퍼기도 79년엔 북한측이 개최했던 단일 팀구성을 하려고 했었고 회담을 미루는 바람에 우리측이 단임팀구성을 실시한데 후긴 끝에 북한비자를 받

장치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되려는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상부적 정치공세 퍼기도 79년엔 북한측이 개최했던 단일 팀구성을 하려고 했었고 회담을 미루는 바람에 우리측이 단임팀구성을 실시한데 후긴 끝에 북한비자를 받

대담 김기진 기자

IV.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 關聯記事



南北 국회회담 예비접촉 양측대표들이 25일 오전 10시 板門店우리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중단된지 10개월만에 다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板門店=洪碩惠기자>

대표會談 - 연석會議 주장 맞서

南北국회접촉 종전입장 되풀이

【板門店=송홍진기자】南北 국회회담 예비접촉 양측대표들이 25일 오전 10시 板門店우리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중단된지 10개월만에 다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板門店=洪碩惠기자>

【板門店=송홍진기자】南北 국회회담 예비접촉 양측대표들이 25일 오전 10시 板門店우리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중단된지 10개월만에 다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板門店=洪碩惠기자>

【板門店=송홍진기자】南北 국회회담 예비접촉 양측대표들이 25일 오전 10시 板門店우리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중단된지 10개월만에 다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板門店=洪碩惠기자>

【板門店=송홍진기자】南北 국회회담 예비접촉 양측대표들이 25일 오전 10시 板門店우리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중단된지 10개월만에 다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板門店=洪碩惠기자>

【板門店=송홍진기자】南北 국회회담 예비접촉 양측대표들이 25일 오전 10시 板門店우리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중단된지 10개월만에 다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板門店=洪碩惠기자>

【板門店=송홍진기자】南北 국회회담 예비접촉 양측대표들이 25일 오전 10시 板門店우리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중단된지 10개월만에 다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板門店=洪碩惠기자>

【板門店=송홍진기자】南北 국회회담 예비접촉 양측대표들이 25일 오전 10시 板門店우리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중단된지 10개월만에 다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板門店=洪碩惠기자>

【板門店=송홍진기자】南北 국회회담 예비접촉 양측대표들이 25일 오전 10시 板門店우리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중단된지 10개월만에 다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板門店=洪碩惠기자>

【板門店=송홍진기자】南北 국회회담 예비접촉 양측대표들이 25일 오전 10시 板門店우리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중단된지 10개월만에 다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板門店=洪碩惠기자>

【板門店=송홍진기자】南北 국회회담 예비접촉 양측대표들이 25일 오전 10시 板門店우리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중단된지 10개월만에 다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板門店=洪碩惠기자>

【板門店=송홍진기자】南北 국회회담 예비접촉 양측대표들이 25일 오전 10시 板門店우리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중단된지 10개월만에 다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板門店=洪碩惠기자>

【板門店=송홍진기자】南北 국회회담 예비접촉 양측대표들이 25일 오전 10시 板門店우리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중단된지 10개월만에 다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板門店=洪碩惠기자>

「한글」의 위기와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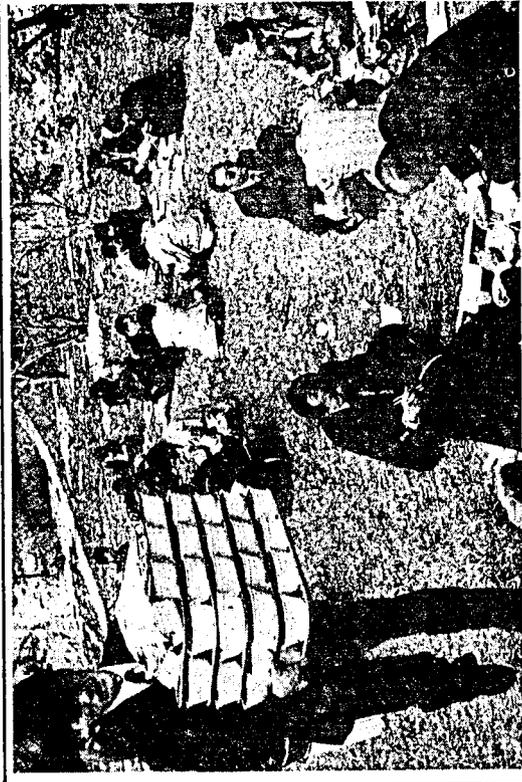
한글의 위기와 위기를 넘어

한글의 위기와 위기를 넘어... (Introductory text about the Korean language crisis)

한글의 위기와 위기를 넘어... (Introductory text about the Korean language crisis)

한글의 위기와 위기를 넘어... (Introductory text about the Korean language crisis)

한글의 위기와 위기를 넘어... (Introductory text about the Korean language crisis)



◆南北기자 「도시락 환담」 제8차 준비위원회에서 양측 대표들이 정신포를 수여하는 동안, 양측 보도진이 환담장에 입장하여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글학회>

北, 「실질」 회피... 文씨·林양사전만 시비 「다각교류 협력」 문제 등 議題일단 점근

한글의 위기와 위기를 넘어... (Main article text, first column)

한글의 위기와 위기를 넘어... (Main article text, second column)

회담형식·議題 계속異見

南北국회 10차접촉 내년 1월 24일 갖기로

北, 개발문제 거론에 해명 요구

【板門店=李鍾煥기자】南北 국회회담을 위한 제9차 준비접촉이 29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려 본회담 형식과 의제에

양측은 다음 제10차 준비접촉을 내년 1월 2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릴 것으로 합의했다. 북측이 개발문제와 관련해 남측에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 남측은 "개발문제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회담은 다음 10차 준비접촉을 내년 1월 2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릴 것으로 합의했다. 북측이 개발문제와 관련해 남측에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 남측은 "개발문제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회담은 다음 10차 준비접촉을 내년 1월 2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릴 것으로 합의했다. 북측이 개발문제와 관련해 남측에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 남측은 "개발문제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회담은 다음 10차 준비접촉을 내년 1월 2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릴 것으로 합의했다. 북측이 개발문제와 관련해 남측에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 남측은 "개발문제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本會談 의제·형식 異見

頂上회담 포함등에 北측 반대입장 고수

南北韓 국회會談 9차준비 접촉

【板門店=李鍾煥기자】南北 국회회담을 위한 제9차 준비접촉이 29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려 본회담 형식과 의제에 양측은 다음 제10차 준비접촉을 내년 1월 2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릴 것으로 합의했다. 북측이 개발문제와 관련해 남측에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 남측은 "개발문제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회담은 다음 10차 준비접촉을 내년 1월 2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릴 것으로 합의했다. 북측이 개발문제와 관련해 남측에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 남측은 "개발문제에 대한 남측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1990. 1. 24)

북측의 제북 주장으로 難航

「팀스퍼리트」취소·장벽철거 토의 고집

南北국회접촉 실질토의 못해

【板門店=慶在韓기자】南北국회회담 제10차 준비접촉이 24일 오전 10시 판문점 무리측에서 열린 판문점의 국경에서 열렸으나 북측이 무리회담 판문점회담을 해 티스퍼리트회담을 금일 성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회고회담 판문점회담수교 협

상하고 판문점회담 판문·정수회담상의 개항의 용량 노획을 기점으로 판문점회담을 1월 29일 제9차 준비접촉 이후 2개월만에 열린 이 회담에서 무리측蔡文植대표는 먼저 행한 조판문에서 그동안 이산가족보존회 판문점회담수교 판문점회담의 대표회담이 하고 의제에 남북정상회담개최문제를 포함시킬것을 요구했다. 북측이 그동안 판문점회담을 판문·정수회담수교 협상하는 한 가지의 한 가지의

세계일보 (1990. 1. 25)

南北국회회담 또空轉

北韓측 「팀스퍼리트」훈련중지 요구로

내달 22일 11차접촉 접촉에 이어 50여일만에 재개된 이날 접촉에서 무리측 蔡文植수석대표는 접촉이 24일 오전 板門店 기조발언을 통해 본회담을 성취할 수 있도록 판문점에서 열렸으나 북측이 팀스퍼리트 훈련 중지문제 의하고 회담의제에는 남북간 다각적인 교류협력문제 「남북 불가침선언문 제외에」 남북정상회담개최문제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24일 북측이 「팀스퍼리트」훈련중지 요구를 제기한 뒤, 남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북측이 회담을 중단했다. 사진은 판문점회담 준비접촉에 참석한 남측 대표단원들이다. (가운데) 남측 수석대표인 무리측 蔡文植 수석대표(왼쪽)와 북측 수석대표인 김성환(오른쪽)이 회담 중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 남측 수석대표인 무리측 蔡文植 수석대표(왼쪽)와 북측 수석대표인 김성환(오른쪽)이 회담 중 대화하고 있다.

진전없는 南北對話

「남북대화」라는 말이 1989년 말부터 1990년 초 사이에 갑자기 유행했다. 「남북대화」란 말은 남북 양측의 대화, 즉 남북 양측의 대화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남북 양측의 대화는 1989년 말부터 1990년 초 사이에 갑자기 유행했지만, 실제로는 진전없이 막혀 있다. 남북 양측의 대화는 1989년 말부터 1990년 초 사이에 갑자기 유행했지만, 실제로는 진전없이 막혀 있다. 남북 양측의 대화는 1989년 말부터 1990년 초 사이에 갑자기 유행했지만, 실제로는 진전없이 막혀 있다.

남북 양측의 대화는 1989년 말부터 1990년 초 사이에 갑자기 유행했지만, 실제로는 진전없이 막혀 있다. 남북 양측의 대화는 1989년 말부터 1990년 초 사이에 갑자기 유행했지만, 실제로는 진전없이 막혀 있다. 남북 양측의 대화는 1989년 말부터 1990년 초 사이에 갑자기 유행했지만, 실제로는 진전없이 막혀 있다.

남북 양측의 대화는 1989년 말부터 1990년 초 사이에 갑자기 유행했지만, 실제로는 진전없이 막혀 있다. 남북 양측의 대화는 1989년 말부터 1990년 초 사이에 갑자기 유행했지만, 실제로는 진전없이 막혀 있다. 남북 양측의 대화는 1989년 말부터 1990년 초 사이에 갑자기 유행했지만, 실제로는 진전없이 막혀 있다.

南北 대화와 北韓의 表裏

世界史의 큰 변혁에 대응하여 새해에는 南北韓관계도 활짝 트였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北韓도 국제조류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린 때문인지 겉으로는 南北의 장벽을 헐어야 한다는 나, 자유왕래가 실현돼야 한다는 외쳐 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그들은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려들지 않는다. 그리하여 南北대화를 촉진시키려는 우리 심정은 그지없이 답답하기만 하다.

南北국회회담을 위한 24일의 준비접촉에서 北측은 본회담의 議題와 形式에는 관심을 보이지않으면서 새삼스럽게 韓-美연합동맹훈련인 틱스피리트를 트집잡는다면 의제와 관계없는 金日成의 「民族통일협상회의」를 서울자고 주장하였다. 國會議담에서 마땅히 다루어져야 할 南北교류, 不可侵선언, 頂上회담 개최등을 제쳐놓고 갑자기 엉뚱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들에게 과연 이 회담을 성사시킬 의향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틱스피리트훈련에 관해 우리는 그동안 그들에게 알아들음만큼 설명해왔다. 76년 이 합동훈련이 시작된 이래 훈련기간 중에도 南北대화가 진행된 일이 여러번 있었고, 특히 올해 3월중순에 시작되는 훈련은 예년보다 그 규모가 축소될 예정이다. 우리는 또한 이 훈련이 攻撃의 성격의 것이 아니라 防禦의 목적을 가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北韓과 中國, 그리고 휴전감시 中立國 감독위원회대표들에게 개방하겠다는 뜻도 이미 밝히고 있다. 北측이 틱스피리트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 훈련에 美軍이 참가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86년 가을부터 해마

다 東海에서 실시하는 蘇聯과의 해상합동 훈련은 어떻게 정당화되는 것인가.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駐韓美軍의 철수를 포함한 軍縮문제는 南北대화가 상당한 진전을 이룬 단계에서 비로소 제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南北간의 대화가 먼저 정착돼야 하는 것이다.

北韓은 또한 金日成이 올해 신년사에서 거듭 제안한 이른바 民族통일협상회의를 추진하자고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함으로써 분명히 韓國의 내부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그들의 의도는 韓國정부가 이미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여러 정당-단체들의 통일방안중의 하나로 格下시킴으로써 統一문제에 있어서 韓國보다 우위에 서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점이 제거되지않는 한 南北대화의 실질적인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 金日成이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南北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에 진정 뜻이 있다면 頂上회담을 통해서 진지하게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올 가을 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에 南北단일팀을 파견하는 문제만해도, 北측은 겉으로는 적극성을 보이는 체 하면서도 속셈이 판데 있었기 때문에 막바지에 일이 꼬이고 말았다. 쌍방의 합意사항이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측이 附則을 제시하자 그들은 태도를 표명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당초 單一팀을 구성할 의향이 없었던 것이다.

南北간의 장벽을 허무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온 세계는 다 알고 있다. 北韓이 자기 위치를 고집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그들이 현실에 눈을 뜨도록 啓發해야 할 책임이 있다.

V. 南北對話全般 關聯記事

南北대화 이달下旬에 再開

정부 방침 北의 체육·高位에 예비회담 제의 받아들

赤十字 실무접촉 秋夕후 개최

정부는 이달 중 하순쯤 南北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을 개 최하고, 그 추이를 보아가며 각종 회담을 재개한다. 방 접을 정한 것으로 일단 일 령 령다.

이런 가운데 北韓측도 이 따라 각종 회담을 재개하고자 고 제의한다. 이달부터는 南北 대화기 어떤 열심으로도 시 작될 것이 확실시된다.

북한측은 그동안 文金換務 사 密入北사진출이므로 연기와 왔던 南北체육회담과 南北고 위담을 지향한 의의회담을 각 각 오는 13일과 18일의 재개 하라고 1일 이후에 제의해 왔다.

남측(외무부)은 체육 회담 북측대표단장 白南俊은 이달 우리측 宋漢虎수석대표 에게 보내온 전화문지문을 통해 북측이 이의신청을 완 화할 의사가 있다면 대화와 접촉의 문을 열어 달 것을 아 야 하며 군사적 대결상태 를 해소하는 것도 선제하게 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무부는 이달 18일 板門店 내우관측지로 평화의 집의 서 갖자고 말했다.

남측 체육회담 북측대표단 장 송한진은 우리측 張忠植 수석대표에게 보면 별도의 전담에서 제1차 이사가 결기되다가 1년안으로 다가 온 사실을 고려할 때 북측에 유 회담이 더 이상 미루어지지 는 않겠다. 며 제3차 회담을 오는 13일 板門店나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白南俊의 전담에서 북과 북이 화해 하고 통일을 하자면 남북 사이의 대화도 하고 국제적 층 대표들과 개별적 인사를 사의 대화와 접촉도 실현 하야 한다. 고 말해 이를 바 「민간회담」도 계속 추 진하겠다고 의사를 명백히 했다.

이의 대화 우리 정부관계 자는 南北대화를 재개하 자 는 북한측 주장에 異議는 없 으나 회담재개시기는 여러 가 지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고 말함으로써 북측이 오는 6일에 개최하고자 제 의해 놓고 있는 南北적십자 실 무대표접촉을 포함 南北대화 시기를 전년도 추석(오는 14 일) 이후로 연기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판권기사 3면〉

南北對話의門 다시 열리기까지...

남북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기까지... 남북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기까지...

「公安암초」 탈출의 以心伝心

남북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기까지... 남북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기까지...

“노력미흡” 대내외視角 의식 内部갈등해소에 「對外」 활용

북한은 대내외 시야를 넓혀야... 남북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기까지...

우리측 관계개선 위해 적극 자세 北韓측 성실성이 대화진전 열쇠

북한측은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기까지... 남북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기까지...

南北대화 본격가동의 試金石

3년10개월만에 다시 열린 적십자회담

적십자회담이 남북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기까지... 남북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기까지...

社 說

北韓은 對話를 두려워말라

北韓이 韓-美합동군사훈련인 「탐스피리트」를 트집잡아 86년초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던 南北赤十字회담 실무접촉이 근 4년만에 오늘 板門店에서 열린다. 北韓이 안락의 압력에 못이겨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된 것인지, 아니면 文益煥목사 密入北사건후 줄곧 그랬듯이 南北접촉을 계속 정치선전이나 공작에 이용하려는 것인지 그 속셈을 알 도리는 없다. 그러나 이번 赤十字접촉에 임하는 그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 10월중에 예정되고 있는 南北체육회담, 高位당국자회담 예비회담, 그리고 國會회담 준비접촉의 앞날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赤十字회담은 南北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접촉이며, 회담목적도 人道的인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있으므로 政治와 理念을 떠나서 협조가 가능한 분야였다. 그러한 회담이 北韓측의 정치노선에 좌우되면서 斷續을 거듭해왔다. 85년 가을에는 비록 규모는 작았으나 南北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과 예술공연단의 교환이 실현되어 分斷 40년만에 처음으로 민간차원의 人的교류가 이루어지는 극적인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人的교류가 閉鎖체제하의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노릇이었던 것 같다. 그로부터 몇달 후 北韓은 우리와의 모든 대화를 단절하는 한편 당장에 실현이 불가능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들은 기존의 대화를 묵살하고 3者군사회담, 高位級정치-군사회담, 多國의군축협상 등을 제안했던 것이다. 이런 회담과 협상을 통해 그들이 노린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南韓으로부터의 美軍의 철수였다. 그들은 문제해결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의 대화에는 관심이 없고, 駐韓美軍의 철수를 통해

南北韓에 엄청난 軍事的불균형을 조성하려 했던 것이다.

최근 北韓을 둘러싸고 있는 정세는 급격하게 변화해가고 있다. 온갖 분야에서 南北韓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그 사실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정착돼가고 있다. 社會主義가 세계적으로 퇴조해가는 추세속에서 北韓의 고립은 이제 스스로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南北韓의 평화적인 협조와 共存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美軍의 철수를 아무리 외쳐왔자 이에 공명해주는 협조자는 없다. 北韓이 그들 내부의 갈등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정세의 변화를 바로 인식한 끝에 우리와 對話의 재개를 결심하게 됐다면 이는 南北韓을 위해, 나아가 韓半島의 장래를 위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赤十字회담 실무접촉에서 시작하여 10월중에 예정되고 있는 그밖의 대화 모두가 순조롭게 진전되기를 바란다. 당국자들간의 회담뿐만 아니라 南北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民間차원의 人的교류도 이를 환영할 것이다. 우리 天主敎는 오는 10월초 서울에서 열리는 世界聖體대회에 北韓의 天主敎신도 20여명을 초청할 계획이며 정부는 이를 승인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民間차원의 교류가 相互主義에 입각한 것이고 또 그 목적이 정치선전이나 공작이 아닌 순수한 성격의 것이라면 이는 적극 장려해야 할 일이다.

이제 歷史의 흐름과 세계의 대세는 누구의 눈에도 명백하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는다면 對話를 통해 和解를 구하는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까닭은 하나도 없다.

社 說

「南北교류」 제 2 라운드

직접·간접으로 남북간에 새로운 대화가 시작됐다. 이러한 대화는 문익환목사로 시작된 일련의 밀입북사건들로 이어졌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 첫 신호가 지난 27일 남북적십자실무대표접촉이 3년10개월만에 열린 것이었다. 이날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적십자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문익환목사 및 임수경양의 석방을 들고 나오긴 했지만, 고향방문단 연내교환 합의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이어서 정부는 이달안으로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과 남북체육회담을 재개하도록 제의할 것임을 밝힌바있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측이 세계 성체대회에, 불교측이 연등대회에 각각 북의 신자들을 초청하도록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북측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북측이 지난 8월말 일련의 남북회담재개를 제의했고, 적십자실무대표접촉의 진행으로 봐서 어느 정도 낙관해도 되지않을까 짐작된다.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하는 또다른 움직임으로 북측이 고려연방제안 의외방안도 수용할 의의가 있다고 밝힌 것을 들수있다. 지난달 28일 북의외교부장겸 조평통부위원장인 김영남의 연설에서 밝혀진 것이었다. 이미 우리 정부가 논평한 것처럼 김영남은 여전히 남북간에 「당국·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고집하고있어 실질적으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대적인 교리처럼 신성시해온 고려연방제안에 대해 수용의의를 밝힌것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좀 더 낙관적으로 보자면 고려연방제안에 대한 융통성있는 발언은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의 길을 터놓을 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기대는 아직은 낙관적인 추측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전망은 먼저 남북 고향방문단과 가톨릭 불교신도의 교류제안에 대한 북측의 반응에서 그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의 변화로 볼때 남북대화재개의 분위기는 성숙했다고 볼수있다. 또한 북측이 평양축전을 서울올림픽에 대한 「맞수」로 선전해왔던만큼, 그들 내부의 여건 조성도 일단은 예정코스를 끝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7·7선언이후 일련의 밀입북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토대로, 또다른 남북대화재개 움직임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것이다. 무엇보다도 북측은 우리쪽의 혼란을 틈타서 이득을 볼수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한다.

우리로서도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국민적합의를 바탕으로 질서있게 남북대화에 임해야할 것이다.

남북대화는 통일에의 길을 닦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통일의 기적을 가져와야한다는 성급한 구호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모처럼의 대화재개가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한발짝이라도 앞서게할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경제의 전망과 과제

북한경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는 글의 시작 부분. '북한경제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를 소개하고, '북한경제의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경제의 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변수많은 「對話러시」 현상



북한경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는 글의 시작 부분. '북한경제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를 소개하고, '북한경제의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경제의 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北형식적 호의... 돌파구엔 기대難
「상황변화」유무나... 北형식적 호의가...

북한경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는 글의 시작 부분. '북한경제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를 소개하고, '북한경제의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경제의 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북한경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는 글의 시작 부분. '북한경제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를 소개하고, '북한경제의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경제의 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이웃나라인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무역과 관광 분야에서의 교류가 두드러진다. 이는 북한경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경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는 글의 시작 부분. '북한경제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를 소개하고, '북한경제의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경제의 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舊態 못벗는 南北대화

—이제 修辭보다 本質 접근 아쉽다

20년을 바라보는 남북대화가 아직까지 본체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음은, 그 자체로서 민족의 불행이라 할 수 있다. 남과 북의 접촉은 다각도로 전개되어 오나, 있고 강기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실제적 성과는 요원하기만 한 것 같다.

오랜만에 재개된 일련의 남북대화는 지나간 구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적실무회담에선 고향 방문단교섭에 합의했으나, 고위당국자 예비회담은 재회의 약속만 남기고 끝났다. 그나마 종래의 공식경로와 다르게 마련된 남북한불교접촉은 북한측의 불참으로 불발이 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남북대화와 접촉방식은 술레잡기와 같다. 만나자면 피하고 만나면 단전을 부린다. 불교접촉은 이뤄질 듯 하더니 대표가 나오지 않고 북한에선 엉뚱한 조건을 제시했다. 상대방이 만남시간을 앞두고 민불련등 재야단체도 나와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너무나 속이 들여다 보이는 고루한 자세를 북한은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대화엔 이제 실체와 본질의 접근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나 접촉은 불필요하고 비상사적인 修辭로 소일하고 만다. 심거운 날씨 이야기나 농사 형편을 나누고 으레 틈스퍼리트나 국가보안법이니 하는 것을 들고 나와 걸림돌로 삼는다. 요즘엔 밀입북자 석방을 새 레퍼터리로 들고 나오는 게 달라진 정도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똑같은 녹음을 반복할 것인지 답답하기 이쁠데 없다.

북한은 남북대화가 열리고 20년 가

까이 똑같은 고루한 통일전선 전략을 버리지 않았다. 특정한 또는 특정집단이나 단체를 상대로 개별적파에 몰두할뿐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위한 공식경로는 되도록 무기력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대화와 접촉에서 지루한 수사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각분야로 열려진 대화창구를 통해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는 노력을 최대로 기울여야 마땅한 일이다. 남북교류를 미끼로 남측의 이간을 피하고 혼돈을 야기시키려는 공작차원의 자세는 결코 통할수 없을 게달아야 할 것이다. 불교접촉의 무산도 이런데서 연유하고 있음이 새삼 노출되었다고 볼수있을 줄 안다.

앞으로 대화는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회담, 국회회담에도 긍정적 호응이 기대되는바다. 뿐만 아니라 특정분야에서 남북접촉의 희망과 요구가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당국은 장구일원화의 실행기준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여유와 탄력이 있는 운용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불교접촉에도 된다 안된다 하여 혼선을 빚은 것은 유감이라 아니 할수 없다. 되고 안되는 기준이 확실해야 신뢰가 쌓인다.

아울러 남북대화에 나서는 우리의 자세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효율성이 없는 수사적 대화들이 지양되도록 각분야의 문제에 정면으로 대결하는 자세로 북한측을 유도해가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는 일시적 승패로 보는 시각을 탈피하고, 인내와 더불어 슬기를 키워가는 노력을 한층 가열시켜 주기 바란다.

社 說

北이 진정 對話에 뜻이 있다면

최근 재개된 南北赤十字회담 실무접촉에서는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에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엇그제 南北體育회담에서도 90년의 北京아시아경기대회에 單一팀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접근이 있었다. 쌍방의 體制와 깊은 관계가 있는 政治-軍事문제와는 달리 인도적 차원의 문제나 체육문제는 비교적 해결이 용이한 분야다. 문제해결이 용이한 분야부터 합의를 쌓아올라가는 과정에서 南北간에 信賴가 굳어진다. 對話는 보다 높은 次元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향방문단 교환과 單一팀 구성에 관한 교섭의 추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3월의 체육회담에서 國歌를 「아리랑」으로 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는 南北대표들은 20일의 접촉에서 國歌를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로 하자는데도 타협을 보였다. 다만 대표단 호칭에 있어서 우리가 「한나라」를 주장한데 대해 北측은 「코리아」로 맞서 있다. 호칭문제만 타결되면 單一팀 구성에 있어서 象徵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되는 셈이며, 교섭은 바로 선수선발문제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北京대회의 신청마감은 앞으로 8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南北교섭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北측이 사소한 문제로 트집을 잡아 교섭을 지연시킨다면 單一팀 구성에 참뜻이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본래 北京대회에 單一팀을 참가시키자는 제안은 北측에서 먼저 내놓지 않았던가.

우리는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赤十字회담이나 北京대회 南北단일팀 구성을 위한 體育회담에 기대를 걸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명암이 엇갈렸던 85년 가을에서 86년초에 걸친 南北대화의 경과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첫 교환은 85년 9월에 실현되어 南北관계개선에 큰 기대를 걸게 했다. 86년초에는 南北간에 경제회담, 赤十字회담, 國會회담 예비접촉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기대는 결코 허황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86년 1월 갑자기 北韓은 韓-美간에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틈스퍼리트 同會同련을 구실로 이미 예정됐던 모든 회담과 접촉을 일방적으로 단절하고 말았다. 최근 접촉에서 北측은 기회 있을 때마다 文益煥목사와 林秀卿양에 대한 우리측의 司法처리에 대해 시비를 걸었으며 韓-美간의 합동훈련은 어떠한 형태로든 내년에도 계속될 것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南北관계를 개선할 듯한 기운을 조성해놓고 나서 갑자기 86년초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지 않을까 우리는 경계할 수 없다.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예선전에서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피는 속일 수 없다는 호뜻하고도 교훈적인 몇 장면을 TV화면을 통해 또는 신문지면을 통해 보았다. 南北韓선수들은 다같이 패어 플레이로 일관했고, 상대편 선수가 넘어졌을 때는 손을 내밀어 일으켰으며, 勝負가 가려진 후에는 승자가 패자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다. 北韓이 제 3국과 경기를 벌일 때는 관중석의 우리 교포들이 일제히 同族선수들을 응원했다. 이것이 南北간의 순수한 감정이다. 北韓이 진정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뜻만 갖고 있다면 南北간에 가로놓인 문제들은 쉽게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北은 왜 交流를 두려워하는가

비록 제한된 규모로나마 오는 12월 8일 南北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을 실현해 보려던 그동안의 우리 노력은 이제 무산되었다. 北측은 이산가족 재결합에는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고, 계급투쟁과 혁명을 고취하는 3시간짜리 공연물을 4회에 걸쳐 상연할터이니 이를 모두 TV로 중계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러한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니 그들은 애당초 年內에 고향방문단을 교환할 의향이 없었던 것 같다.

北韓이 불과 2개월 전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을 연내에 다시 교환하자고 합의해놓고 막바지에 와서 태도를 표변한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85년 9월에 있었던 제1차 고향방문단의 교환결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던 것 같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平壤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을 南韓의 이산가족들에게 개방할 처지가 되지 못했다. 그 平壤조차도 최근 共產圈 전역에서 자유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있는 정세하에서는 南韓동포들에게 개방하기가 두려울 것이다. 그들이 藝術團 공연 절차에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것은 이 사업이 좌절된 책임을 韓國측에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그들과 赤十字회담 외에 高位당 국자회담 예비교섭, 國會회담 준비접촉, 그리고 體育회담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회담도 그들의 내부적 사정 때문에, 또는 그들이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노선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중단될지 모른다. 예를 들어, 體育 회담에서는 외형적으로 큰 진전이 있었던 것 같이 보인다. 來年 가을 北京에 파견할 南北단일팀의 團旗, 團歌, 호칭 등에 합

의가 이루어졌으며 選手선발문제만 순조롭게 타결되면 교섭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그러나 選手 합동훈련이나 團長 任員 선정에 있어서 그들은 또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모른다. 사업성공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게 해놓고 나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실패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 그들의 상투적인 교섭태도였다.

高位당국자회담 예비교섭에서 北측은 회담 명칭에 「政治-軍事」라는 단어가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회담명칭을 「고위당국자회담」이나 「총리회담」으로 하여 南北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과 政治-軍事문제를 아울러 토의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굳이 「政治-軍事 회담」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이 회담에서 그들이 노리는 것이 오직 「美軍철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85년 가을 처음으로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을 교환하여 南北간 분위기가 다소 개선되어가던 시기에 北韓측이 갑자기 韓-美合同훈련 팀스 파리트를 구실로 86년 초에 예정돼 있던 모든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던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

이 지역의 긴장완화와 平和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北측과의 대화 노력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對話에는 상대가 있게 마련이다. 相對가 對話에 참뜻이 없거나 對話를 정치선전에 이용하려 든다면 거기서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 對話에 거는 기대가 지나치게 크면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때의 좌절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北측의 의도를 살펴가면서 침착하고 인내성있게 對話에 임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89년의 「南北 대화」 결산

남북 대화의 열매는 무엇인가.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큰 成果 없지만 「窗口」는 유지

남북 대화의 열매는 무엇인가.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남북 대화의 열매는 무엇인가.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密入北」시비등 고비마다 “공전설”

팀스피리트 트집... 議題의 공방 잦아 계속 踏歩

南北赤첩추엔 「혁명歌劇」결려 타결 일보前 좌초

남북 대화의 열매는 무엇인가.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 쓸쓸한 歸路 29일 판문점 北側의 통일각에서 열린 南北국회회담을 위한 제9차 중비접촉이 별성과 없이 끝난 뒤 韓次補수석대표 (사진 가운데) 등 우리대 대표단이 회담장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板門店=강원도기자】

남북 대화의 열매는 무엇인가.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남북 대화의 열매는 무엇인가.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남북 대화의 열매는 무엇인가.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남북 대화의 열매는 무엇인가.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남북 대화의 열매는 무엇인가.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대화의 열매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정부는 1989년 12월 29일... (Introductory text for the article)

정부가 1989년 12월 29일

정부는 1989년 12월 29일

정부는 1989년 12월 29일... (Left column of text)

정부는 1989년 12월 29일... (Middle column of text)

정부는 1989년 12월 29일... (Right column of text)

정부는 1989년 12월 29일

정부는 1989년 12월 29일... (Bottom left text)

정부는 1989년 12월 29일... (Bottom middle text)

정부는 1989년 12월 29일... (Bottom right text)

<정부는 1989년 12월 29일>

북한 모든 대화채널 중단 선언 의미

남북대화의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의 상호교환방문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실무접촉이 <꽃파는 처녀> 공연시비로 무기 연기되고, 지난 6일 남북체육회담이 마지막 합의서 작성단계에서 이른바 '합의이행 보장방안' 채택문제로 완전 결렬된 데 이어 9일 북한이 팀스피리트 90훈련 중지를 요구하며 남북 국회회담과 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에 불참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

않았었다.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남한을 핵 전초기지로 삼아 북한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북침에 이를 수 있는 '핵시험전쟁'이라고 인식해 왔으며, 남한 당국이 외세에 '핵보호를 구걸'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남한쪽 대표들은 이에 대해 팀스피리트 훈련이 방어적 훈련이며 공개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참관단을 구성, 직접 훈련 과정을 지켜보라고 요구하며 북

남침위협이 상존하는 한 남북대화 함께 한미 공동방위개념에 근거한 군사적 대비상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최근 주한미군의 단계적 부분 감축과 역할조정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다른 한편에서 '한국방위의 한국화' 개념에 의거, 자주국방력 증강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있다.

아무튼 금년 들어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새로운 남북 정치협상회의 제안

남북교류 집은 먹구름

신년사등 유연한 입장에서 한걸음 후퇴

다. 이로써 남북대화 재개는 팀스피리트 훈련이 끝나는 4월말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팀스피리트 문제뿐만 아니라 민정·민주·공화 3당의 합당사태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붓고 있어 모든 대화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은 지난 86년과 89년에 이어 지난 1월의 제10차 국회회담과 제6차 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남북대화에 연계시킬 뜻을 감추지

한쪽의 주장들은 한마디로 '생트 집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는 자세를 보였다. 남한쪽은 또 팀스피리트 훈련 문제를 포함하는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문제'가 남북고위급회담의 의제로'상정되어 있으므로 북한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본회담을 성사시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갈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남한쪽은 북한쪽의 대남 적화전략노선이 불변하고

에서도 '남한쪽 사회단체'의 참여를 공식 폐제하는가 하면 베이징에서의 미국과의 접촉에 적극성을 보였다가 다시금 남북대화를 일방중단시킨 정치적 배경은 '분명치 않다.

다만 남한쪽이 <꽃파는 처녀> 공연을 거부하고 남북체육회담에서 "단일팀 구성·참가가 불가능할 경우 개별팀으로 참가한다"는 합의이행 보장장치를 요구한 데 대한 북한쪽 나름대로의 '불신감'이 크게 작용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윤석인 기자>

지연작戰이로 시급별기습

북한은 12일 오후 12시경 남한을 향해 대량 발사한 미사일 12발이 남한 영공을 통과했다. 남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후인 오후 1시 30분경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2일 오후 12시경 남한을 향해 대량 발사한 미사일 12발이 남한 영공을 통과했다. 남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후인 오후 1시 30분경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2일 오후 12시경 남한을 향해 대량 발사한 미사일 12발이 남한 영공을 통과했다. 남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후인 오후 1시 30분경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2일 오후 12시경 남한을 향해 대량 발사한 미사일 12발이 남한 영공을 통과했다. 남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후인 오후 1시 30분경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南北對話 전면중단 北측의 계산

남한은 12일 오후 12시경 남한을 향해 대량 발사한 미사일 12발이 남한 영공을 통과했다. 남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후인 오후 1시 30분경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2일 오후 12시경 남한을 향해 대량 발사한 미사일 12발이 남한 영공을 통과했다. 남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후인 오후 1시 30분경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2일 오후 12시경 남한을 향해 대량 발사한 미사일 12발이 남한 영공을 통과했다. 남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후인 오후 1시 30분경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2일 오후 12시경 남한을 향해 대량 발사한 미사일 12발이 남한 영공을 통과했다. 남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후인 오후 1시 30분경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體育회담은 對外用으로 제외

북한은 12일 오후 12시경 남한을 향해 대량 발사한 미사일 12발이 남한 영공을 통과했다. 남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후인 오후 1시 30분경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2일 오후 12시경 남한을 향해 대량 발사한 미사일 12발이 남한 영공을 통과했다. 남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후인 오후 1시 30분경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2일 오후 12시경 남한을 향해 대량 발사한 미사일 12발이 남한 영공을 통과했다. 남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후인 오후 1시 30분경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2일 오후 12시경 남한을 향해 대량 발사한 미사일 12발이 남한 영공을 통과했다. 남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후인 오후 1시 30분경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팀스피리트는 트집... 집안사정이 主因

북한은 12일 오후 12시경 남한을 향해 대량 발사한 미사일 12발이 남한 영공을 통과했다. 남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후인 오후 1시 30분경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Introductory text for the special section)

대한민국... (Section header for the special section)

대한민국은... (Text block in the special section)

極秘추진... 北측, 人物的 교류 당분간 거부반응

○원래 남북회담 임시기획팀의 북측도 예상



○원래 남북회담 임시기획팀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북측 고위급에 비화팀의 임속 대표들. 임제표기수사만을 협의대상으로 남겨두고 있으나 지난달 31일 의 제 5차 회담에서 북한측이 임제표기 임시기획팀을 주장, 남측에 거부반응이다.

北측은... (Text block under the main headline)

北측은... (Text block under the main headline)

北측은... (Text block under the main headline)

東歐등 영향... 數年內 근본변화를 뜻

北측, 人物的 교류 당분간 거부반응

東歐등 영향... (Text block under the sub-headline)

北측, 人物的 교류... (Text block under the sub-headline)

東歐등 영향... (Text block under the sub-headline)

(鄭光哲기자)